

10

October 2023
Vol.382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LUMN
극장 너머 쉼터

COVER STORY
개관 50주년 맞은 부산시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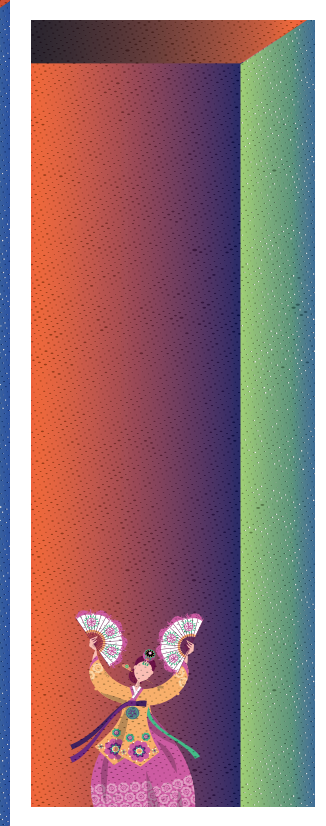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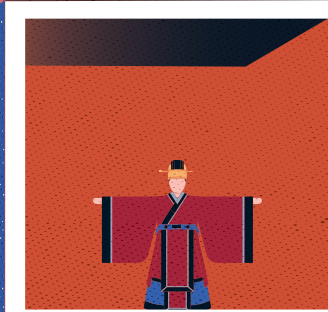
클릭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어반브릿지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



총괄제작 | 이정필
총감독 | 이영애 연출 | 이범권 지휘 | 이동훈 사회 | 손지현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한복협동조합, 모델 시앤디,
엔젤피스예술단, 창작연희The늘, 태권도아리랑뎃시법단

2023.10.10(화)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티켓: R석3만원 S석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예매 및 문의: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





2023년 부산도슨트과정 5기 회원모집

장소 부산도슨트협회,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2층 세미나실

회비 50만원 (총12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788953 부산도슨트협회

문의 회장 박덕남 010-6207-0767

교육목적

21세기 문화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미술, 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가교역할과 미술관, 갤러리, 각종 아트페어에 작품해설 및 안내를 하여 대중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접근을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가와 관람 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과 도슨트협회 회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5기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회	월/일	교육내용	강사
1	10월 30일	개강식(30분) 미술, 감상자와 감상전달자	박덕남(블루아트페어 위원장) 구본호(부산대 예술학 박사,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관장)
2	11월 6일	스타도슨트가 되고싶은 당신에게	정연은(미술칼럼니스트, 부산시립미술관 도슨트, 평화방송 "화요명화산책" 진행)
3	11월 13일	감흥 너머 산수, 시각 앞의 풍경	우승우(전 계명대 외래교수)
4	11월 20일	I 가치있는 삶, 품위있는 죽음	안장혁(동의대 교수)
5	11월 27일	II 독일미학과 문화	안장혁(동의대 교수)
6	12월 4일	쉽고 재미있는 미술관 관람법	정연은(미술칼럼니스트, 부산시립미술관 도슨트, 평화방송 "화요명화산책" 진행)
7	12월 11일	- 도슨트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도 - 효과적인 현대미술 도슨팅 전시기획 의도와 맥락의 이해	김채빈(경남도립미술관 도슨트)
8	12월 18일	현대미술관 역할과 그림감상법	이지안(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전문 도슨트)
9	1월 8일	현대미술의 이해	김미애(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0	1월 15일	I 색채입문학으로 접근하는 명화읽기	배선주(한솔미술공예협회 이사장)
11	1월 22일	II 색채입문학으로 접근하는 명화읽기	배선주(한솔미술공예협회 이사장)
12	2월 5일	- 예술로서의 사진과 컨템포러리아트, 그리고 디지털아트로의 발전(1시간30분) - 종강식(30분)	민경숙(아트커뮤니케이션 르비드 대표) 박덕남(블루아트페어 위원장)

※ 월요일 저녁 6시30분 ~ 8시30분 2시간(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 상반기반, 하반기반 (총 24강) 실무강의 10시간 이수 및 정회원 가입 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자와 베토벤

LAO-ZI & BEETHOVEN

예술감독

오충근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

철학자

최진석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

협연

김성준 (피리, 부산대학교 교수)

김주영 (바이올린, BSO 악장)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2023

YEONGDO 영도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HAEUNDAE 해운대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10.17 TUE.
7:30pm

10.18 WED.
7:30pm

Pianist Julius-Jeongwon Kim
Grand Tour Recital 2023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국투어 리사이틀 2023

Last Chopin

last
Chopin

2023.10.22. Sun. 17:00

광주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2023.10.25. Wed. 19:30

서울 롯데 콘서트홀

2023.10.28. Sat. 17:00

대구 수성아트피아 대극장

2023. 10. 29. Sun. 17:00

청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2023. 10. 30. Mon. 19:30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주관 stageone · KREIS CLASSIC

문의 051-744-4780 / 010-9274-4780

예매처 인터파크티켓

F. Chopin(1810-1849)

2 Nocturnes

-Nocturne in B major, Op.62 No.1

-Nocturne in E major, Op.62 No.2

Barcarolle in F sharp major, Op.60

3 Mazurkas

-Mazurka in g minor, Op.67 No.2

-Mazurka in a minor, Op.67 No.4

-Mazurka in f minor, Op.68 No.4

Fantasy in f minor, Op.49

-Intermission-

3 Mazurkas

-Mazurka in B major, Op.63 No.1

-Mazurka in f minor, Op.63 No.2

-Mazurka in c sharp minor, Op.63 No.3

3 Waltzes

-Waltz in D flat major, Op.64 No.1

-Waltz in c sharp minor, Op.64 No.2

-Waltz in A flat major, Op.64 No.3

Polonaise-Fantasy in A flat major, Op.61



9th

을숙도 오페라 축제

The 9th Eulsukdo Opera Festival



10.7.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10.14.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부경필하모니오케스트라

10.21.

세이무어 바랍 오페라

버섯피자

부산예술오페라단

10.28.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단 나눔

*Opera
Festival*

2023.10.7.~10.28. | 토 | pm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부경필하모니오케스트라, 부산예술오페라단, 오페라단나눔 입장연령 | 초등학생 이상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http://eulsukdo.saha.go.kr> 홈페이지 예매시 20% 할인 관람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문의 | 051.220.5811~14

2023 국악과 트로트가 만나다 시리즈
김영임 & 김용임과 함께하는

히히낙락

喜怒哀樂

국악계 아이돌 고금성



트로트 디바 김용임



국악명창 김영임



경기소리꾼 전영랑



영도문화예술회관공연장

2023. 10.20 (금) 오후 7시 30분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주관 | 영도문화예술회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료 | 일반회원 4만원, 정기회원 3만원, VIP회원 2만원 예매 |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스24, 나눔티켓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관람연령 | 초등학교이상관람가

*본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여 전국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의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히히낙락'은 '문화회관'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화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금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UN	MON	TUE	W
<p>1</p>	<p>2</p>	<p>3</p> <p>피아니스트 임현정 가을독주회 16:00 대 15만원·12만원·9만원 공연기획 가야 010-7706-3238</p> <p>제30회 동요사랑 페스티벌 '고추잠자리' 15:00 중 동요사랑회(010-3864-9889)</p>	<p>◆(재)부산문화회관 2023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14:00, 18:30 대 14만원·11만원·8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초대 중 한국피아노학회 영남</p>
<p>8</p> <p>제61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한마당' 18:00 중 무료/(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p>이은호 바순 독주회 19:30 참 전석 3만원/마에스트로컴퍼니(02-525-2761)</p>	<p>9</p>	<p>10</p> <p>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4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무료/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32)</p>	<p>11</p> <p>희망품은 우리가곡 19:30 중 부산성악아카데미(010-3864-9889)</p>
<p>1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마리 퀴리' 14:00, 18:30 대 9만9천원·8만8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3 부산채임버뮤직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17:00 중 부산채임버뮤직소사이어티(510-1747)</p>	<p>16</p>	<p>17</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합창제' 19:0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8</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19:0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61회 부산예술제 '부산' 14:00, 18:30 중 (사)부산무용협회(607-600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10-3864-9889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참 부산시립예술단 공연</p>
<p>22</p> <p>제15회 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대 (주)KNN(850-9568)</p> <p>차이콥스키 서거 130주년 기념연주회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기리며' 17:00 중 3만3천원·2만2천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황여진 비올라 독주회 17:00 참 전석 1만원/황여진(0502-1935-0500)</p>	<p>23</p>	<p>24</p> <p>일파가야금합주단 제26회 정기연주회 '가야금과 현죽동음' 19:30 중 초대/일파가야금합주단(010-5148-3336)</p>	<p>25</p> <p>◆부산시립교향악단 가을심포니악회 '심포니야' 19:30 중 전석 1만원/(재)부산</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10-3864-9889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참 부산시립예술단 공연</p>
<p>29</p> <p>부산 메트로폴리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음악' 17:00 중 7만원·5만원·3만원 BMPO(070-7727-0188)</p>	<p>30</p>	<p>31</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1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19:30 대 전석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프라노 이수진 독창회 19:30 참 이수진(010-2817-1910)</p>	



ED	THU	FRI	SAT
4	5	6	7
3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리사이틀' 19:30 전석 6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23회 정기연주회 19:30 자부(010-3779-9234)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제28회 정기연주회 '종교개혁' 19:30 중 전석 1만원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010-3376-2246) 소프라노 이진영 독창회 19:00 캠 전석 2만원/이진영(010-2623-121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피터와 늑대' 10:30 사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중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피터와 늑대' 10:30 사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독우회 제55회 정기연주회 '우정' 17:00 캠 초대/독우회(010-4800-6224)
1	12	13	14
30 10-6647-6676)	부산국악작곡가 제22회 연주회 19:30 중 부산국악작곡가회(010-2448-0823) 김정은 피아노 독주회 'Dear Franz' 19:30 캠 전석 2만원/가온클래식(070-8811-0513)	제61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중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성악가협회 정기연주회 19:30 캠 부산성악가협회(010-9298-794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마리 퀴리' 14:00, 18:30 대 9만9천원-8만8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2023 명사초청 아카데미 15: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서혜리 피아노 독주회 17:00 캠 초대/서혜리(010-3596-1964)
8	19	20	21
주회 '제34회 부산합창제' 관(607-6000) 산무용예술제' 19:30 32-5116)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0 사업팀(607-3136, 311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합창제' 19:0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10:30 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36, 3113)	(재)부산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 시리즈IV '현대합창의 밤'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부산음악대축제III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19:30 중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10:30 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36, 3113)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기원 및 사회 공헌을 위한 '300명 부산 시민대합창제' 17:00 대 무료/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23 부산음악대축제IV '창작과 오케스트라의 밤' 17:00 중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던 애프터눈' 17:00 캠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5	26	27	28
희음악회 '부산시향의 문화회관(607-6000)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0 사업팀(607-3136, 3113)	(재)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III' 19:30 중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시립무용단 'The Legacy_천상의 길' 20: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4회 정기연주회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19:30 중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10:30 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36, 3113)	용마코러스 제7회 정기공연 19:00 중 용마코러스(010-9231-1251) 멜로매니아 제29회 정기연주회 17:00 캠 멜로매니아(010-3885-6600)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에릭 요한슨展
6월 27일(화)-10월 8일(일)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입장 마감 오후 6:00)
• 입장료 : 일반 (만 19세 이상) 1만8천원
청소년(중·고등학생) 1만5천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1만2천원
• 문의 : Hteam 070-7008-8905



공연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1</p> <p>어린이뮤지컬 '티티체리-용의 생일파티를 도와라' 11:00, 14:00, 16:00 대 5만5천원-4만4천원 (주)엔투게더(070-4108-9999)</p> <p>제1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한가위 매직판타지아' 14:00, 17:00 소 전석 3만원/(사)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 (626-7002)</p>	<p>2</p>	<p>3</p>	<p>4</p>
<p>8</p>	<p>9</p>	<p>10</p> <p>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 19:30 대 3만원-2만원/부산시민회관(630-5200)</p>	<p>11</p>
<p>15</p> <p>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4:00, 20:00 대 BPAM(745-7235)</p> <p>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1:00, 13:00, 18:00 소 BPAM(745-7235)</p>	<p>16</p> <p>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9:00 대 BPAM(745-7235)</p> <p>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3:00, 15:00 소 BPAM(745-7235)</p>	<p>17</p> <p>제69회 감성콘서트 '대한민국·필리핀 문화교류 축제와 코피노가정 돕기 기금마련 콘서트' 19:30 대 15만원-10만원-만원-5만원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070-7787-3086)</p>	<p>18</p> <p>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공감, 4인 4색-장대' 소 전석 2만원/부산시민회관(630-5200)</p>
<p>22</p> <p>2023 부산미래유산 부산시민회관과 함께하는 '부산 시민 예술가 축제' 18:00 대 무료/(주)다소니(010-4101-8928)</p>	<p>23</p>	<p>24</p>	<p>25</p> <p>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배시시 명품극장 '여자만' 소 무료(선착순 예약)/부산시민회관(630-5200)</p>
<p>29</p> <p>뮤지컬 '전천당 vs 흑화당' 11:00, 14:00 대 전석 7만원/(주)지예스시(1544-1555)</p>	<p>30</p>	<p>31</p>	

ED	THU	FRI	SAT
4	5	6	7
1	12	13	14
8	19	20	21
15	26	27	28
22	29	30	31

제61회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회(돌아올 회)' 17:00
 대 초대/(사)부산예총(631-1377)
 'CINE-THEATRE' The live 내기 2023 19:30
 소 전석 1만원/Performance Processing Today(010-4106-4607)

'CINE-THEATRE' The live 내기 2023 17:00
 소 전석 1만원/Performance Processing Today(010-4106-4607)

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4:30, 19:00
 소 BPAM(745-7235)

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6:00
 대 BPAM(745-7235)
 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1:00, 14:30
 소 BPAM(745-7235)

제1240회 MBC 목요일음악회 '동요의 선율에 맞춰 춤을 추자' 19:30
 대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강연 '공감, 4인 4색-김현숙' 11:00
 소 전석 2만원/부산시민회관(630-5200)

BIAF 2023 부산국제예술제 개막식&시상식 14:00
 대 BIAF 2023 부산국제예술제 조직위원회 (010-8005-0226)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강연 '공감, 4인 4색-정우철' 11:00
 소 전석 2만원/부산시민회관(630-5200)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강연 '공감, 4인 4색-이대호' 14:00
 소 전석 2만원/부산시민회관(630-52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3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9:30
 대 전석 5천원/부산시민회관(630-5200)

연극 '쥐 잡는 날' 19:30
 소 극단 이야기(010-4221-5033)

뮤지컬 '전천당 vs 흑화당' 11:00, 14:00, 16:30
 대 전석 7만원/(주)지에스시(1544-1555)
 연극 '쥐 잡는 날' 16:00
 소 극단 이야기(010-4221-5033)

전시실
 제10회 전통규방공예 국제교류전 및 제3회 대한민국 전통규방공예 공모대전 10월 4일(수)-10월 10일(화) 전시실 1-2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OX 10월 14일(토)-10월 15일(일) 전시실 1-2
 ※ 운영시간/오후 1:00~오후 6:00

부산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졸업전시회 10월 18일(수)-10월 24일(화) 전시실 1-2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전시회 10월 26일(목)-10월 29일(일) 전시실 1-2
 신라대학교 주얼리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10월 31일(화)-11월 4일(토) 전시실 2
 • 문 의: 부산시민회관 630-5212

예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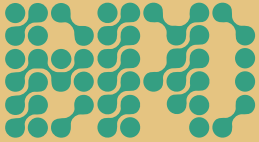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604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6 Last Works V
Haydn and Brahms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하이든 / 교향곡 제104번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문의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051-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교향악단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CONTENTS

10

월간문화예술정보지



- 12 Column
극장 너머 실러
- 14 반갑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남창희
- 16 Cover Story 1
개관 50주년 맞은 부산시민회관
- 26 Cover Story 2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 30 특집기사
부산시립무용단 50주년 기념 발전방안 토론회
- 42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㉗
취미가 직업이 된 일요화가, 루소
- 46 세계의 콘서트홀 ⑥
혁신적인 디자인
룩셈부르크 필하모니아
- 50 서울통신원
한국 공연계도 이제 '블랙페이스' 없다
- 52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어반브릿지
- 56 Preview
- 62 문화가 화제
- 68 Review
- 72 Program Guide
- 87 New Book
- 88 BSCC News

예술의 조대 October 2023 Vol.382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3년 9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홍보팀장 김명숙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업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극장 너머 쉼터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기획경영실장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근대는 산업의 분화뿐 아니라 공연예술 자체도 하나의 영역으로 독립하기 시작했다. 공연의 무대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연회는 왕의 장수, 나라의 평안, 풍요와 같은 목적에서가 아니라, 관객의 미적 즐거움을 위한 공연예술작품으로 다듬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공연예술이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은 1902년이다. 경성에 최초의 관립극장 협률사(協律社)가 세워지고 같은 해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戲)라는 작품이 공연되었다. 협률사는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춘 극장이었는데 이 무대에서 공연된 작

품은 당대 명창, 예기, 무동 등의 춤과 노래, 즉 우리의 전통 공연예술 작품들이었다. 일제의 영향으로 유입된 일본 대중공연물, 혹은 서양으로부터 비롯된 음악이나 무용 작품이 무대에 오른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부산에도 근대식 공연장이 생겼다. 1903년 행복(幸座), 송정좌(松井座), 1905년 부귀좌(富貴座) 등이 있어 영화 상영 등이 이루어졌다. 1907년 생긴 부산좌(釜山座)는 연극 전용 극장으로 객석 규모가 1,540석이나 되는 대형극장이었다. 규모뿐 아

나라, 1926년 3월 일본의 현대무용가 이시이 바쿠가 부산국제관에서 무음악 무용공연과 같은 실험적인 예술작품을 선보인 것을 보면 당시 부산의 극장 환경이 꽤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8년에는 최초의 관립극장인 부산공회당이 건립되었다. 1930년 최승희의 부산공회당 공연 때 관객이 가득 찼다는 매일신보 5월 24일 자 기사 등 당시 신문 기사들을 통해 부산공회당에서도 여러 공연이 활발하게 개최된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 궁궐, 종묘, 대청, 야외에서 관객과 나란한 높이에서 이루어지던 연희가 액자형 프로시니엄 무대 위에서 공연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장에서 관람자들과 같은 높이에서 연희될 때 이는 직접적인 소용이 닿는 행사였다. 궁중의 연희를 즐겁게 하고, 제사의 법도를 절도있게 하였으며, 농경의 피로를 풀고 함께 참여하여 어울리던 축제였다. 연희자와 관람객의 나란한 위치는 공연이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연희현장은 삶이 연속되어 이어지는 곳이었고, 연희는 그 삶의 실질적인 목적을 기원하는 또 다른 현실이었다.

근대의 극장에서는 무대의 막이 열리고 조명이 켜지면 현실과는 다른 예술의 세계, 미적 가상의 세계가 펼쳐졌다. 한 단 높은 액자형 무대는 현실이 아닌 예술세계, 미적 이데아를 구현하는 장치가 되었는데 예술이 실용적인 영역에서 예술 그 자체의 미적 영역으로 분화, 독립한 것이었다.

프리드리히 쉴러는 가상에 대한 기쁨, 장식과 유희에 대한 애착은 야만으로부터 인간성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현상이며 미적 가상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내적 자유의 증거라고 했다. 미적 가상에 대한 사유는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변화하는 현실의 것은 허상이며 진정한 실체는 이데아에 있는 불변의 것이라는 이원론을 주창했는데 이는 현실과 관념을 분리하여 사유하는 틀이 되어 이후 칸트와 쉴러에 이르기까지 미적 세계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들은 감각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를 나누었고,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불변의 절대미를 욕망하게 했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 공연을 위해 개방무대형 공연장, 돌출무대형 공연장, 체육관형 공연장, 횡단무대형 공연

장, 가변무대형 공연장 등 여러 무대 형태로 제작되지만, 다목적용 블랙박스형 극장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무대는 객석에서 바라보기 편한 높이에 자리한다. 그 무대의 높이는 심미적 예술세계로 나아가는 계단이자 예술이 구성하는 미적 이상의 높이이다.

하지만 예술이 다만 미적인 이상만을 희구한다면, 공연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예술과 관객을 분리시키는 장소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공연장은 인간의 내적 변화를 통해 세상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심미적 세계를 창조하는 공간이다. 예술을 공공재로서 위치시키는 공동체의 뜻은 거기에 있다.

1759년 태어난 쉴러는 서른에 프랑스혁명을 맞았다. <군도(群盜)>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흥분과 기대로 혁명의 물결을 맞았지만, 이어지는 공포정치를 보면서 인간 내면의 변화 없이 통치체제를 뒤집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국가 발전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산업혁명의 분업시스템이 야기한 인간성 소외를 직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주장한 것은 저서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에서 밝혔듯이 감성과 이성이 통일된 상태인 미적 상태로의 회복이었다.

미적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적 교육, 즉 심미적 체험이 중요한데 이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을 통해 완전한 미적 덕성을 갖춘 미적 인간은 총체성을 가진 윤리적 인간이므로 이들이 이루어가는 국가와 사회는 본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1953년 화재로 소실된 부산공회당이 1973년 부산시민회관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2023년인 올해 50년을 맞았다. 1973년은 부산시립무용단이 창단된 해이기도 하다. 예술이라는 미적 체험은 사회나 직장에서 부여한 역할을 하는 동안 분절되고만 우리의 존재를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미적 인간으로 환원시켜 준다. 미적 인간은 인간의 총체성을 갖게 하므로 좋은 예술을 접할수록, 우리가 속한 세상은 환해진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공연장이 거듭 지어지고, 드높은 미적 이상을 향해 생애를 건 시립예술단 예술가들의 공연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다.



높이 멀리, ‘문화’가 이륙하는 김해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남창희

최원준 시인

‘이륙데이’. ‘데이(day)’가 들어가니 무슨 날을 뜻하는 듯한데, ‘이륙’이 애매하다. 숫자 2, 6과 관계있겠다 싶어 달력에서 2월 6일을 찾아보고 26일을 들여다봐도 아리송하다. 그런데 이 ‘이륙데이’를 공항과 연계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항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곳 그렇다면 ‘이륙데이’는 무엇인가가 ‘이륙하는 날’인 듯하다. 무시로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곳이 공항인데, 이 ‘이륙데이’에는 무엇이 이륙하는 것일까? 남창희 김해공항장에게 ‘이륙데이’에 관해 물었다.

“이륙데이(26day)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매달 26일을 ‘문화와 함께하는 날’로 정한 날입니다. 수많은 국내외 여행객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전시 등을 개최해 문화와 예술이 흘러넘치는 공항을 만들자는 뜻을 담은 날이지요. 지금은 이를 더욱 확대해 26일이 낀 주간을 ‘이륙위크(26week)’로 정하고 각 지역 공항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 향유를 기획, 진행,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의 공항과 운영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 이 ‘이륙위크’ 제정으로 한국공항공사 산하 각 지역 공항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협의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공유, 소통하면서 ‘문화가 있는 공항’을 지향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 또한 남창희 공항장이 부임한 이후 부산시립예술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본격적인 ‘부산 문화예술이 이륙하는 공항’으로의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월 2회,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김해국제공항에서 진행하고, 김해국제공항은 공항 내 공연 관련 시설 및 공연 홍보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 벌써 시립교향악단 공연이 공항 이용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후속 예술단 또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단다.

“우리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동남권 대



표 공항이기에 부산권역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고, 또 부산권역과 함께 발전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공항 이용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선사해야 할 의무 또한 큼니다. 그런데 마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우수한 기관인 부산시립예술단과 협약을 맺게 되어 큰 힘이 됩니다.” 남창희 김해공항장의 말이다.

김해국제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제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공항이다. 2019년 기준으로 45개 노선에 하루 176편의 항공편이 운항되었고 국제선 이용객 약 천만 명 포함, 연간 1,700만여 명이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했었다. 팬데믹 이후 올해는 1,4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에서 기획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 문화 자원의 홍보와 연계는 지역 발전에 큰 시너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산국립국악원, 국립김해박물관, 부산미술협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등과도 협의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향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항은 한 지역의 관문입니다. 특히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유라시아의 기종점의 국제도시와 연계된 공항이기에, 이에 걸맞은 문화적 특성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중 지역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는 전통의 예술문화는 그 지역과 소통하는 소중한 문화적 매개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문화가 흐르는 김해공항’의 지향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부산’과도 여러모로 관계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남창희 공항장의 말속에서 김해국제공항의 풍성한 문화 예술 콘텐츠 조성 이유에 대한 의중이 읽힌다.

김해국제공항은 이미 국내선 3층의 ‘공항 아트홀’과 국내선 격리 대합실의 ‘디지털 갤러리’ 등을 통해 도자기, 로봇, 대형 설치미술 등을 전시하는 ‘공항 특별전’을 수시로 개최하여 여객들의 문화 향유에 특별히 노력을 기하고 있기도 하다. 근간에는

‘가야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김해박물관과 함께 ‘가야 웹툰 특별전’ 전시회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맞춰 ‘동네방네 BIFF 영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다.

남창희 공항장에 의하면 ‘이륙워크’를 보다 더 정례화하고 확대할 예정이란다. 여건이 된다면 현재 월 2회 공연인 시립예술단 공연을 점차 늘려나가고, 더욱더 많은 문화예술단체와 협약을 통해 다종다양한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 등도 개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문적인 문화공연을 위한 음향, 조명시설을 갖춘 상설 공연장을 국내선 ‘스카이 가든’에 조성하여 더욱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제 지역 공항은 지역 주민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하는 공항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문화적 향기와 지역정서의 냄새가 물씬 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관광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향유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김해국제공항은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단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관광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포부를 밝히는 그의 모습이 진지하고 열정적이다. 특히 공항과 지역문화의 상생 부분에서는 그의 눈이 형형하게 빛이 난다. 김해공항 발(發), ‘문화예술’호의 ‘거대한 이륙’의 웅자(雄姿)를 미리 보는 듯하다.



반세기 부산 문화를 지켜오다

개관 50주년 맞은 부산시민회관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민회관은 현존하는 전국 공공 문예회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특히 지난 1988년 부산문화회관이 개관하기까지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해온 부산 문화의 요람으로, 지난해에는 부산시가 선정한 '부산 미래유산'에 지정됐다. '부산 미래유산'은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 중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부산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2건의 유산이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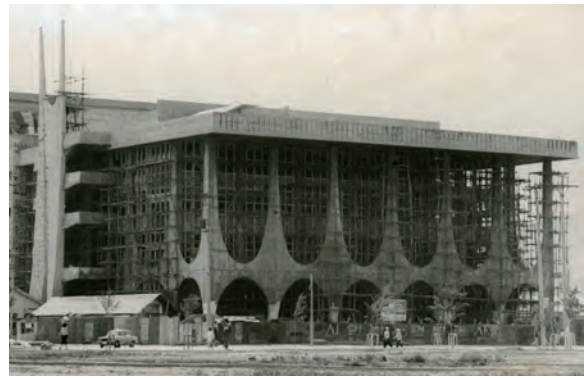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전문공연장

*부산시민회관은 지난 1973년 10월 10일, 3년간의 대역사 끝에 첫발을 내딛었다. 원래는 그보다 훨씬 앞선 1962년, 중앙동의 구 부산역사(현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를 부지 삼아 현상설계를 실시, 이듬해 전국에서 출품된 작품 중 부산건축설계사무소의 허선행 씨의 작품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공사의 착공이 계속 미뤄지면서 차일피일하던 중 1965년, 부산시의 사정으로 중앙동의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지금의 장소인 범일동으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설계도가 채택됐다. 공사는 1970년 9월에 착공하여 1973년 8월에 준공했으며, 1973년 8월에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1973년 10월 10일 개관하였다.

서울 장충동에 자리한 국립극장(1973년 10월 17일 개관)보다 1주일 먼저 개관한 부산시민회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전문공연장으로, 개관 당시 대극장 객석이 현재보다 600석 많은 2,200석으로 문화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시절 대규모 공연장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공사비로 9억 6천만 원이 투자됐으며, 연건평 3,898평,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건물에 대극장 외에도 470석의 소극장, 그리고 두 곳의 전시실을 비롯한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당시 대극장은 ‘대강당’이라 하여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국경일 행사, 아시아영화제, 심지어 국제기능올림픽까지 열리는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삼김(三金)의 연설 등 정치적인 이벤트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민회관 건물의 조형적 특징이라고 하면 그것은 단연 곡선의 기둥들로 구성된 아케이드라고 할 수 있다. 이 아케이드는 대극장을 ‘C’자로 둘러싸고 있는 외부 기둥 사이사이에 아치와 포물선의 개구부를 만듦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둥과 보가 부드러운 곡선의 십자 모양을 가지게 되고 이 십자형 기둥들이 연속되면서 마치 서



공사 중인 부산시민회관 ©부산일보



1973년 10월 10일 개관한 부산시민회관 ©부산시청

로서 손을 잡고 공연장을 둘러싸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은 해양도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물결에서 곡선을 본뜨고 한국의 민속놀이인 강강수월래에서 시민들이 다함께 동참하는 의미를 차용한 것이다. 당시 부산의 상징물인 바다의 파도와 무형문화재로부터의 문화예술적 의미를 함께 형상화한 것으로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공연장이라는 건물의 특성에 대한 설계자의 해석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월간 이상건축(1994년 3월호) 참조

최첨단 무대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고객 서비스

현재 부산시민회관은 1,606석의 대극장을 비롯해 385석의 소극장과 1, 2층의 전시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연습실까지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 한때 노후화된 시설로 불편을 겪기도 했으

나 지난 2009년 대극장 객석 및 전시실 전면 개·보수를 거쳐 2012년 소극장 객석 및 로비, 연습실, 세미나실, 분장실 리모델링, 2013년 대극장 로비 및 소극장 분장실 리모델링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펼치면서 관람객들을 위한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해왔다.

특히 대극장은 지난 2019년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무용, 콘서트 등 모든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거듭났다. 첨단 시스템으로 변화된 공연장 로비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음향, 영상시스템으로 이곳을 찾는 관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예술가와 무대작업자들을 위해서는 최첨단 무대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반영된 최첨단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과 48개의 배튼(batten) 시스템은 무대연출가들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장면전환도 가능하도록 설계되면서 대규모 뮤지컬공연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의 변신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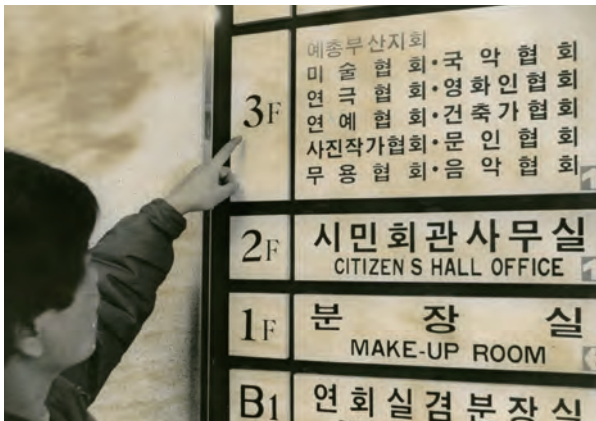
이밖에 창작 실험예술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극장은 객석 385석(1층 97석, 2층 288석) 규모로 독주회, 연극, 어린이뮤지컬 등 소규모의 종합공연뿐 아니라 매년 부산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등 지역의 주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소극장 1, 2층에 자리한 두 곳의 전시실은

회화, 조각, 서예, 사진, 목화, 공예, 수석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지난 1992년 부산문화회관이 개관하기까지 부산의 유일한 문화 예술의 요람 역할을 담당해온 부산시민회관은 개관 이후 부산지역 예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공공교육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산하 예술단체와 부산시립예술단이 이곳 부산시민회관에 상주해 있다. 지난 1988년과 2011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예술회관이 개관하면서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문화회관으로,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부산예술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듯 부산시민회관은 마땅한 문화시설이 없던 1970, 80년대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오늘날 부산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 왔다.

부산시민회관은 개관 후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해오다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해왔으며, 2017년 10월 1일부터는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문화회관과 통합, 운영해오고 있다.



그 당시 부산시민회관에 상주하던 부산예술 부산지회(1991.1.31, 국제신문)



부산시민회관 시민참여형 야외축제 ‘시민뜨락축제’



개관 50주년을 맞아 대극장 2층 로비에서는 기념전 '위대한 유산'이 열리고 있다.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무대

그동안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연과 문화 행사로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해온 부산시민회관은 이번 개관 5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우선 개관일인 10월 10일에는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이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부산시민회관처럼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을 표현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 무대로 개관 50주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한다. (재)부산 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가 제작에 직접 참여했으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 모델시엔터, 엔젤피스예술단, 창작연희 The늘, 태권도 아리랑멋시험단 등 출연진만 2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우리 음악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흥겨운 무대도 함께 펼쳐진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강연도 10월 한 달간 4차례 진행된다. '공감, 4인 4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는 인간 본성과 기술의 진화를 탐구해온 과학철학자이자 진화학자인 장대익(10월 18일)과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김현숙(10월 19일),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도슨트 정우철(10월 20일), 그리고 전 롯데디자인즈 야구선수 이대호(10월 21일)가 시민들과 만난다. 부산시민회관의 50년 역사와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전 '위대한 유산'도 대극장 로비에서 펼쳐진다. 2020년 대극장 재개관 기념으로 열려 시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그 기억과 흔적 사진전'을 새롭게 재구성, 보다 더 풍성한 자료로 시민들을 추억의 그 시절로 안내한다.

부산예술문화의 등대로 함께 해온 50년 세월 - 만남과 그리움의 시간을 보내고

정두환 문화유목집단동행 예술감독



어린 시절 조방 앞은 넓은 공터로, 친구들과 축구와 야구를 하며 놀던 곳이었다. 집에서 조금 멀기는 하지만, 학교 운동장보다 넓은 공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때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는 것, 특히 놀러 간다는 것은 아주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놀다보면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친구들과 보다 넓은 공터를 찾아다니던 그 시절, 뽕안면지를 마시며 놀던 어릴 때 이야기이다.

부산시민회관은 1973년 10월 10일 개관되었다. 시민회관 주변엔 큰 건물이라곤 바로 옆의 삼익아파트,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평화시장, 부산시외버스 터미널, 부산고속버스 터미널 정도였다. 늦은 밤 배의 안전 운항을 돕는 등댓불처럼 시민회관은 부산문화예술의 등대 같은 존재처럼 우뚝 자리하고 있었다. 부산예술문화의 등대를 밝히는 시간이 되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불빛으로 온 동네를 환하게 밝히며 부산시민회관 공연장의 당당함을 세상에 알렸다. 그 밝음은 대낮처럼 환하였고, 건물의 위용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웅장하였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 입고 음악회장을 찾았다. 필자 또한 어릴 때부터 참으로 열심히 찾은 곳이기도 하다.

1970~80년대 대중들의 삶은 대부분 부유하지 않았다.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공부에만 열중하는 시기였다. 그래도 가끔은 음악회장을 찾는 친구들이 주변에 몇 있었다. 필자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음악회장을 다녔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어머니께서 사주신 회수권(버스를 탈 수 있는 표)을 친구들에게 팔곤 학교를 걸어 다니며 아낀 돈으로 시민회관을 찾아 음악회를 보기도 하였다. 그

때 들은 음악이 너무 좋아 서면의 레코드점에서 백판이라고 하는 LP 복사판을 사서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들었던 기억도 새롭다. 처음 백건우의 피아노 독주회를 관람한 곳도 시민회관이며, 수많은 무대 위 음악인들을 시민회관에서 만났다.

필자는 음악이 참 좋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그냥 좋았다. 듣는 것이 좋았고, 부르는 것이 좋았다. 그러니 무대 위의 음악인들이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화려한 조명이 환하게 밝혀진 시민회관에서 음악회가 열리는데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날이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환하게 밝혀진 시민회관이 보이는 곳에 우두커니 서서 화려한 불이 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기를 참 많이도 하였다. 불 켜진 시민회관이 마냥 좋았고, 그곳에서 듣는 음악은 천국 같았다.

이제 부산시민회관이 개관한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시민회관은 여전히 부산문화예술의 상징이며 등대 같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1963년 정부 직할시 승격 이후 꼭 10년 만인 1973년에 부산직할시는 시민회관을 개관하였다. 이는 부산문화예술 특히, 공연, 전 시분야 관련 예술엔 축복과도 같았다. 부산예술문화가 부산시민회관 개관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큰일이었다. 시민회관이 개관되면서 흩어져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인 부산시립무용단까지 부산직할시 산하 4개 단체가 부산직할시립예술단이라는 명패를 시민회관에 붙이며 예술인들의 터전의 깃발을 올렸다. 부산시립예술단은 극장과 교회를 비롯하여 공간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달려가 연주를 하던 떠돌이에서 벗어나 최고의 연습시설과 공연시설을 갖춘 곳에서 연습과 공연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필자의 어

린눈에도 정말 열심히 공연하던 연주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보이는 듯하다.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을 지내온 연주자들이 오히려 열정으로 뭉친 그들의 연주는 실력을 능가하는 힘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1973년 10월 10일 개관한 부산시민회관은 2004년 부산시 설관리공단으로 그 운영권이 넘어갔다가, 2017년 10월 1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과 통합하여 현재 (재)부산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다. 한때는 아시아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여, 시민회관을 찾은 많은 연주자들 또한 그 음향을 칭찬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전문공연장 형태는 갖추었으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는 '복합'으로 인하여 대규모 실내 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의 행사와 공연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음향판이 망가졌다. 자연음향 위주의 홀이었으나, 전자음향이 쏟아내는 음향을 다 소화하지 못하여 결국은 반사판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던 것이다. 부산에 1,600여 석의 좌석을 제대로 갖춘 대극장이 시민회관 대극장뿐이니 실내 대규모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이해는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립예술단들은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다양한 공연을 소화해냈다. 1986년, 부산의 음악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후 부산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을 선정, LP작업을 처음 가지기도 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휘자 박종혁 선생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 전 악장의 음반을 서울 지구레코드사에서 발매한 바 있다. 당시 예술인들의 열정을 필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부산시민회관은 1,606석의 대극장을 비롯하여, 385석의 소극장과 240m²의 면적의 전시실, 야외극장 등을 구비하여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3·4층에 마련된 연습실은 일반 예술 동호회 등이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시민회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늘 피력하여 왔다. 부산 공연문화를 태동시키고 부산 공연예술의 전문극장으로 출발한 그 역사성에서

부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50년을 한결같이 예술의 향기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시민회관은 더 많은 일들을 위해 뛰어야 한다. 어린 시절 예술의 향기를 맡으며 자란 지금의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필자 또한 그중의 한 명이며 관객에서 연주자로 40여 년을 활동하였다. 수없이 관람하던 곳에서 처음으로 무대에서 관객을 향해 인사를 올렸던 그 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공연이 모두 끝난 뒤 불 꺼진 객석을 무대에서 바라보며 다짐하였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예술가로 살아갈 것을... 필자에게도 부산시민회관은 예술혼을 가르쳐주었던 현장이다.

이제 이곳이 부산의 공연예술을 더욱 단단하게 앞서가기 위해 부산공연예술을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산예술도서관을 부산시민회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부산 그 어디에도 예술 전문도서관이 없다. 부산의 1세대 또는 1.5세대 예술인들이 점점 하늘의 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부산의 앞선 예술가들의 흔적을 더 늦기 전에 한곳에 모으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일제시대를 지나 6·25전쟁과 산업화에 이어 정보화를 이루어낸 뒤 세계 속의 한국 예술문화 속에서 부산이 자리하였던 역사들을 모으는 작업이기도 하며, 앞으로의 50년 아니 100년을 향한 기반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부산예술도서관은 꼭 필요하며 그 장소로는 부산시민회관이 적격이다.

부산시민회관 50년은 부산공연문화예술의 산 기억이며 증거의 현장이다. 앞으로의 삶은 더욱 문화와 예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컴퓨터라는 기기를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지만, 이는 아날로그의 삶을 돕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는 예술현장, 더욱 친근하게 만나는 예술현장. 결론적으로 예술현장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가상현실의 세상이다.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향한 힘찬 항해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부산시민회관이 있었기에 지금의 부산공연예술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민회관이 걸어온 길



부산시민회관 개관 신문기사(1973. 10.)
©부산일보



부산시민회관 준공식(1973. 10.)
©부산시청



부산시립합창단 제8회 정기발표회(1977. 06.)
©이하룡 제공



KBS교향악단 부산연주회(1983. 05.)



제25회 효행대회(1989. 05.)
©국제신문



제9회 부산미술제 개막(1989. 09.)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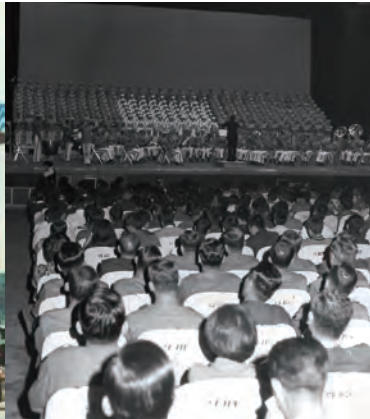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50년史



임응식선생 회고작품 부산 초청전(1973. 11.)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회식(1978. 09.)
©부산시청



육군합창단 발표(1977. 10.)
©국제신문



CBS 창립25주년 제1회 성가합창제(1986. 11.)
©CB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77회 정기연주회(1985. 04.)
©이하룡 제공



제11회 부산무대예술제(1988. 09.)
©국제신문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1992. 02.)
©국제신문



영화 <영구와 드라큐라> 상영(1992. 02.)
©부산일보



제18회 부산무대예술제 겸 2002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축하 국악대공연(1995. 10.) ©국제신문



제700회 MBC 목요음악 감상회(1995. 11.) ©국제신문



부산시민회관 새단장 개관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음악 연주회(2002. 07.) ©부산시청



APEC 성공개회 특별공연 '가락국기'(2005. 01.) ©국제신문



한낮의 휴 콘서트 관람하는 관객들(2006. 04.) ©국제신문



부산국제 건축문화제 개막식(2011. 10.) ©국제신문



부산시민회관 초청 뮤지컬 <년센스> (2016. 09.) ©국제신문



불법선거 사진전 관람하는
문정수 부산시장(1996. 04.) ©국제신문



제17회 부산연극제 개막(1999. 04.)
©부산시설공단



부산국제해변무용제(2006. 07.)
©국제신문



소년의집 자선음악회(2008. 08.)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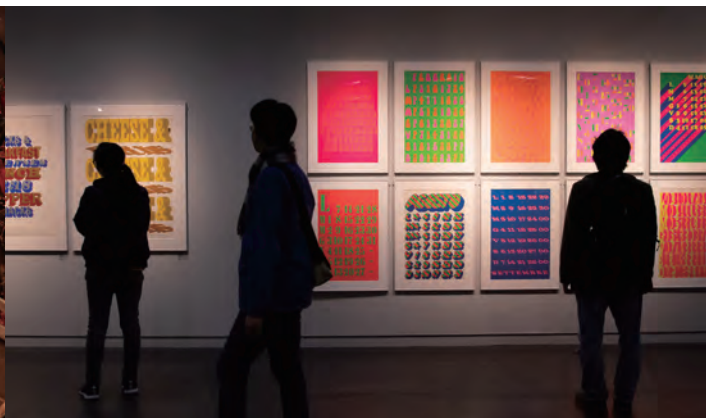
동래권번의 마지막 예인 유금선 선생(2009. 12.)
©국제신문



제1회 아시테지 인 부산(2018. 07.)



오페라 <투란도트>(2019. 03.)
©국제신문



앨런 플래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2020. 04.)

※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회관의 50년 역사와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전 '위대한 유산'이 대극장 2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3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일시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각색·연출** 고선웅
- **번역·드라마트루기** 오수경
- **출연** 하성광, 장두이, 정진각, 이영석, 유순웅, 조연호,
이지현, 유병훈, 장재호, 호산, 강득중, 김명기, 김도완,
전유경, 우정원, 박승화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언론과 관객의 찬사를 받아온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관객과 만난다.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은 연극 1위

지난 2015년 처음 무대에 오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중국 원나라의 작가 기군상이 쓴 고전 희곡을 연출가 고선웅이 직접 각색, 원작의 비극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초연 직후 동아연극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연극대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올해의 공연 베스트7 등 연극계의 각종 상들을 휩쓸었으며, 특히 4년간 대상작을 내지 못했던 동아연극상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작품은 연출가 고선웅에게도 제52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제8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연출상, 제5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제1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올해의 연출가상 등 각종 굵직한 연극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다.



초연무대에 이어 2018년 무대에서는 매 공연 매진 기록을 세운 것으로 모자라 객석 3층까지 오픈시키며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국립극단이 실시한 '국립극단에서 가장 보고 싶은 연극' 설문에서 압도적 표 차로 1위를 차지, 2020년 국립극단 창단 70주년 기념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이듬해에도 다시 관객과 만나 완벽한 호흡과 무르익은 연기로 관객들로부터 '인생 연극'으로 회자되며 지금까지도 재공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양의 햄릿’ 조씨고아

‘조씨고아’는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구두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작가 기군상이 잡극 형태로 엮어낸 작품이다. 천 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중국 희곡 중에서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비극(20세기 중국학자 왕국유)’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서양에서도 ‘동양의 햄릿’이라 불리며 다양하게 변주되어 공연되고 있다.

작품은 조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조씨고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식까지 희생한 ‘정영’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평범한 인물이 신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통해 대의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 본성과 내적 충돌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고선웅 연출 특유의 연극적 표현과 해학에 웃던 관객들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의 주인공이 된 정영의 절절한 심정에 눈물을 흘리며, 텅 빈 무대를 꽉 채우는 이야기와 배우들의 열연은 깊은 감동을 전한다. 특히 고선웅 연출가는 중국 고전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인 ‘신의와 ‘복수’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남기는 삶의 허망함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보여주며, 인간의 욕심과 복수가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초연부터 함께한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연극 ‘회란기’를 통해 부산시



©나승열(국립극단 제공)

민들과도 친숙한 연출가 고선웅은 2005년 극공작소 마방진을 창단한 후 ‘칼로막베스’, ‘홍도’, ‘강철왕’, ‘락히맨쇼’ 등을 쓰고 연출하여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2011년 연극 ‘푸르른 날에’로 5·18의 무거운 역사를 명랑하게 풀어내 그 해 온갖 연극상을 휩쓸었으며,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리랑’, 창극 ‘홍보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오페라 ‘맥베스’ 등 장르를 넘나드는 각색과 연출 작업을 통해 한국 연극계가 가장 주목하는 연출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에서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지난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배우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비극적인 운명에 휘말리게 되는 필부 정영 역으로 제52회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하성광을 비롯해 장두이, 이영석, 이지현 등 초연 멤버들이 뭉쳐 그 시간만큼 쌓여온 내공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멈춰있는 고전을 살아있는 고전으로 만들다

배신애 연극평론가

2023년은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공연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기군상 원작, 고선웅 각색·연출)이 초청공연된다. 아주 반가운 일이다. 수준 높은 공연을 부산 시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개관기념의 기획 의도도 의미만한 데다가 그것에 매우 적합한 작품을 잘 선택했기 때문이다. 문화의 도시 부산에 어울리는 기획이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중국 원나라 작가 기군상의 <조씨고아>(원래 제목은 <원보원조씨고아(冤報冤趙氏孤兒)>)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2015년 초연을 앞두고 많은 걱정들이 앞섰다. 아무리 국립극단이고 고선웅 연출이라고 해도 외국 고전의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동시대 관객들과 어떻게 공명할 것인지 등등. 그러나 개막과 동시에 이런 걱정은 쓸데 없는 기우(杞憂)였음을 확인했다. 고선웅 연출이 선보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과거의 고전이면서도 지금 이곳의 고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초연 당시 각종 연극상을 휩쓸었던 것, 그리고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리로 자리 잡아 꾸준히 공연되는 것은 그만큼의 보편성과 예술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멈춰있던 고전을 살아 숨 쉬는 현대의 고전으로 만들어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적용되었다. 우선, 중국이라는 외국의 정서는 우리나라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동양의 보편성으로 바꾸었다. 간신과 충신, 권력을 둘러싼 멸문지화의 사건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역사 속 장면들이다. 이 작품에서는 권력투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사람들, 특히 힘없는 사람을 중심에 두었고, 바로 그것이 중국의 구체성에서 동양의 보편성으로 확장된 것이다. 즉, 중국의 진나라, 조씨 가문, 도안고 등 작품 속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 피로감이 줄어든 대신에 그 사람들이 펼쳐내는 사건들의 진동, 그 여파와 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동시대인들의 공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복수'에 대한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 인간 본연의 삶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게 한다는 점이다. 원작은 3대에 걸친 조씨 가문 사람들과 그들을 멸한 도안고, 그리고 도안고를 양부로 알고 성장한 조씨고아(조무)가 가문의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갈등의 설정은 복수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선웅 연출은 복수의 주체인 고아보다 고아를 살려내고 길러낸 정영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즉, 멸문지화를 피한 유일한 혈육이 아닌 그 인물을 거둔(복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면서 복수는 관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정영에게 조씨 가문의 복수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공





연 끝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복수의 끝에 도달한 후 정영이 한숨처럼 내뿜는 회한의 대사는 삶에 대한 통찰, 인생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된다.

고전에 숨을 불어넣은 방법은 주제와 내용만이 아닌 연극적 연출에서도 발견된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장성해 복수를 실행하기까지의 긴 시간, 가문 사람들의 원한을 짊어진 복수의 무게 등 원작 자체는 진중하고 장엄하다. 고선웅 연출은 그 분위기를 밝고 소박하게 전환시켰다. 무대 뒤에 거대한 커튼이 눈에 띄는 것 말고는 무대가 텅 비었다.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기에는 오히려 텅 빈 공간이 자유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무대 콘셉트이다. 텅 빈 무대는 그러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술상과 밥상을 올리라고 하면 무대 바닥에서 잘 차려진 밥상이 솟아난다. 시간이 흘렀음을 알리기 위한 갈대는 천장에서 내려오고, 마흔이 넘어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의 시체를 묻는 흙도 바닥에서 올라온다. 무대 위와 아래, 곳곳에서 필요한 장치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은 연극이기에 가능한 표현 방법이다. 어떤 것이 솟아날지, 내려올지 기대하는 즐거움이 큰 무대다. 거기에 원작 속 비장한 죽음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도 작품의 분위기에 일조한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세계관의 투영인데, 목이 꺾인 채 총총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인물을 통해 우리네 삶도, 그리고 죽음도 하염없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저렇게 총총히 떠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동감에 이르게 된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의 가장 큰 매력은 배우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조씨 가문의 복수에 통째로 바친 정영 역의 하성광 배우는 울림 있는 목소리와 변화무쌍한 감정표현으로 미천하지만 가장 고귀한 인물을 창조해낸다. 150분의 공연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와 힘으로 공연의 중심이 된, 이 작품의 대체불가 배우다. 거기에 최대 악역인 도안고 역의 장두이 배우는 조씨 가문을 파괴할 정도로 사악한 인물이지만, 자신의 아들(조씨고아)의 양부가 되어달라는 정영의 요청에 살뜰하게 고아를 길러내는 면모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그 덕분에 양아버지인데 알고 보니 가문의 원수인 도안고를 죽여야 한다는 고아의 갈등이 크게 증폭된다.

이번 부산 공연에는 하성광, 장두이 배우를 포함해 정진각, 이영석, 유순웅, 조연호, 이지현 등 초연 멤버들이 다시 뭉쳤다고 한다. 초연 당시 임흥식 배우가 공연 도중 사망한 비극이 발생했는데, 그분에 대한 애도와 존경의 마음이 초연 배우들에게는 남다른 동료애를 만들었다. 그로 인해 역량 좋은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의 양상들은 공연을 거듭하면서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거기에 이번에는 조씨고아 역을 신예배우 박승화가 맡는다. 그의 환철한 외모와 날렵한 움직임은 조씨고아가 복수를 앞에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것이다. 권력자들이 아닌 평범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복수를 바라보며, 연극성이 돋보이는 장면을 구현하는 등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다양한 방법으로 멈춰있던 고전을 지금 이곳에서 숨 쉬는 고전으로 만들어냈다. 서로에 대한 믿음보다 혐오와 미움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 나의 사소한 불편함이 세상의 전부가 된 요즘이다. 약속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킨 작품 속 정영의 태도, 지독한 비극을 통해 오히려 인생을 긍정하는 고선웅 연출의 세계관이 현대의 고전을 통해 부산의 관객들과 잘 공명하기를 기대한다.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향한 길

부산시립무용단 50주년 기념 발전방안 토론회

1973년 2월 25일,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한 부산시립무용단이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았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창단 후 우리 전통춤을 계승, 발전시키고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부산은 물론 한국 무용계를 주도해왔다. 또한 시립예술단으로서 시민들 곁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한 문화사절단으로서 수많은 해외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창단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나아가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다듬채에서 열린 '부산시립무

용단 50주년 기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토론의 발제를 맡은 무용비평가 최찬열, 이상헌 외에도 부산일보 김은영 기자, 국제신문 조봉권 기자, 전 부산시립무용단 최은희 안무자가 토론자로 나서 미래 부산시립무용단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발제자는 부산시립무용단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무용의 '동시대성', '로컬리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면에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올해 연말 발간되는 <부산시립무용단 50년사>에 수록될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 50주년 기념 발전방안 토론회

일시 9월 12일(화)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다듬채 1층

참석자 사회

1부 사회 황해순(前 부산문화회관 문화사업 본부장)
2부 사회 배학수(경성대학교 철학과 교수)

발제자

최찬열(무용비평가)
이상헌(무용비평가)

토론자

김은영(부산일보 문화부 선임기자, 부국장)
조봉권(국제신문 문화라이프부 부국장)
최은희(前 부산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

주요 참석자

이정필(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윤(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이노연(前 부산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
김재철(부산시립무용단 운영위원)

이정필 오늘 무용단 50주년을 기념해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립합창단 50주년, 교향악단 60주년을 계기로 이런 토론회가 근 한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기점으로, 시립무용단의 향후 50년의 역사를 새로 써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황해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의 50년사를 회고하고 정리하여 향후 100년의 미래를 전망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오늘 발제하실 두 분은 부산시립무용단 50년사를 정리하면서 한국무용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부산시립무용단, 특히 한국무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최찬열 선생님의 <한국무용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구축하라!-1980년대~90년대 초까지 부산시립무용단의 창작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에 이어 바로 이상헌 선생님의 <부산시립무용단 작품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향한 길-부산시립무용단 50년사를 중심으로> 발제를 마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열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한국무용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구축하라!>로 정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제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부산시립무용단의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이런 키워드로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서울이나 수도권, 전국에는 여러 공공무용단이 있습니다. 최근 한 2~3년 사이에 공공무용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용 작품의 '스펙터클화', 두 번째는 '동시대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용 작품의 스펙터클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제가 예로 들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정구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패션 디자이너인데, 몇 년 전에 국립무용단과 <무향>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린 후 국립무용단과는 <산조>라는 작품을, 그리고 서울시무용단과는 <일무>라는 작품을 올렸고, 경기도무용단과는 <경합>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를테면, 패션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3곳의 무용단과 함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작품의 스펙터클화고, 이것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대중성입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티켓 파워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춤의 대중화를 앞세워 한국 춤을 스펙터클화하는 창작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큰 줄기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 줄기는 동시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대성을 한국 춤 작품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공교롭

계도 이것이 외부 객원 안무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국립무용단에서 현대무용가 차진엽, 또는 고블린파티 임진호를 객원 안무가로 데려와서 한국 춤에 동시대성을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서울시무용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훈이나 김재덕을 객원 안무가로 데려와 한국춤과 현대춤을 접목시켜 동시대성을 안착하는 작품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 두 무용단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공무용단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작품이 동시대적 감성에 어필하고 있는가?”에 스스로 확신이 안 들다 보니 동시대 감성에 어필하는 작품을 만들긴 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에 부치니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젊고 핫한 안무가들을 데려와 동시대성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국 공공무용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시대성이다.”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 손쉬운 방법으로 현대춤 안무자들을 객원으로 데려와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춤에 동시대성, 현대성을 입히는 작업, 현대춤 안무자들과의 협업은 이미 부산시립무용단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한국무용 기반 공공무용단과 현대춤 안무자의 조화로운 만남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홍민에 선생이 안무가로 있던 시대인데요, 당시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남정호 안무가라든지, 정귀인 안무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작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미 한국 춤이 앞으로, 그리고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무용단이 지속 가능한 예술 단체로 쪽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현대성과 동시대성이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한국 춤에 동시대성만 입히면 부산시립무용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

데 저는 부산시립무용단뿐만 아니라 한국 춤에는 로컬리티도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컬리티는 흔히 지역성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지역성이라는 말보다는 로컬리티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역성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다른 의미도 덧붙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컬리티를 입히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적에, 저를 대신하여 부산시립무용단과 인연을 맺었던 여러 선생님들의 말을 대신 인용하겠습니다. “전국에 무용단이 없는 지역이 없다. 살펴보면 춤이 비슷비슷하다. 지금이야말로 <보리피리> 작품 같은 지역의 특성, 그 지역 사람의 기질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춤사위와 주제 의식을 가진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김현자 선생이 하신 말인데, 김현자 선생님의 <보리피리>는 1981년도에 무대에 올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춤사위를 보면 두꺼비춤, 도굿대춤, 보릿대춤 같은 생소한 춤이 등장하는데, 바로 동래야류에서 추던 춤입니다. 일종의 막춤인데요, 지금은 거의 추지 않습니다. 이런 춤들을 김현자 선생님이 작품에 과감하게 끌어넣어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작품인데, 김현자 선생이 앞으로 부산시립무용단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춤사위뿐만 아니라 춤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지방의 특성과 향토성을 지녀 투박한 몸짓을 특성화하여 전달하는 것과 지역을 소재로 부산에서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들을 다루어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적인 것을 살려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최은희 선생께서도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부산시립무용단과 인연을 맺었던 안무가들은 한결같이 로컬리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립무용단 50년사를 쪽 정리를 하다 보니 부산시립무용단이 이미 이걸 1980년대 초에서 90년대 초까지 걸쳐 스스로가 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현자 선생님 같은 경우 <보리피리>라든지, 최은희 선생 같은 경우 한국 춤의 컨템퍼러리화, 특



히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극무용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위주의 춤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홍민애 선생의 경우에는 <다시 자갈치에서>라는 지역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남정호, 정구인 선생 등 그때 당시 가장 유능하고 예술적 역량을 가진 안무가들과 협력작업을 하는 한편, 당시 한예종에 있던 김광림 연출가, 이윤택 연출가, 부산에 있는 이동재 연출가, 이기원 연출가 등과 협력작업을 하며 한국 춤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요컨대 이 무렵, 그러니까 19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펼쳐졌던 부산시립무용단의 활동 안에 이미 부산시립무용단의 창작 방향과 기본 틀이 다 갖춰져 있었으며, 거기에 로컬리티와 현대성 혹은 동시대성, 그리고 대중성 등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해순 최찬열 선생님은 특히나 로컬리티와 동시대성, 이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컬리티라는 개념도 단지 지역성이라는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향토성이나 그 내용, 형식, 춤사위까지도 지역성을 담보해야만 진정한 로컬리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동시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성이나 춤의 영역들을 단순히 현대춤 전공자 내지는 안무자의 객원 안무 도입 개념이 아닌, 같이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시도들이 이미 1980~90년대 부산시립무용단에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앞서간 그리고 춤에 대한 고민들

이 이미 있어왔다는 것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헌 선생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상헌 저는 앞의 최찬열 선생님 발제가 우리나라 한국 무용 전체의 경향 같은 폭넓은 이야기였다면, 저는 부산시립무용단에 국한된, 앞에 비하면 약간 각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립무용단 50년의 작품들 안에서 동시대성과 로컬리티의 사례라든지, 거기서 어떤 것이 이상적이었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찬열 선생님은 동시대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로컬리티를 동시대성보다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성에 관해서 보통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예술을 예술사조적으로 동시대적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 무용의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향한 길이라는 이런 거대한 주제를 내세웠는가 하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 무용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 무용의 '미학적 흐름'을 엿볼 수가 있고, 이 한계 안에서 동시대성과 관련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봅니다. 흔히 동시대성에 관한 키워드로 '디아스포라', '소수자 문제', '분배의 불평등', '혐오', '소통', '환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무용뿐만이 아니라 현대무용을 포함해 모든 무용 전반에서는 모던댄스가 오랫동안 차지했던 훈련된 몸, 고도로 정제되고 훈련된 몸이 추는 춤의 가치를 최고

(왼쪽부터) 이성현, 조복권



로 썼고, 그 가치가 지극히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안무로 포획할 수 없는 움직임의 도전에 직면한 일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무용계가 당면한 동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무용의 동시대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전통춤의 권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춤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전통춤은 전통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것이 동시대적인 가치로 해석되지 않으면 권위 말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양태로 발현되는 동시대성은 로컬리티와 별도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시대성에 로컬리티가 포함되고, 로컬리티가 의미를 가지려면 동시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로컬리티는 지나간 역사이거나, 신화나 전설이 되며, 기껏해야 길모양을 잘 다듬어 포장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시립무용단 작품에서 로컬리티를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 공공무용단이기 때문이고, 또 부산의 로컬리티의 근본이 부산에 관한 기억을 통한 지역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무자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옵니다. 여기서 한 2~3년, 3년 좀 더 있다가 가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부산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산의 정체성을 똑같이 느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기준으로 보고, 부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산의 정체성과 로컬리티를 담아내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지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단부터 지금까지의 정기공연 작품들 중에서 부산의 로컬리티를 담아낸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잘 아시는 창단공연 <아, 동래성>은 1,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전통춤 위주로 했고 2부는 극무용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향토성과 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도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을 띤 공연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상으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대 김현자 안무자 같은 경우는, 기장 출신의 소설가 오영수의 <갯마을>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앞에 최찬열 선생님이 언급하신 <보리피리> 같은 경우는, 역대 안무자들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민에 안무자의 <다시 자갈치에서>는 신태범 극작가의 대본을 받아서, 부산항을 배경으로 여러 인물의 다사다난한 삶의 역정을 묘사했는데, “자갈치 시장에서 살아가는 특수한 인간 군상을 묘사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면 예술성은 크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향토적 소재를 다루면서 인간의 보편성을 담아내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예술적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이 부분을 담당하신 배학수 선생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 계신 이노연 선생님 작품 중에서 <하늘과 별과 바람과 춤>이라는 작품은 영도다리를 배경으로 삼대에 걸친 여인네들의 삶과 애환을 시대적 흐름과 함께 표현했는데, 향토성 짙은 창작으로 부산의 역사성과 시사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8대 홍기태 안무자의 작품 중 <허허마다-갈매기의 비상>은 부산을 연상시키는 넓은 바다에서 사는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삼았고, 당시 부산에서 존재감이 컸던 춤패 연분홍의 임현미 씨를 안무자로 초빙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현대무용의 춤꾼 4명을 기용해서 색다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9대 홍경희 안무자는 <찬란한 유산>에서 동래학춤과 동래고무를 작품에 이용했고, <新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달맞이 고개인 와우산, 유엔기념공원, 40계단, 해운대와 동백꽃을 모

티브로 했습니다. 김용철 예술감독은 부산의 지역성을 담는 것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댄스 Four's>에서 부산 출신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4명의 안무자들에게 작품을 맡겨 공연함으로써 부산 무용계와의 친밀성을 내보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계신 이정운 감독의 첫 작품 <南風-South Breeze>에서는 부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부산을 '남풍이 불어오는 곳'으로 상징화했으며, 지난해 <부산, 40계단>에서는 본격적으로 부산의 상징적 장소를 모티브로, 로컬리티를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안무자들은 부산의 지역 춤을 이용하거나, 부산과 관련한 소설이나 시를 바탕으로 하거나, 랜드마크를 모티브로 부산의 지역성을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의 역사와 지역의 리얼리티를 성공적으로 드러냈거나, 지역적 소재의 보편성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소 관념적이거나 부산의 랜드마크를 피상적으로 활용하고,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동어 반복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술감독이 창작하는 데서 로컬리티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너무 높다 보면, 잘못하면 소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태껏 시립무용단 작품에서 동시대적 로컬리티로 호응을 얻은 경우는 대부분 소재주의를 벗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즉, 시립무용단 작품에서 부산을 다룰 때 경계해야 할 것은 소재주의라고 봅니다. 소재주의는 부산 사람의 삶과 역사, 로컬의 리얼리티와는 괴리된 하나의 풍경으로 부산을 박제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시립무용단 작품이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로 향하는 길은 앞서 살펴본 역대 안무자가 부산을 다룬 작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몇 해 머무는 예술감독에게 특정한 방식을 압박하기보다 차라리 타자의 시각이 부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 개인의 역량과 고민에 의해 작품에 반영되는 부산을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재주의를 경계하

고,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전통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예술가의 역량을 믿는 것, 이것이 부산시립무용단이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향하는 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해순 부산시립무용단의 작업 내용, 공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리티와 동시대성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로컬리티에 대해, 부산에 관한 기억이 바로 부산의 정체성이라고 하셨으며 지나친 지역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소재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안무자분들께서 너무 '부산적', '부산성'에 매몰되어 압박이 갈 때는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차라리 타자의 시선으로 부산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소중한 발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권 50년 부산시립무용단 역사에서 이미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가진 고민과 실천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이 토론 자리가 50년 역사에 기반한 토론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계속 쥐고 가야 할 포인트라고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로컬리티에 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정 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에서 박중훈과 안성기가 나와서 주먹 쥐고 싸우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 하나만으로 그 영화가 기억될 정도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40계단이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로컬리티가 살아나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요. 또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성룡이 몇 년 전에 두바이를 무대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이것이 두바이를 드러내기 위해 두바이만을 무대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성룡이 만들면 뜨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영화가 망했죠. 이것이 소재주의 같아요.

오늘 저는 이 토론을 아무래도 역사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왔습니다. 어떤 것은 좀 벗어나기도 하는데, 읽어가면서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질문은 두 분의 발제문 방향에서는 조금 벗어나는데, 부산시립무용단 창단을 전후한 초기 역사에 관한 접근과 정리 상황은 어떠한가요? 예컨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요. 최근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당시 최초 비상임 단원 2인 가운데 한 분인 하유영 선생 소식을 들었고, 건너 건너 이야기를 들으니 강이문 선생께서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작업을 하던 때부터 그 직후의 일화, 본인이 체험한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까도 언급되었던 신태범 소설가·극작가는 부산시청에 소속된 시장님의 스피치라이터를 거의 수십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초창기 레퍼토리시스템에서 활발하게 극작을 하셨습니다. 부산지역 일간지에 <부산문화 야사>를 오래 연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자료로 쓰는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예술단 관련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초기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폭넓은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상황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보완적인 질문입니다. 저 개인의 강렬한 기억을 반추해 보면, 동시대성의 관점에서는 2005년 흥기태 안무가의 <더 위>라는 작품이 무척 강하고 또렷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대의 병폐나 아픔, 어둠을 사정없이 찌른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춤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인 춤사위와 구성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오고무를 비롯한 스펙터클로서의 대형 춤 작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속에 춤의 본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에게 <더 위>가 기억남는 건 그때 제가 이 사회에서 막 고민하던 것들을 춤으로 묵직하게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보태는 의미에서 말을 하면, <더 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언급이나 평가를 할 수

있을지가 저로서는 동시대성이나 로컬리티 관점에서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는 동시대성의 가치는 이 토론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동시대성이 결과만 놓고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 내 말 좀 들어줘.”라는 객석의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0년사를 바탕으로 부산시립무용단의 운영 및 조직 형태를 진화시킬 방향은 어떤 쪽일까요? 이전에 1980년대~90년대 초, 2010년 전반까지라고 보는데, 그때는 부산 춤계도 튼실하고 풍부했죠. 춤을 통한 담론과 실험, 무엇보다 신진들이 배출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안정된 기반에서 뛰어난 무용수를 가지고 탁월한 안무자가 결합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예술계에서 해야 할 일이 달라진 것이 아닐까, 뭘 좀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립무용단의 조직 형태는 이상적인가, 이상적인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그 이상적인 형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에서 손을 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현 사실 초기 역사는 역사 서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초기 역사가 흐리멍덩하고, 대충이면 뒤에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록이 단편적이고, 풍부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었지만, 신태범 선생의 <부산문화 야사>라는 시리즈가 100회 넘게 했거든요, 그게 2000년대 초부터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강이문 선생이나 부산시사에 나오는 것을 정사로 본다면, 예를 들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같은 것으로 봅니다. 저는 두 개가 다 적절히 섞여서 있어야 풍



부산시립무용단 제87회 정기공연 '천두 번째의 밤-춤추는 세헤라자데'(2023. 5. 12~13.)

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거의 숙제 같은 것으로 1980년 이전까지 초기 역사에 관해 정사, 야사 관계없이 폭넓게 역사를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위> 같은 경우, 동시대성을 강력하게 건드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저도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전쟁이라는 작품이 현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너머에 있는 평화의 열망 등과 같은 가치를 다루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 춤극의 고정적인 형식을 탈피하는 형식적인 실험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제 발제에도 나오지만, 무용 형식의 혁신을 이룬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동시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리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동시대적 가치를 표현했다면 충분히 작품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대성이라는 것은 지역과 무관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무용단으로서 부산시립무용단이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지향하는 또 하나의 길이 장르와 지역무용계의 상황을 고려한 조직에 대한 고민, 또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조직 개편이나 조직 운영이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를 담아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찬열 초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문화회관 측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50년사 책을 만들면서 집필자 1인에게 한정된 원고지 매수가 100장 밖에 안 되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다룰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상헌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60년사에서는 이런 재미난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봉권 선생님이 춤에서 스펙터클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스펙터클을 엄청 좋아합니다. 물론 이 스펙터클이 춤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중 하나는 스펙터클이 전국의 공공무용단이 다 같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스펙터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춤의 대중성을 강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중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중을 하향평준화 하는 논리나 명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면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대중입니다. 예술성 높은 좋은 작품을 만들면 대중들도 많이 오고, 매체에서도 당연히 많이 오고,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대중성을 이야기하면서 대중성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김은영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토론회에 불러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쓴소리 아픈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자리는 무엇을 하기위해 마련된 것일까?”라는 의문과 동시대성과 로컬리티, 그리고 부산시립무용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로 알고 왔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보니 50주년 책자제작에 관한 내용에 비중이 조금 편향되어 진행되는 토론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내용을 떠나서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최찬열 선생님이나 이상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동시대성과 로컬리티에 관해서는 200% 공감합니다. 제가 발제문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예술가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숙명적인 부분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고민인데, 그럼 왜 이런 문제를 새삼 들고나와 강조해야 할까? 뭔가 잘 안 풀릴 때,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옛날에 좀 잘했던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반추해 보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찬열 선생님과 이상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인 것은 동시대성이나 로컬리티를 떠나서, 좋은 작품이라면 다 살아남습니다. 관객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용하시는 전문가들이 인정해 줍니다. 결국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이 시대의 아픈 고민이나 내용들을 무용 작품 속에 담아냈는가,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얼마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는가 등이겠죠.

그러면 결국 문제점은, 부산시립무용단 공연을 하면 특히 지난번 정기공연 <세헤라자데> 같은 공연을 했을 때, 시민회관 대극장이 넓기는 했지만 딱 채워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립무용단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미어터지는가? 그러면 미어터지는 관객 중에 일반인과 무용인들의 비율은 얼마만큼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무용단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관객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용단 이정운 감독님도 계시지만 제작 환

경 같은 것들은 원하는 대로 된 것인가? 실제로 어찌면 예술감독을 뽑는 방법조차도 계속 똑같은데, 그런 점들은 잘 검증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립무용단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악원에 무용단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산에 이 정도 되는 무용단은 없습니다. 물론 이정운 감독님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지원 등에서 부족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무용단 만큼의 예산과 훈련된 무용수, 공간, 홍보 등이 갖추어진 경우가 없고, 점점 무용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순수예술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전국 공공기관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인정받고 분위기가 봄 업되는 일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발제자가 아니고 이정운 감독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시립무용단 정기공연에 무슨 작품이 올라오는지를 일반인들보다 무용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관객도, 대중적인 관객만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관객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다음 작품은 정말 내 이름을 걸고라도 더 나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각오와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피드백과 검토와 리뷰 과정을 거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정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50년사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시작점에서 동시대성, 그리고 로컬리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 시작 과정에서부터 꼭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시대나 무용단 역사의 시작점, 동시대성, 로컬리티를 담은 작품들을 생각하며, 한편으



로는 전국 단위나 해외에서 어떤 작품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나를 동시에 생각해봤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무용계가 갖고 있는, 풀어야 할 숙제 등도 고민해봤습니다.

첫째로 안무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당시 특정 무용가들의 스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에서는.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로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특정 무용가 중심, 인물 중심이 되어 안무를 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안무가로 등용되는 과정이 흔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초반까지 특별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용가들은 그냥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성향이나 동시대성, 얼마만큼 전통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작품을 내면 관객들이 꼭 찾기 때문입니다. 허나 융복합이라는 시대가 왔고, 다양한 문화나 콘텐츠들이 파생되고 발전하고, 스마트폰이라는 우리 손 안의 극장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후부터는 아날로그적인 현장 예술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립극장 등과 같은 대형 극장들도 작품에 대한 변화를 꾀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시도들을 누가 먼저 하는가에 봉착을 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민인 것은 뭐냐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시대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 어느 한 곳도 안무가를 양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점이 저는 안타깝고요. 그렇다면 어떤 안무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을 모셔야 하고, 지금 동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독 달라진 점이 무엇이나면, 춤의 황금시대를 맞이했던 시대에 비해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은 예술경영과 기획자입니다. 지금은 관객들과 대중성, 예술성, 그리고 다른 많은 콘텐츠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정 중에서 PD, 곧 프로듀서가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스타 무용가가 중심이었다면, 2020년대 이후부터는 공연기획자와 전담 프로듀서라는 팀이 공연을 세팅합니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은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특정 예술감독이나 안무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내놓으리라는 보장도 없죠. 공공기관에서는 가성비 높은 작품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요. 광범위한 질문을 주셨고, 제가 광범위하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좀 더 개편이 되거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더 전문화되거나 세분화된 그런 조직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학수 오늘 발표자 두 분의 주제는 부산시립무용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라는 관점에서 전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저에게 낯선 제목이지만, 사실 이 주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철학이라든지 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었던 문제죠. 보편성은 시간과

(왼쪽부터) 최은희, 이노연



지역을 초월한 것이고, 특수성은 지역성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물을 고려청자에 담을 수도 있고, 와인병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타이타닉 호라는 소재에 담길 수도 있고 춘향전에 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는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산에 있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고 부산의 지역적 기풍과 소재를 살리면서 한국의 보편적인 문제, 아니면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의 논의가 너무 넓어졌는데, 이 주제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이신 최은희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사실 제가 처음에 50년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첫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과연 50년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빈약한 자료라서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굉장히 염려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되기도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무용단에 잠시 있었고, 또 오늘 얘기한 부분을 압축해서 간단히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시대적으로 왜 그런 작품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에 대해, 제 자신의 배경이랄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정식 무용학과를 들어간 12회 졸업생인데요. 거기서 현대무용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작 수업도 제대로 받았고요. 당시 현대무용 졸업생들이 컨템퍼러리 댄스라

는 작업을 한 첫 무대를 봤을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도 저런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밤을 새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무용으로서 ‘창무회’라는 작업에 참여했는데, 소위 그 시대의 창작춤이라는 것은 거의 다 신무용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 것이 저로서는 너무 새로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전통 클래식 발레이긴 하지만 왜 우리는 <백조의 호수> 같은 작품이 없을까? 안무자의 해석이나 무용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작품이 없을까? 비중 있는 작품들이 왜 지속될 수 없는가가 저에게는 의문이고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부산시립무용단이 독도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도시의 시립무용단인데, 그리고 부산시립무용단은 어떻게 보면 한국 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우리끼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 부산시립무용단이 파나마에 가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갔을 때 전통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작품으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게 부산시립무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은 부산시립무용단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학수 최은희 선생님께서 무용단 전반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토론을 듣고 있던 객석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자 두 분께서 동시대성과 로컬리티, 특수성과 보편성에 초점을 두었으니 그쪽에 맞춰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노연 제가 또 부산시립무용단에 대해서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무용단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8년간. 여기 오면서 한마디라도 하고 와야 할 텐데, 뭘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가졌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어떤 소재, 어떤 주제를 잡을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부산시립무용단이 50년이나 되었고 87회나 정기공연을 했다면, 87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아까 최은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보리피리> 같은 소재나 테마가 좋았다면, 좋았던 작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또 한 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축적된 부산만의 작품이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거기에 보태지고, 쌓여지고, 결국은 독보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60분짜리 작품만 추구할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리는 금요상설, 토요일상설 무대에서는 8분 정도의 작품을 했습니다. 사실 최승희 시대에는 3분, 4분의 작품이었잖아요. 그리고 국악 음반도 보면 다 3~4분이에요. 거기서 그냥 결정이 되거든요. 처음의 3~4분은 도입부에 지나지 않는 건데, 거기서 전체 결론적인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8분짜리의 임팩트 있는 작품이 필요한 게 아닌지, 너무 60분, 120분처럼 길게 하다 보니 완성도가 낮아지고, 대중의 관심과 집중을 잃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8분 정도의 임팩트 있는 작품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것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배학수 이노연 선생님 역시 부산시립무용단의 안무가를 오래 역임하셨기 때문에 부산시립무용단의 발전 방안에 대해 좋은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첫째 리메이크, 옛날 작품을 리메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 아마 지금 시립무용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기를 끌었거나 아주 의미가 깊었던 작품들을 다른 안무자들이 리메이크하는 작업은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시간을 단축시킨 작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철학의 글도 자꾸 좀 짧아지고 있는데, 두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재철 오늘 50주년 뜻깊은 날, 제가 1989년부터 인연을 맺고, 쪽 지켜본 사람으로서 토론회를 지켜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모두 11분의 예술감독들이 시립무용단을 쪽 곁에서 지켜 왔습니다. 그분들은 취임하고 퇴임할 때까지 끝없는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나면 다음날 신문에 실리는 기사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지냈던 게 언 50년이 흐르지 않았나봅니다. 이제 또 50년이 지나면 100년, 1세기를 맞습니다. 50년이 지난 그 날 우리는 또다시 다듬체에 모여서 부산시립무용단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고생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최고 화두는 AI와 ChatGPT라고 합니다. 이미 문학 작품들은 명령에 대해 어떤 답이 내려지는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예술감독을 맡고 계시는 이정운 선생님은 ChatGPT에 무용이란 과제를 넣었을 때, 과연 어떤 답을 내릴까, 그것도 이 시대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상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부산시립무용단 100년을 향한 힘찬 정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학수 선생님, 축하의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고요. 지금 예술 감독님께도 현 시대성을 반영한 작품구상 제안과 방향성의 반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준비해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토론자 선생님들, 참석자들, 그리고 이것을 준비 해주신 예술단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일요화가,

루소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최근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 같다. 예전엔 지금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견디며 열심히 살다보면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요즘엔 '소확행'이라는 말처럼 일상의 순간 속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 같다.

영화로 치자면, 2007년 개봉한 <행복을 찾아서>에서 윌 스미스가 연기한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집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린 아들과 거리를 전전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증권사에서 큰 성공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찢어질 듯 슬픈 일, 고된 일도 많이 겪지만 꺾이지 않고 끝내는 성공한다. 반면 일본영화를 리메이크하여 2018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주인공 혜원(김태리 분)이 고향집에서 지내면서 소박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밥을 만들어 먹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복을 찾는 영화다.

시대적 배경도 인물의 상황도 다르지만, 두 영화 모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 <행복을 찾아서>에서는 성공이 곧 행복이며,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도 행복

은 언제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개인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고 확실히 답하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사람마다 원하고 만족하는 행복의 색과 크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이렇듯 작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 하는 분위기이며, 그런 점에서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학생이 하는 공부나 생존을 위한 직업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일등이 되어야 하거나 최고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렇지만 취미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어느 시점까지 어떤 점수를 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를 통해 돈을 벌 필요도 없다. 물론 부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거나 금전적 이득이 온다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취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취미는 그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그 자체로서 만족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생업과 다르게 즐거워서 하게 되는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한다.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바느질, 도자기 굽기, 미니어처 만들기 등 무언가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축구, 야구, 골프 등 다양한 운동 역시 대표적인 취미일 것이다. 이 외에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즐거워서 하게 되는 모든 것이 취미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 그림 그리기 역시 인기있는 취미생활로, 수년간 재밌게 그림을 그리다가 직업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다가 은퇴한 후 전업화가가 된 프랑스의 작가 앙리 루소(Henri Rousseau, 1844-1910)도 이에 해당한다.

세관원이라 불린 화가

앙리 루소는 파리에서 세관원으로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루소는 세관원을 의미하는 '두아니에(Le Douanier)'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렇듯 홀로 그림을 그렸기에 오히려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는 투박하면서도



1
 루소, <생 루이 섬에 있는 자화상>, 1890년, 캔버스에 유채, 113×146cm, 체코, 프라하 내셔널갤러리 소장



2
 루소, <부인을 그리고 있는 화가>, 1900-1905년, 캔버스에 유채, 65×56.5cm, 개인 소장

개성 넘치는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주중이 아닌 쉬는 날에 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취미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마추어로서 적지 않은 시간동안 그림을 그렸다. 그래도 꾸준히 그린 탓에 1884년에는 루브르 미술관에서 그림을 모사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기도 하고, 전시에도 참여하면서 파리의 예술가들과도 조금씩 교류하면서 예술적 폭을 넓혀갔다. 그러면서 점차 화가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1890년에 그린 자화상^[도판 1]을 보면 파리를 뒷배경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파리의 에펠탑보다 더 크게 그리면서, 자신을 설명해주는 요소들로 파리의 모습을 담으면서도 화가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비록 정규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주류 미술계에 속하지는 못했어도, 루소는 화가로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루소는 초상화의 중심이 되는 인물과 관련한 요소들을 배경에 풍경으로 그리는 소위 ‘풍경초상화’라는 것을 자신이 창안했다고 생각했다. 비록 이 방식은 꽤 오래전부터 서양에서 그려온 방식이긴 했지만, 사실적이거나 과학적인 원근법이 드러나진 않지만, 루소 특유의 거친듯한 형태와 구성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자화상에 루소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첫째 부인 크레망소와 당시 교재 중이던 조세핀누의 이름을 파렛트에 적으면서, 개인적인 사랑을 표기하기도 했다. 루소는 예술을 사랑했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이에게도 충실했다. 그림에도 두 번째 부인이 된 조세핀누 역시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한 그리움을 자신과 부인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다.^[도판 2]

루소는 현실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쉬는 날의 여유움을 파리의 공원과 근교를 그리면서 표현했다. 그래서 그를 도시의 편안함을 표현하는 ‘일요화가’라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49세에 은퇴를 하고 전업작가가 되었다. 루소는 당시 파리 아카데미에서 가장 높은 평가



를 받던 제롬(Jean-Léon Gérôme)처럼 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제롬을 비롯한 아카데미 화가들은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렸던 것에 반해, 루소의 그림은 다소 투박하고 왜곡된 형태와 원근을 가지고 있다. 그림에도 루소의 어린아이와도 같은 표현은 ‘나이프 아트(naive art)’로 칭해지며 피카소(Pablo Picasso)를 비롯한 혁신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프랑스식 정원 특유의 정렬된 높다란 나무들 사이로 파리지앵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파리의 생 클루 공원^[도판 3]이나 씨떼 섬 등 도시의 평온한 풍경을 그렸다. 이렇듯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그리던 루소는 점차 더 이상적인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럽엔 이국적인 물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관련한 상품과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문학, 음악뿐 아니라 미술에서도 이국적인 소재를 담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비록 루소는 유럽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공원에서 본 사자의 조각상이나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나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었다. 사막 한가운데서 짐시가 사자와 함께 자고 있다거나^[도판 4] 정글에 사는 뱀을 부리는 주술사의 모습^[도판 5]은 지구상 어딘가 있을 법한 이국적인 모습이다. 이렇듯 어떠한 문명의



- 3 루소, <생 클루 공원의 가로수길>, 1908년, 캔버스에 유채, 38.7×46.7cm,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슈테델 미술관 소장
- 4 루소, <잠자는 짐사>, 캔버스에 유채, 1897년, 130×201cm, 미국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
- 5 루소, <뱀을 부리는 주술사>, 1907년, 캔버스에 유채, 189×169cm,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 6 루소, <꿈>, 1910년, 캔버스에 유채, 298.5×204.5cm, 미국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

때도 묻지 않은 순수한 장소를 그리면서 루소는 마치 꿈과 같은 이상으로 보았을지 모른다. 동물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이기주의에 대한 다툼과 전쟁도 없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어쩌면 루소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림을 통해 이상향을 꿈꿨을 지도 모르겠다.^[도판 6]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취미로 그리던 그림이 직업이 되었다는 점에서, 루소는 요셋말로 ‘덕업일치’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더 없이 행복했을 수도 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보다 뭔가 특이하고 기행을 일삼을 것 같지만, 루소와 같이 현실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도 자신만의 행복한 예술을 하는 작가도 적지 않다. 물론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내거나 평생 그림만을 그린 사람보다는 다소 늦게 데뷔를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기대했던 가능성 만큼이나 훌륭한 화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어쩌면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 행복하다는 것을 찾아, 즐겁게 해낸 결과일 지도 모른다. 소확행과 성공이라는 두가지 행복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쯤 해보면 어떨까 한다. 아직 없다면 찾아볼 수도 있고, 하고 있다면 그저 쉬는 날 조금씩 행복한 만큼 해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루소가 이상향을 찾은 것처럼, 자신도 몰랐던 멋진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혁신적인 디자인 룩셈부르크 필하모니아

PHILHARMONIE LUXEMBOURG

글, 사진_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룩셈부르크 필하모니아로 잘 알려진 이 콘서트홀의 공식적인 이름은 조제핀 샤를로트 대공비(Grande-Duchesse Joséphine-Charlotte) 콘서트홀이다. 프랑스어는 Salle de Concerts grande-duchesse Joséphine-Charlotte, 독일어는 Konzertsaal Großherzogin Joséphine-Charlotte이며, 룩셈부르크 시내 유로피안 디스트릭트에 위치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어, 불어 그리고 독어, 3개 언어가 공식언어로 되어있다.

조제핀 샤를로트(Joséphine-Charlotte)는 룩셈부르크 대공비의 이름으로 현 앙리 알베르 가브리엘 펠리스 마리 기욤(Henri, Groussherzog vu Lëtzebuerg) 대공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2005년에 개관했으며, 연간 400회 이상의 공연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1995년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는데 그 해 룩셈부르크 당국은 컨퍼런스와 콘서트홀이 동시에 가능한 건축물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1997년 모로코 출신의 프리츠커 수상자이기도 한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르장파르크(Christian de Portzamparc)의 프로젝트는 룩셈부르크 공공 건물 관리국이 시작한 국제 건축 공모전에서 선정되었고, 새로운 콘서트 홀의 건축 공사는 2002년 봄부터 2005년 여름 사이 3년 동안 진행되었다. 같은 해 6월 26일, 룩셈부르크 필하모니아가 처음으로 개관했다. 이날 룩셈부르크의 다양한 단체에서 온 222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작곡가 레날드 데페(Renald Deppe)의 사운드 설치물 제작에 참여했다. 이를 시작으로 8일 간의 개막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 기간 동안 750명의 음악가가 15,000명이 넘는 방문객 앞에서 공연을 펼쳤다.

1 룩셈부르크 필하모니아

메인 행사로 조제핀 샤를로트 대공비 콘서트홀에서 앙리 대공 및 룩셈부르크 내각과 각국 사절단의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막식을 열었다. 당시 룩셈부르크는 유럽 연합 이사회의 의장국이기도 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를 위해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의뢰로 작곡된 현대 작곡가 펜데레츠키의 새 교향곡 8번을 이날 무대에서 세계 초연했다.

건축과 음향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르장파르크의 초기 아이디어는 자연스러운 필터를 통해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흰색 강철로 만들어진 823개의 정면 기둥이 3~4줄로 배열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내부 기둥에는 기술적인 패시리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 기둥은 외벽 창문을 지지하고, 세 번째 기둥은 하중을 담당하고 있다. 기둥 필터와 중앙 핵 사이에 광대한

주변 스타일이 로비를 구성하여 대강당을 둘러싸고 있는데 경사로, 계단 및 보도는 콘서트홀로 연결되어 콘서트홀을 둘러싸고 있는 메인 공간과 연결된다. 내부에는 약 300석 규모의 챔버홀(Salle de Musique de Chambre)이 함께 있다. 매표소 및 지하 주차장으로의 접근은 콘서트홀 본관 내부에 있지 않지만 기둥 필터에 기대어 있는 두 개의 알루미늄으로 덮힌 외피 내에 위치해 있다.

Espace Découverte (Discovery Space)

필하모니아 지하에 위치한 Espace Découverte(Discovery Space)는 첨단 기술 장비와 뛰어난 다양성을 자랑하는 소극장 공간이다. 최대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동식 벽 덕분에 음향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실험적이고 전자적인 음악, 영화, 예술, 비디오 분야의 프로젝트, 워크숍,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많은 콘서트와 공연을 위해 사용된다.



2 객석에서 바라본 무대와 파이프오르간 3 무대와 객석

3개 홀의 음향 디자인은 AVEL Acoustique [Jean-Paul Lamoureux et Jérôme Falala] 아쿠스틱과 함께 중국 국적의 음향학자 앨버트 야잉 슈(Albert Yaying Xu)의 작품이다. 'Shoe Box', 신발 상자라는 컨셉으로 디자인된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약 2만 루베(m³)의 규모와 최대 1,500명의 좌석을 가지고 있다. 직사각형 평면의 제약을 극복하고 음향을 최적화하기 위해 8개의 상자 타워가 부스 주변에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균일한 사운드 분배를 하고 있다. 잔향시간은 콘서트홀로는 최적인 1.5~2초를 유지하고 있다. 무대 커튼의 유연성과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조절 가능한 음향 반사판의 설치 덕분에 음향은 다양한 음악적 요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가변형 무대이다. 21개의 수정 가능한 플랫폼을 갖춘 무대의 기술적 설계를 통해 콘서트 구성에 따라 다양한 무대 변형과 잔향을 조정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3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네덜란드와도 불과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에 서유럽을 여행하다보면 이 작은 나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이다. 덕분에 인구 60만에 불과한 이 나라, 그리고 인구 8만이 조금 넘는 국가명과 동명인 이 나라의 수도 룩셈부르크(뤼상부르)는 자주 걸음했다. 그러다 한 날은 이 도시의 공연장을 검색하다가 백색의 아주 유니크 한 외형을 띤 건축물인 룩셈부르크 필하모니아를 알게 되었는데, 심지어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르장파르크가 디자인 했다고 한다.

언제나 다른 국가를 지나는 중에 룩셈부르크를 방문했기에 공연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는데 코로나19가 끝날 무렵인 2022년 봄, 작정하고 필하모니아에서 열리는 공연 날짜에 맞추어 이곳을 방문했다. 게다가 그 공연이 직전에 열렸던 2021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중국계 캐나다인 브루스 리우가 협연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였다. 잘 알다시피 2015년 제17회 우승자는 대한민국의 조



4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

성진이고, 5년에 한번 개최되는 쇼팽콩쿠르가 코로나19 때문에 6년만에 개최되었고, 처음으로 캐나다인이 우승했다. 공연만큼이나 이 건축물에도 관심이 있어 수백 개의 백색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니아의 내부가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궁금증을 풀수 있었다. 마치 오페라 극장의 박스석 같은 형태의 객석이 직사각형 평면의 무대 양쪽에 배치가 된 것이 재미있었는데, 음향학적인 고려가 된 장치라고 해서 더욱 인상적이었다. 공연 시작 전 룩셈부르크 국가가 울려 퍼졌는데, 현 앙리 대공이 직접 로열 패밀리와 함께 등장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서유럽의 콘서트홀 중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작품이라 건축적으로도 음향적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대부분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도시의 공연장들과 다르게 2,000년대 이후 완공된 콘서트 홀은 설계 공모를 통해 스타 건축가들이 디자인 한 공통점을 지녔기에 그 디자인 또한 유니크 한 공통점이 있다.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 한 루체른의 KKL과 필하모니아 드 파리, 건축가 헤어초크 드 뫼롱이 디자인 한 함부르크 필하모니 등이 대표적이다. 적어도 21세기에 지어지는 문화 공간은 그 음향학적 기능과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디자인까지도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일치하는 대목이다.

한국 공연계도 이제 '블랙페이스' 없다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뮤지컬 <멤피스> © 쇼노트

방학과 휴가철을 긴 여름은 겨울과 함께 뮤지컬계 양대 성수기다. 지난 여름 다수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극장은 <오페라의 유령>, <모차르트> 등 유명 레퍼토리의 재공연으로 채워졌다.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가운데 신작은 <멤피스>(7월 10일~10월 22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가 유일했다.

뮤지컬 <멤피스>는 1950년대 흑백분리 정책이 유지되던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를 배경으로 흑인 음악을 사랑하는 백인 DJ 휴이와 클럽에서 노래하는 흑인 여가수 펠리샤의 꿈과 사랑을 그렸다. 조 디피에트로가 대본·작사, 데이비드 브라이언이 작곡·작사를 맡은 이 작품은 당시만 해도 흑인 음악으로 여겨지던 로큰롤을 세상에 알린 전설적인 DJ 듀이 필립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처음 알린 인물이 바로 필립스다.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인종차별인 흑백분리를 용인했다. 그러다가 1950년대 흑백분리에 저항하는 민권운동이 일어나면서 1964년 흑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1965년 흑인 투표권을 보

장하는 투표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멤피스>는 바로 민권운동이 일어날 즈음의 시대에 음악으로 흑백 통합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2009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이듬해 토니상에서도 작품상·대본상·음악상·편곡상 등 4개를 받았다.

<멤피스>의 한국 프로덕션은 휴이 역의 박강현고은성·이창섭, 펠리샤 역의 정선아·유리아·손승연 등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배우들 덕분에 공연 내내 귀가 즐겁다. 그런데, 화려한 출연진보다 이 작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블랙페이스(blackface)'를 배제했다는 점이다. 뮤지컬 <멤피스> 한국 프로덕션의 배우들은 흑백 인종과 상관없이 기존의 피부색을 유지한다. 다만 백인 역 배우는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깔을 밝게 해서 백인의 정체성을 좀 더 드러냈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이 아닌 인종이 흑인 흉내를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무대 분장을 말한다. 미국에 노예제가 존재하던 19세기, 백인 배우가 흑인 분장을 한 채 흑인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던 민스트럴쇼에서 유래한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확산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흑인 인권운동 등장 이후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인종적 다양성이 적거나 흑인 노예제의 역사가 없는 국가에서는 블랙페이스를 인종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2020년 8월 의정부고의 관짝소년단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학생들의 블랙페이스를 비판했다가 집단 공격을 받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 이후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감수성이 높은 한국 공연계는 블랙페이스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2021년 4월 국립발레단이 <라바아데르>를 공연하면서 흑인 노예 장면



1900년 코미디언 William H. West의 민스트럴쇼 포스터
© 위키미디어 커먼스



ABT 흑인 수석 발레리나의 트윗
- 볼쇼이 발레단의 <라바야데르> 중 흑인 노예

서 블랙페이스를 없앤 것은 대표적이다.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무녀 니키야와 전사 솔로르의 슬픈 사랑을 그린 <라바야데르>는 1877년 제정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노예제나 인종차별주의가 받아들여지던 시대라 블랙페이스가 작품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용수가 굳이 흑인 분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술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잘못을 굳이 현재에 재현하는 의

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발레계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 최초의 흑인 수석 발레리나 미스티 코플랜드가 볼쇼이 발레단의 <라바야데르> 속 흑인 분장에 대해 인종 차별이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볼쇼이 발레단 간판스타인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흑인 무용수가 없는 우리 발레단에서 흑인 분장을 하는 것은 정상”이라며 맞선 것이다. 볼쇼이 발레단 역시 계속해서 흑인 분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사이 자존심 싸움까지 확대된 블랙페이스 논란을 계기로 이후 파리오페라발레를 비롯해 각국 발레단에서 블랙페이스를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국립발레단도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연극계에서도 2021년 6월 국립극단의 <스웨트>가 블랙페이스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미국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스웨트>에서 인종 문제는 일자리와 함께 양대 주제다. 즉, <라바야데르>와 달리 <스웨트>는 인종에 따른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극의 전개에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연출가 안경모는 극중 인물이 인종에 따른 멸시를 드러내거나 자기모멸을 경험하는 순간 낙인찍듯 피부색을 드러냄으로써 블랙페이스 논란을 피해갔다. 사실 샘 오취리와 의정부고의 블랙페이스 논란이 나오기까지 한국 공연계에서 흑인 역은 흑갈색 톤으로 분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 미국 흑백차별 문제를 뚝뚝한 10대 백인 소녀가 TV쇼로 타파한다는 내용의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한국 버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내에선 2007년, 2009년, 2012년 세 차례 공연에서 흑인 배역 배우들은 짙은 갈색조의 피부색으로 등장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 블랙페이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만큼 원작에 나온 인종대로 표현함으로써 관객의 이해를 도운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방송과 공연 등에서 블랙페이스를 해왔다. 예를 들어 뮤지컬 <멤피스> 일본 버전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공연됐는데, 블랙페이스가 매우 두드러진다. 그러다가 2017년 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이 웃음을 위해 블랙페이스를 했다가 해외 언론에 나오는 등 비난이 잇따르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제작사 도호는 2019년 <헤어스프레이> 일본 버전 초연(2020)을 앞두고 블랙페이스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시 <헤어스프레이> 원작자인 작곡가 마크 샤이먼, 대본작가 마크 오도널-토마스 미한, 작사가 스콧 위트먼은 도호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커뮤니티가 ‘헤어스프레이’ 대본대로 캐스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지만 블랙페이스(설령 악의 없이 조심스럽게 행해지더라도)는 허락할 수 없다. 블랙페이스는 우리 작품이 반대하는 미국 인종에 얽힌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뮤지컬 <멤피스> 개막 이후 국내 제작사 쇼노트는 관객 반응을 체크한 결과 블랙페이스 배제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관객이 이제는 인종차별에 분노하고 문화적 포용성을 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u

공간과 콘텐츠와 사람이
있다

어반브릿지

박나무 자유기고가

부산을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 했던가?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매년 2만여 명이 떠나는 도시로 전국의 7개 광역시 중 15~39세 인구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가장 높다. 청년들이 부산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일까? 부산은 청년들이 머무르기에 부적합한 도시일까? 39세는 넘었고 65세에는 이르지 못한 나는 이 곳 부산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또 밥벌이를 하고 있다. 태어난 고향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길 수 있었겠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큰 복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 미래가 있겠나 싶어 서글퍼진다. 조울의 조짐이다.

부산은 과연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도시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여럿 젊은이들이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만난 동래구의 '어반브릿지'는 그 공간이 주는 상징성이라든지 펼쳐내고 있는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전국에서 빈 집이 가장 많다는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지혜를 빌어 공론화하는 곳,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을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 A부터 Z까지 조목조목 짚어주는 곳, 공유오피스





를 열어 홀로 혹은 힘을 합쳐 새로운 영역의 사업에 부딪혀 나가도록 돕는 곳... 어반브릿지는 그렇게 공간과 콘텐츠와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어반브릿지 2층은 평소에는 차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이지만, 어느 날은 치열한 토론회가 진행중이고, 또 어떤 날은 평화로운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작가와 만나는 소담한 공간이다가,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하다. 분임토론을 열어도 좋을만한 공간이 곳곳에 있을만큼 널찍하다. 처음에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신하도록 만든 것. 여기에 가거든 책 한 권 들고 발코니에 나가서 긴 의자에 앉아보기를 권한다. 이어져 있지만 딴 세상인 것 같은 곳에서 잠시 오수를 즐겨도 좋겠고, 햇빛으로 마음껏 샤워를 해도 좋으리라. 공간을 조성한 지 2년 남짓이고 그간은 또 코로나19 와중이어서 그런지 많은 공간과 집기들이 깔끔하다. 시간만 있다면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이다. 5층에는 공유숙박

공간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 친지가 오거들랑 함께 묵어보는 것도 좋겠다. 호텔이나 모텔이 아닌 곳에서 부산을 맛 보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길게 머물며 3층의 공유오피스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공간 전체가 깨끗하고 편의성 면에서도 나무랄데가 없다.

“부산의 원형이었던 우리 동래가 지금은 쇠락하는 원도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빈 집과 빈 점포가 많아지는게 안타깝지만 새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동래토박이 이광국 대표가 그리는 동래의 모습은 어떤 곳일까? “뉴욕의 브루클린과 서울의 성수동을 늘 떠올리고 있다. 쇠락한 곳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해 다시 일어난 도시인만큼 우리 동래, 나아가 부산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 함께 할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한 물음표를 갖고 있는 젊은이라면 어반브릿지를 아지트 삼아보면 어떨까 싶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반 발 정도 앞서가는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 대표라도 붙잡고 늘어지면 뭐라도 가르쳐주지 싶은데, 용기는 필요하겠지.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못생긴 돌이 강을 지킨다는 말은 인구소멸의 시대에 유효할까? 굵은 나무도 못생긴 돌도 고향에서 버티기가 힘들다. 앉아서 굶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돈을 벌어야 문화도 소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에 사람이 몰리고, 그 곳의 공연과 전시에는 줄이 길다. 도시를 재생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키울 일자리를 갖는 것은 단기간의 처방으로 될 일도 아니고, 어떤 개인들의 반짝거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긴 호흡을 갖고 똑심으로 밀어야 될까 말까 한데, 당락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아직 갈 길이 멀다. 굶었거나 못생겼더라도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놀면서 꿈을 키우고 삶을 향유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유난히 물음표가 많은 시절에 어반브릿지와 그 동지들이 좀 더 분투해주길 바란다.

문의 어반브릿지 051-710-8488, urbanbridge.or.kr



바이올린 임누리



소프라노 오신영

MODERN AFTERNOON

모던 에프터눈

2023. 10. 21(토) 17: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첼로 이호찬



피아니스트 김소영



|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 할인 | 50% 장애인 중증 : 동반 1인, 장애인 경증 : 본인만,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상자(1급~2급) : 동반 1인, 의상자(3급 이하) : 본인만, 유족중(국가유공자, 의사자) : 본인만
30% 단체회원 : 15인 이상 20% 정기회원 할인, 학생 할인, 경로우대 할인, 가족친화적기업인증 할인, 다자녀가정 할인, 예술인패스 할인, 방과후행복카드 할인

| 주관 | 부산문화회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티켓 | 전석 2만원

| 입장연령 | 초등학교 이상

INVITATION TO THE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E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 2774- 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E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마리 퀴리**



◆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마리 퀴리의 삶을 소재로 한 한국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가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8년 12월 트리아아웃 공연(정식 공연 전 시범 공연)을 거쳐 2020년 2월 초연된 뮤지컬 '마리 퀴리'는 탄탄한 서사와 아름다운 음악,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관객 평점 9.8(10점 만점/인터파크), 공연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관객의 큰 사랑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오른 재연은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 프로듀서상, 극본상, 작곡상, 연출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마리 퀴리'는 마리 퀴리의 고향인 폴란드 바르샤바의 키노테카 극장에서 2021년 11월 공연실황 상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이듬해인 2022년 7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어 현지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특히 '마리 퀴리'는 당시 페스티벌 예술감독인 우카슈 스트루신스키로부터 '마리 퀴리로 뮤지컬을 만드는 것, 우리들은 불가능이라 생각했다. 한국은 해냈다, 훌륭하게'라는 호평과 함께 그랑프리인 '황금물뿌리개상'을 수상하며 한국-폴란드 문화 외교의 정점을 찍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의 우수 뮤지컬을 해외에

소개하는 'K뮤지컬 로드쇼'를 통해 2019년 중국 상해, 2022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각각 쇼케이스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3월과 4월에는 일본 도쿄 텐노즈 은하극장, 오사카 우메다 예술극장에서 일본 라이선스 공연이 펼쳐져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3년만에 다시 돌아온 뮤지컬 '마리 퀴리'는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일대기에 상상력을 더한 픽션 뮤지컬로, 여성 이민자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최초로 노벨상을 2회 수상한 마리 퀴리의 삶을 담고 있다. 특히 자신의 연구가 초래한 비극적인 진실을 목도한 후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마리 퀴리와 라듐의 유해성을 파고드는 안느 코발스키와의 연대를 통해 묵직한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인 '마리 퀴리'는 뮤지컬 '벤허', '사의찬미', '젠틀맨스 가이드'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인상 깊고 섬세한 내면 연기를 선보인 이정화가 맡았으며, 뮤지컬 '팬레터', '웨스턴 스토리', '어쩌면 해피엔딩'에 출연하여 어느 역이던 자신만의 색깔로 연기하는 강혜인과 2020년 뮤지컬 '광주'로 데뷔한 후 '라흐레스트', '베토벤', '벤허'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최지혜가 '안느 코발스키'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일 시 10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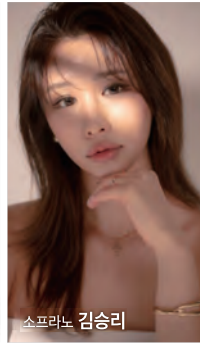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Ⅲ 라 트라비아타



미술해설가 이주현



오페라해설가 손지현



소프라노 김승리



테너 김성호



피아노 이소영

◆ **오페라와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마지막 무대가 10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시리즈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는 미술평론가이자 아트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현과 아나운서 손지현이 진행하는, 오페라와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로, 종합무대예술이라 할 수 있는 오페라를 그림과 함께 친절한 해설로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관객들을 미술관으로 안내할 이주현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문화부 미술 담당 기자, 미술 잡지 편집장을 거쳐 학교재 갤러리와 서울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이주현은 미술평론가이자 미술 이야기꾼으로 활동하며 미술을 통해 삶과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좀 더 쉽고 폭넓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도 꾸준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다. 오페라 해설가로 무대에 서는 아나운서 손지현은 부산MBC 공채 아나운서로, 클래식FM 가정음악실, TV프로그램 부산부산문화 등을 진행하바 있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세 번째 무대이자 시리즈를 마감하는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당시 파리의 고급 매춘부(코티잔)였던 마리 뒤플레시스를 모델로 쓴 뒤마의 소설 ‘동백꽃 아가씨’를 원작으로, 젊은 부르주아 청년 알프레도를 사랑한 화류계 여성 비올레타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경남오페라단 음악감독이자 아토오페라 앙상블 예술감독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소영, 독일 Master of Arts an der Hochschule für Musik Nürnberg 석사과정 재학하며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김승리, 해외 콩쿠르에서 다수 수상하고 현재 독일 오페 도르트문트 극장 전속 테너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성호가 출연, 서곡을 비롯하여 ‘축배의 노래’, ‘아, 그이인가’, ‘나의 불타오르는 마음’, ‘파리를 떠나서...영원한 이별이여’ 등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코티잔을 그린 부세의 ‘블로드 오달리스트’를 비롯하여 사랑이 꽃피어나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그린 프라고나르의 ‘그네’ 등 사랑의 드라마틱한 전개과정을 그린작품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림트의 ‘키스’, 아예츠의 ‘일 바초’ 등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 시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 시리즈 IV 현대합창의 밤



지휘 이기선

◆ 국내에서는 쉽게 연주되지 않는 현대합창곡을 소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무대 ‘현대합창의 밤’이 10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깊이있는 음악,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지휘자’로 알려진 이기선 지휘자가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선보여온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시리즈 네 번째 무대로, 그동안 세 차례의 공연을 통해 합창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예술감독 이기선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차별화된 선곡으로 1부 외국 현대 합창음악(미국, 아프리카)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 현대 합창음악으로 꾸며진다. 이날 소개되는 12곡 중 10곡의 작품이 초연 혹은 한국초연되는 곡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현재 활동중인 실력파 작곡가들의 신규 작품을 연주함으로써 작곡가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규모 합창곡이 아닌 고도의 균형과 집중력을 요하는 소규모 합창곡으로 부산시립합창단만의 깊고 넓은 음악적 울림을 만날 수 있다.

1부 외국 현대 합창음악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무대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 북유럽 스타일의 화성과 선율을 특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라트비아의 작곡가 에릭 에센발츠의 ‘The New Moon’, ‘In Paradisum’에 이어 현대 아프리카 민속음악인 ‘Sisi Ni Moja(Jacob Narverud 곡)’, ‘Heartbeat(Kyle Pederson 곡)’, ‘A Chain Is Broken(Dominick Diorio 곡)’, ‘The World Will See(Kyle Pederson 곡)’을 들려준다. ‘Sisi Ni Moja’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초연곡으로,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시명운, 비올리스트 이윤화, 첼리스트 최지현, 퍼쿠션리스트 배지훈이 함께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2부에서는 작곡가 손정훈의 ‘Talk Talk’, ‘비 오는 날 전(초연)’, 박선영의 ‘Dear. My Mother(초연)’, 김예은의 ‘이별노래(초연)’, 이진실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초연)’, ‘얼씨구 타령(초연)’을 들려준다. 특히 동학농민군의 아내들이 전사한 남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울부짖으며 불렀던 애도가 ‘새야새야 파랑새야’와 부산시립합창단의 위촉에 의해 작곡된 ‘얼씨구 타령’은 한국 초연곡이다. 지난해 작곡된 ‘얼씨구 타령’은 한국 고유의 감탄사가 가지는 고유한 소리의 맛을 살려 내는데 중점을 둔 작품으로, 이번 한국 초연을 위해 무반주 곡에 피아노 반주를 입히고 곡을 수정하여 좀 더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시켰다.

일 시 10월 20일 금요일·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김옥련발레단



허경미무용단



Dance Project EGERO(에게로)

◆ 부산지역 공연예술에 활기를 불어넣을 특별한 무대,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가 11월 2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처음 기획한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부산지역 예술인과 발을 맞춰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제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지역 예술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산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최종 3개 작품을 선정했다. 특히 장르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역 예술단체의 무용공연으로 장르를 한정시키는 반면, 청년 예술인 및 기성예술단체, 그리고 신작 및 재연작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 무용계의 참여 폭을 넓혔다.

그 첫 무대로 11월 2일, 1995년 창단된 후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김옥련발레단이 관객과 만난다. 김옥련발레단은 21세기 발레 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창작활동 외에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미래관객 개발, 소외지역 찾아가는 발레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창작발레 '분홍신 그 남자 2030'은 발레에 극적 스토리를 더하고 다른 장르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지난 2008년 초연된 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온 작품이다.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간 실존에 관해 고민하는 허경미무용단-무무의 창작춤 '길을 잃다'는 11월 5일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19년 12월 초연 이후 3년 만에 다시 관객과 만나는 '길을 잃다'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무대에 반복적으로 새겨지고 지워지는 좌표들을 통해 진정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의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춤을 기반으로 한 창작춤을 주된 작업으로 하는 허경미무용단-무무는 최근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춤 공연의 정형성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극장공간을 벗어난 다양한 춤 공연 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 무대인 Dance Project EGERO(에게로)의 '수루구지'는 11월 10일 시민들과 만난다. '수루구지'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무용극으로 무용, 판소리, 전통연희, 그림동화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2014년 창단한 Dance Project EGERO(에게로)는 코믹, 위트, 유머를 중시하는 현대무용단체로, 협업과 실험적 도전을 즐기며 극장과 거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넓은 스펙트럼을 추구하고 있다.

일 시 11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5일 일요일 오후 5:00, 10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 올해의 예술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10월 무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풍성한 가을걷이만큼이나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10월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23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지난 봄에 이어 시민들과 뜻깊은 만남을 가진다. 독창적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강렬한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본인만의 확고한 음악적 신념을 지닌 구도자적 행보의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23일 제598회 정기연주회에서 브람스가 남긴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제2번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던 손민수는 이번 무대에서 협주곡 제1번으로 브람스만의 우수에 젖은 선율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게 해준다.



제604회 정기연주회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일시 _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_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 태어났다”

-보스톤 글로브

“사려 깊은 상상력과 시적인 연주”

-뉴욕 타임스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하는 제 604회 정기연주회는 특유의 우수와 고독에 찬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와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며 104곡이나 되는 교향곡을 남겼던 하이든의 작품세계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올해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작곡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하는 ‘6 Last Works’ 무대로, ‘런던교향곡’이라 불리는 하이든 마지막 교향곡 제104번을 들려준다.

1부에서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그가 완성한 최초의 관현악곡으로, 연주시간만 약 50분에 달하는 음악사상 가장 긴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이다. 기교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피아노와 강력하고 극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19세기 음악의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23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협연자 손민수는 캐나다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및 호넨스 프라이즈를 수상하



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부조니, 클리블랜드, 힐튼 헤드, 루빈스타인 등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수상했다. 뉴욕 카네기홀, 보스톤 심포니홀, 토론토 글렌 굴드 스튜디오, 오타와 국립 예술센터, 클리블랜드 세브란스홀 등 수많은 북미 주요 무대에 올랐으며 보스톤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캘거리 필하모닉, 퀘벡 심포니,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등 세계적 명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손민수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미국 보스톤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에서 후학을 가르칠 예정이다.

부산시향의 심포니아야

일시 _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_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기획음악회 ‘심포니아야’는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교향곡을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이번 ‘심포니아야’에서는 10월 27일 열리는 제60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하이든 ‘교향곡 제104번’을 음악칼

럼니스트 이준형의 상세한 해설로 만날 수 있다.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로 관객과 만나는 이준형은 가톨릭평화방송 FM ‘이준형의 비온드 클래식’ 진행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월간 객석, SPO(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스트라드 등에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III

일시 _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_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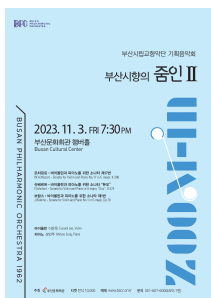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에서는 오픈 리허설을 통해 제604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다. 특히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지휘자의 육성으로 직접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전

공자 및 클래식 매니아 관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604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II

일시 _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_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향의 줌인’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무대로, 지난해 연말 첫 선을 보인 후 이번이 세 번째 무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대표하는 이은옥 부악장이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함께 무대에 선다. 이은옥은 지난 2003년 제1바이올린 수석 주자로 입단하여 지금은 부악장으로, 20년이

넘도록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음악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 성민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신춘음악회’ 협연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인 모차르트(오스트리아-고전), 슈베르트(오스트리아-낭만), 브람스(독일-낭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10월에 만나는 풍성한 문화행사

문화의 달 10월, 풍성한 가을건이만큼이나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축제형 공연예술마켓인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또한 부산 유일의 종합 예술축제 '부산예술제'에 이어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격년제로 펼쳐지는 특별한 미술축제 '부산바다미술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국제합창제',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까지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 제61회 부산예술제 10월 4일(수)-10월 29일(일)
-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0월 13일(금)-10월 16일(월)
- 바다미술제 10월 14일(토)-11월 19일(일)
- 부산국제합창제 10월 17일(화)-10월 21일(토)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 문의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745-7235, www.bpam.kr

10월 13일(금)-10월 16일(월)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이 주최하는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슬로건으로, 10월 13일부터 나흘간 부산시민회관과 일터소극장, 가온아트홀 1·2관, KT&G 상상마당 부산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공연예술상품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여 작품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무용, 음악, 연극, 마술, 코미디, 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작품 100여 편이 참가한다.



재인 강강술래를 연상시키는 건물 외관은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을 찾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주요 공연 프로그램은 BPAM 예술감독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래머가 선정한 '초이스(Choice)'와 참여·연계 공연인 '웨이브(Wave)'로 구성된다. 이종호 예술감독(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과 협력 프로그래머인 김형준(그루잡프로덕션 대표, 다원), 신은주(부산국제무용제

행사의 메인 장소인 부산시민회관은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공문예회관으로, 지난해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부산 바다와 무형문화

직위원회 운영위원장, 무용) 심문섭(예술은공유다/어댑터플레 이스 대표, 연극), 조희창(음악평론가, 음악) 등 총 5인이 22편의 '초이스' 작품을 선정했다. '초이스' 작품은 공연 전체를 선보이는 전막과 20분 내외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이는 쇼케이스 공연으

로 구분되며, 올해는 7편의 전막 공연과 15편의 쇼케이스 공연이 선보인다.

부산문화재단 연계사업으로 진행되는 '웨이브'는 특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이 대거 참여한다. 연계사업으로는 <공연장 연계 예술단체 육성지원>, <부산거리예술축제>, <부산형예술인산학협력체계구축사업-Rising Artist>, <부산문화예술지원-올해의 포커스온> 등이 있으며, 70여 편의 작품이 참가할 예정이다. 협력작품의 경우 <부산국제춤마켓(BIDAM)>과 부산연극협회의 <작지만강한연극제(작강연극제)>는 BPAM 기간과 연결하여 소개되며,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각각 우수 작품을 선정,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캐나다 시나르(CINARS) 비엔날레 및 주한퀘백정부대표부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퀘백 온 스테이지'에서는 퀘백지역 12개 예술단체의 소개 및 3개 작품의 쇼케이스를 만나볼 수 있다.

공연예술마켓인 만큼 다양한 미팅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공연유통 관련 국제세미나 및 소규모 회의가 펼쳐지는 'BPAM 토크(Talk)'를 비롯해 예술단체와 기관들의 부스 운영인 'BPAM 박스(Box)', 공연예술산업 관계자와 예술단체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BPAM 나이트(Night)', 델리게이트와 예술가의 1:1 미팅이 펼쳐지는 'BPAM 데이트(Date)', 그리고 마켓에 참여하는 공연예술산업 관계자와 예술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BPAM 파빌리온(Pavillion)'이 행사기간 운영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부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캐나다 시나르(CINARS)의 질 도레(Gilles Doré) 예술감독, 아비뇽 페스티벌의



BPAM 초이스 전막 '옥시던트 익스프레스'



BPAM 웨이브 '해너'(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공동대표 아롤드 다비드(Harold David)와 로랑 도밍고(Laurent Domingos),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총감독 쇼나(Shona) 등이 세미나에 참석하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 회원들과 국내 공연예술산업 관계자도 다수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예술의 대향연

2023년 제61회 부산예술제

10월 4일(수)-10월 29일(일)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61회 부산예술제가 10월 4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부산시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예총)가 공동주최하는 부산예술제는 지난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축제이다. 2009년부터는

해외자매(우호)도시와 함께 하는 국제 교류 행사로 발돋움하여 지역 문화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최근 3년간은 펜데믹으로 해외 예술가 초청 없이 작품으로만 교류를 가져왔다. 올해부터는 다시 일본, 중국 등 해외자매(우호)도시의 예술가들을 초청, 국제예술 문화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로 회갑을 맞은 부산예술제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난다. 2023 부산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0월 6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개막공연인 '회'에서는 부산 예술을 이끌어온 지 60주년이 되는 부산예총을 축하하며, 해외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재개되는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눈다. 부산국악협회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엔젤피스 어린이합창단, 헤이데이댄스, 소프라노 박현진, 베이스 박상진, 가수 조주한의 무대와 더불어 상하이 희극대학교 부속무용학교 등 해외자매(우호)도시의 예술인들이 펼치는 일본, 중국의 전통무용, 그리고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시범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국악협회가 마련하는 '전통음악한마당'은 10월 8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음악 예술을 통해 우리 민족의 평안을 염원하고자 마련된 무대로, 각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던 고분도리 걸립의 성주풀이를 시작으로 노동요인 구덕망개소리, 수영농철놀이, 다대포후리소리를 통해 풍년을 기원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놀이인 동래야류로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연극협회가 마련하는 '2023 제6회 작강연극제'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이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작강연극제'

는 '작지만 강하게'를 콘셉트로, 2~3인의 배우들이 소극장 무대에서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연극 페스티벌이다.

10월 13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부산음악협회가 주관하는 '2023 가곡과 아리아의 밤'이 펼쳐진다. 지휘자 박성환이 지휘하는 부산음악협회 부산청년오케스트라와 지역의 성악가들이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10월 18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부산무용협회가 주관하는 '부산무용예술제'가 펼쳐지며, 10월 21일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는 부산영화인협회 회원들이 제작한 15분 내외의 단편영화가 상영되는 '2023 부산영화제'가 개최된다. 이밖에 10월 21일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부산차문화진흥원이 준비한 '세계음다풍속' 행사가 마련되며, 중·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2023 제24회 부산실버가요제'는 10월 29일 오후 3: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예술제 기간에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전시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1년간 카메라에 담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2023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에서 열린다. 꽃향기가 가득한 꽃예술 설치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꽃예술작가협회의 '꽃예술전'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서, 부산건축가회의 '2023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 개최된다. 또, 부산과 타 지역 작가들의 작품 교류전과 초청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제10회 지역문학작품 교류전'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국내 작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자매(우호)도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

2023 부산국제합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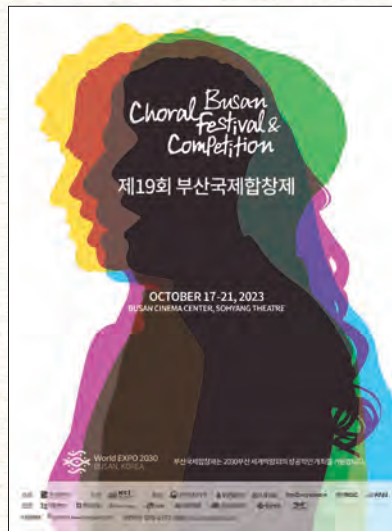
10월 17일(화)-10월 21일(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조직위원장 김충석)가 10월 17일 개막 전야공연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국제합창제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기념해 열렸던 부산 APEC 국제합창경연대회를 전신으로, 그동안 18차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합창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한국과 전 세계의 합창단이 경연을 통하여 예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워크숍과 콘서트를 통해 세계 합창 음악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등 합창 음악을 통한 국제적인 만남의 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모이기조차 쉽지 않았고 함께 노래하기는 더욱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이후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산국제합창제는 올해 국내외 5개국, 35개 팀, 1,500여 명이 참가하여 축제의 장을 펼친다.

올해 부산국제합창제는 10월 17일, 합창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문의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070-4172-0682, www.busanchoral.org



기원하며 여는 광주여협합창단과 부산 지역 7개 초청합창단의 전야대합창제 '한 마음, 한 노래'를 시작으로 영화의 전당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10월 18일 개막식에 이어 21일 폐막식 및 시상식까지 5일간 펼쳐진다. 합창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경연대회를 비롯해 합창워크숍, 찾아가는 음악회 그리고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0월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연대회는 클래식 혼성&동성, 민속/전통, 팝&아카펠라, 청소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열린다. 올해 심사위원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합창지휘자 중의 한 사람인 안톤 암스트롱을 비롯하여 대만국제합창제 예술감독인 유청 조니 쿨, 그리고 그리스 데살로니키 음악 과학 예술대학의 합창지휘과 조교수인 마리아 엠마 멜리고플루가 참석하며, 한국의 심사위원으로는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을 지낸 염진섭 교수와 25년간 안산시립합창단의 지휘자였고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박신화 교수가 함께한다.

올해 축제의 초청팀으로는 스웨덴이 자랑하는 현존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인 '더 리얼 그룹(The Real Group)'과 이스턴 챔버 싱어즈(Eastern Chamber Singers)가 합창제의 밤을 빛내준다. 10월 19일 저녁 8: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는 '더 리얼 그룹'이 부산국제합창제 초청으로 부산에서 첫 연주회를 갖는다. 1987년 스웨덴을 기반으로 결성되어 데뷔 후 지금까지 아카펠라 장르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아카펠라 그룹으로, 이름은 몰라도 이들의 대표곡인 'I Sing, You Sing'을 들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더 리얼 그룹'은 아카펠라 장르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운드로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와 쉽고 단순한 사운드와 탁월한 편곡으로 전 세계에 아카펠라의 대중화를 이끌며 '보컬음악계 혁신의 아아콘'으로 불리고 있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20일 저녁 8:00, 같은 장소에서 관객과 만나는 이스턴 챔버싱어즈는 지난 2006년, 2007년 2년 연속으로 부산국제합창제 대상을 수상했던 UE(University of East) Chorale의 당시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팀이다. 이스턴 챔버싱어즈는 탁월한 지휘자 안나 A. 피케로와 함께 전 세계 합창 페스티벌과 경연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합창단 중 하나로 인정받



더 리얼 그룹



이스턴 챔버싱어즈

고 있으며, 팝 히트곡의 멜로디와 클래식 곡의 감동적인 연주로 전 세계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입장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국제합창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오후 5시부터는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경연대회의 마지막 순서이자 부산국제합창제의 하이라이트인 그랑프리 파이널과 시상식이 펼쳐진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부산국제합창제 4개 경연부문 수상팀들이 대회 그랑프리를 두고 벌이는 가장 중요한 경연대회 속의 경연대회로, 그랑프리 파이널이 끝난 후에는 2023 부산국제합창제 창작합창공모 시상식도 함께 펼쳐진다. 올해 창작합창공모에서는 전 세계 15개국, 36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지난 2014년 창작합창공모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작곡가인 장경준이 영예의 1위를 수상했다. 1위 수상작인 'In paradisum(천국에서)'은 21일 시상식 때 초연될 예정이다.

깜빡이는 해안, 상상하는 바다

2023 바다미술제

10월 14일(토)-11월 19일(일)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미술축제 '2023 바다미술제'는 10월 14일부터 한달간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 문의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503-6111, www.busanbiennale.org

지난 1987년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후 그동안 격년제로 가져온 바다미술제는 부산의 상

징적 자연환경인 바다에서 펼쳐지는 부산만의 독특한 해양 야외 국제미술제로, 현대미술이 가진 장벽을 낮추고 대중들이 보다 친근하게 예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

그리스 출신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 전시감독이 이끄는 이번 바다미술제는 '깜빡이는 해안, 상상하는 바다(Flickering Shores, Sea Imaginaries)'를 전시 주제로 20개국 31팀 43명의 작가가 참가한다. 참여작가들은 조각, 설치, 영상, 평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안가 지역 사회의 대안적 미래를 위한 공통의 가치와 행동을 상상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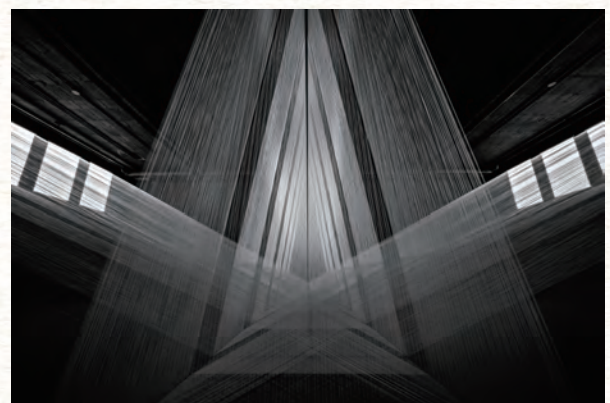
주요 작가로는 먼저 독일 베를린에 기반을 둔 양자주로, 이번 미술제에서는 거리에서 수집한 기억의 조각들인 오브제들로 도시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든다.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사우디아라비아관 작가로 참여한 무한나드 쇼노는 사우디 문화부가 주최하는 '2022 내셔널 컬처 어워즈'에서 수상한 차세대 신진 예술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관계를 정의, 매듭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작은 실들을 엮어 메아리를 만들어 낸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리 바유아지는 기성품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전통에 자신을 투영하는 설치미술 작가로, 나무뿌리와 엮인 플라스틱 로프, 인공물 위에서 자라는 산호의 모습 등을 통해 자연과 얽혀있는 인간의 삶을 반추해 본다. 부산 출신의 김덕희 작가는 진주와 비즈가 꿰어진 스테인리스 철사를 그물처럼 엮어낸다. 가로, 세로 8m에 달하는 이 작품은 지난 7월 시민들로부터 모집된 사연을 모스 부호로 변환하여 개인의 이야기들을 예술이라는 그물 안에 쌓아 재탄생시킨다.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애니메이션 작가 장승욱은 2021 디지콘6 아시아 어워드-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최고 상인 금상을 수상한 '바다 위의 별'을 선보인다. 짧고 강렬한 은유를 통해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서식지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스크리닝 프로그램 <또 다른 바다들 (Other



Seas)>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일광해수욕장의 백사장과 더불어 총 3개의 실내 공간에서 펼쳐진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일광의 명물, 찌뽕 골목에 위치한 (구) 일광교회로, 7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구)일광교회와 더불어 삼성리 마을의 할매 신당과 할배 신당 사이에 위치한 창고가 활용되고, 일광해수욕장 중앙입구에 위치한 하얀 건물들도 실험실로 운영된다.

전시와 더불어 매니페스토, 학술 심포지엄과 작가와 함께하는 퍼블릭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특히 매니페스토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하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이탈리아어로 '선언'을 의미한다. 2023바다미술제 '매니페스토'에서는 국내·외 해양 학자와 과학자, 예술가와 환경 운동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해양 공동체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공통 프레임 워크를 시작으로 선언문을 작성한다.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심포지엄 '바다의 목소리(Ocean Voices)'에서는 우리와 바다의 현재와 미래 관계, 인간 활동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등 전시기획의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밖에 퍼블릭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작가 실험실 C와 율리아 로만 & 김가영, 스튜디오 1750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과 워크숍을 운영한다.



무한나드 쇼노 작품 예상안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토스카’

◆ 서상화 국립오페라단 교육사업팀장

북항에 세워질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봄 업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부산오페라시즌’의 2023년 개막공연이 푸치니의 ‘토스카’로 부산문화회관에서 막을 열었다.

이번 ‘토스카’ 공연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제작하고 정선영의 연출로 2021년, 2023년에 대구 무대에 올려져 이미 검증된 작품으로 이번에 부산의 여러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새로이 합류하여 재탄생된 공연이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막의 성 안드레아 델라발레 성당, 2막 파르네제 궁전, 3막 성 안젤로 성은 실제 현장의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실제의 분위기만 느낄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처리하였고 무대세트들의 이동과 재배치 등을 통하여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1막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성당 제단화를 완성하려는 화가 카바라도시의 의도를 무참히 파괴하고 정치 뿐 아니라 종교까지 자기 맘대로 주무르려는 스카르피아의 흑심을 벽화 세트를 갈라서 역동적으로 돌리고 변형하는 가운데 잘 표현하였으며 갈라진 벽화 사이를 뚫고 테데움을 부르며 전진하는 합창단의 장면이 압권이었다. 2막의 스카르피아가 토스카의 손에 죽어갈 때에는 전통적인 상드리에가 아닌 스카르피아의 탐욕을 상징하는 여러 가문의 문양들이 뒤죽박죽으로 엮어진 침탈한 고물로 표현된 상드리에가 조용히 아래로 내려오며 스카르피아의 파멸을 말해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음악적인 면에서 오페라 ‘토스카’는 푸치니가 요구하는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언어의 뉘앙스에 따른 음악적 표현과 템포 변화 등 섬세하고도 유연한 표현은 물론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수 없는 지휘의 기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음악을 끌고 갈 지휘자의 긴 호흡을 요구한다. 이번 공연의 지휘를 맡은 김현수는 사고없이 대체로 무난하게 공연 전체를 이끌고 갔다고 볼 수 있다. 1막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불안한 요소들이 다소 드러났지만 2막을 지나며 점차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지휘자의 공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푸치니 오페라 특유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한방을 터트리는데 시원한 맛은 부족했으며 이 오페라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토스카’의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비롯한 몇몇 중요 음악들에서는 템포가 다소 빠르게 설정되어 극 중 인물들의 감정과 음악적 표현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어 보였다. 때로는 로맨틱하게, 때로는 긴박하고 오싹하고 박진감 넘치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팔색조와 같은 음악적 면모는 다소 부족하였다.

출연진 선정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역 출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성악가들을 함께 캐스팅하고 이들을 양일 공연



에 서로 혼합하여 배치한 것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 필자가 감상한 첫째날 공연에서 테너 신상근과 소프라노 서선영, 바리톤 안세범은 그 배역에 더할 나위없이 역할을 잘 소화해 내었다. 토스카로 분한 서선영은 확신에 찬 적극적인 연기와 특유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카바라도시의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에서는 테너 신상근의 서정미 넘치는 음악성과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절절한 감정을 탁월히 표현하여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스키퍼아를 맡은 안세범은 1막에서는 목소리와 연기 모두에서 다소 소극적인 느낌이었으나 2막에서는 조금 더 과장된 표현과 풍부한 성량으로 스키퍼아 특유의 악의 화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공연 프러덕션에 대해 잠시 언급하자면 이번 공연은 주최측인 부산문화회관이 온전히 제작한 공연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 다시 대구에서 제작된 오페라를 가져와 공동제작 형태로 올렸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검증된 작품을 다시 올려 안정감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제작중심 극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로서 자체 제작과 인력 개발 및 그를 통한 제작능력 향

상이라는 목적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부산시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오페라 제작에 필요한 예산 지원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페라 공연에 있어서 음악적 색깔이나 전통 등 그 오페라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오케스트라와 합창이라는 관점에서 부산시가 야심차게 계획한 부산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구성을 필자는 가장 관심있게 보았다. 예를 들어 비엔나국립오페라극장에서는 그 유명한 비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독일 라이프찌히오페라극장에서는 게반트하우스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아 그 오페라단 고유의 색깔과 전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국립오페라단에서조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외부에서 빌려와 공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스카' 공연에서 보여준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력은 최상은 아니었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노출되었지만 첫 술에 배 부를 수 있으랴. 연주는 하면 할수록 기량과 경험이 축적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이다. 매번 공연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외부에서 빌려와서는 음악적 전통과 노하우가 절대로 쌓일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때 부산시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꾸준히 연주 기회를 주고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페라 전문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게 했다.

음악, 문학, 미술, 무용 등 분야를 달리하는 모든 예술적 요소들이 합쳐져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오페라를 종합예술로 칭하며, 작곡가 바그너도 "오페라는 신이 인류에게 내려준 아름답고 화려한 선물, 종합예술작품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주나 유럽 유수의 도시에 있는 오페라극장의 수준과 그 도시의 문화수준이 비례한다고 여길 정도로 오페라를 차원 높은 경지의 예술로 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우연이 아니다. 소비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고 한때 문화의 불모지로 인식 되어온 부산이 오페라와 클래식을 앞세워 문화도시로 도약코자 한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무쪼록 부산시의 문화정책뿐 아니라 시민, 예술가들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끊임없는 희곡 창작의 열정

부산시립극단 스타 프로젝트-김문홍 편

◆ 허은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학교 연극과 교수

이번의 스타 프로젝트는 부산의 원로 희곡작가 김문홍 선생의 작품 3편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김문홍 선생은 부산연극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부산 작가가 쓴 창작 희곡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 주장했고 스스로 희곡 창작에 매진 해 오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 희곡작가로서, 연극계의 원로로서 보여준 끊임없는 희곡 창작의 열정과 현장과의 소통 노력은 단지 원로연극인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강성우 연출의 <안개주의보>는 희곡의 제목만으로 이미 여러 가치를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이 사회가 점점 짙어지는 안개 속에 있음을 경고한다. 선착장에 모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억압과 결핍은 그들이 유토피아로 떠나는 절박한 이유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암시하는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 선착장에 모여든다. 그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탈출을 시도하지만, 안개가 점점 짙어지면서 또 다른 고립의 상태에 빠진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비하라는 주의보가 내려진다.

이 희곡이 발표된 시점을 현재로 옮기기 위한 여러 극적 장치가 동원되면서 지금 이곳이라는 현실감을 강조하는 변화를 시도한다. 각 인물의 성격은 희곡 그대로이지만 몇몇은 직업이나 환경이 원작과 다르게 설정된다. 이 공연을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없다. 연출은 충분히 설명하고 관객은 이해했지만, 공감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명곡을 감상하고 난 후에 한 소절의 멜로디를 기억하고 흥얼거리게 되는 것 같은 공감이 없기 때문이다. 형식을 변용하면서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냈지만, 개별적인 것



을 전체로 아우르는 경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은 문학의 경향을 일러 한 사회가 형성해 내고 세련시키는 것이라 했다. 그 경향은 그 사회 구조의 모순을 '비난하고 고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사회 구조를 현상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했다. 연극은 문학보다 더 사회 참여적 성격이 강하기에 한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연극 형태가 그 사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사회에서 뿌리 박을 수 있는 연극 형태는, 이미 그 사회의 목인을 전제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장려까지 받는 것이다. 공감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형태는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다른 사회로 삼투, 확산될 가능성은 커진다.

강성우 연출의 작품들은 적어도 이제까지 내가 본 작품들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정감이 있다. 과감하거나 실험적 이기보다 조용히 흐르는 냇물 같은 작품을 만들어 왔다.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희곡이 구석구석의 세계를 정밀하게 해석하고 표현한다. 이번의 작품 역시 그러한 연출에 대한 나의 신뢰로부터 출발했지만 기대는 충족되지 못한 채 관람 내내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표현 형식의 모호함 때문이었다. 물론 지금이나 그때나 작가가 마주한 현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과거의 세계를 오늘의 세계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연출은 형식적 변용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보편성, 보편적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윤준기 연출의 <사자의 편지>는 김문홍 선생의 희곡 가운데 드물게 추리극 형식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은 연기



(왼쪽부터) 안개주의보, 사자의 편지, 목련꽃 그늘 아래서

자의 고통과 상투적 연기로 일관된 무대를 바라본다.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졌다”라는 형사반장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객석에 앉아 기다림의 인내심을 시험당한 연극이었다. 이 극 속에서의 등장인물들은 뒤엉킨 욕망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빌헬름 분트의 ‘성격(Character)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지적 반응’이라는 정의를 따른다면, 주어진 환경만 있을 뿐 극 속의 거의 모든 인물은 환경에 반응하는 인물로서의 세밀한 성격 구축은 부족했다. 의지가 있는 인간의 모습이 평면적으로만 표현되었을 뿐이다. 겉모습만 보일 뿐 내면의 인간 본성은 사라져 찾기가 쉽지 않고 불편한 무대 요소들의 뒤엉킴만 보인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희곡 속 인물의 성격이 배우에 의해 재창조되고 있지 못한 결과와 내면 연기의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각 인물의 의지나 반응의 섬세함은 없고 줄거리만 머리에 남는다. 형사 3인의 연기는 통속 영화에서나 보이는 그저 그런 연기로 일관된다. 그들은 창조된 연기를 하지 않는다. 재벌 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 내의 인물들 상호 관계의 역학성도 보이지 않는다. 혹시,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짐작만으로 만들어냈다면 공감이나 설명을 듣는 입장밖에 안 된다. 개개인이 등장인물의 캐릭터로서 부각되지 못하고 무대 위를 떠다닌다. 그들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행동의 심리적 해석을 기대했던 관객은 이 연극의 타자일 뿐이다.

상투적인 연기, 관념적 접근은 욕망의 끝을 향해 달리는 인간성의 본질, 현대인이 지닌 부정적 측면에서의 보편적 특

성이라는 작가의 서술 외에 연출이나 배우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의 추잡한 내부가 각 등장인물에 주어진 환경이며 동시에 오늘날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이라면 이에 대한 각 등장인물의 더 섬세한 반응이 표현돼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들의 몸짓, 표정은 인물들의 신경질적인 고통에 문힌다. 심리적 상태를 표현해주는 다양한 요소들은 찾기 힘들고 마치 낭독극을 마주한 듯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스타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품인 <목련꽃 그늘 아래서>(권상우 연출)는 단편 소설 같은 작품이다. 과거든 현재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다. 가족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들의 공통적인 결말은 늘 그렇듯이 화해와 용서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객은 결말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에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양상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는 극적 표현의 기법들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연출력을 필요로 한다. 조명이나 무대 장치, 음악이 긴장감을 높여주는 요소로써 큰 힘이 되어야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모두가 설명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 극 흐름을 의미 있게 도와주지는 못했다.

상황을 설명하는 딸 영란의 위치는 고정되고 반복되어 긴장감보다는 단순 설명에 그친다. 물론 목련 꽃잎으로 상징화된 영란의 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를 지배하면서 영란 어머니 삶을 강조하긴 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정제되어 있어서 가족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데 부담을 주기도 했다. 무대 일부를 분리해 밥상 혹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것은 일견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지만 그 공간의 반복적 활용은 무대의 미적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 관객은 무대 위에서 생략된 부분을 스스로 채워놓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잊은 채 필요 이상의 너무나 친절한 연극이었다.

부산문화회관

제30회 동요사랑 페스티벌
고추잠자리

일 시 | 10월 3일 화요일 오후 5:00 **중극장**
문 의 | 동요사랑회 010-3864-9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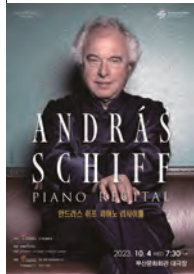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동요 보급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동요 작곡가와 작사가, 그리고 합창단 지휘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동요사랑회(회장 류지원)의 동요사랑 페스티벌.

지난 1994년 11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첫 발을 내딛은 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동요사랑회는 올해 3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모색, 다양한 이벤트와 역동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K-Culture '동요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30주년을 축하하는 신나는 동요의 향연과 더불어 30주년 기념 한국동요사랑대상 시상도 함께 펼쳐진다.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0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최대 2매에 한해 5%, 초·중고·대학생 본인만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의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첫 번째 무대. '바흐 해석의 권위자', '피아니스트들의 교과서' 등 수많은 수석어를 가진 안드라스 쉬프는 그동안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과 타건, 투명한 빛깔의 음색으로 전세계 관중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해 오고 있다. 안드라스 쉬프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곡 중에서'라고만 밝히고 자세한 연주곡목을 공개하지 않아 음악애호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피아노학회영남지부제23회 정기연주회
한국 작곡가의 작품

일 시 | 10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010-3779-9234



전국 음악대학의 피아노 전공 교수, 외래 교수, 전문 피아니스트들로 이뤄진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정기연주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는 지난 1999년 창단 이래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현재 약 200여 명의 전문 피아니스트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곡가 이주애, 정수란, 김국진, 김보현, 박경애, 민유리, 정다정, 이종서, 박영란, 신동일의 창작곡을 회원들과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의 연주로 들려준다.

- 피아노/장혜원(특별출연), 서혜정, 정은혜, 서혜원, 김민정, 신주옥, 정년경, 황정미, 강남길, 하신혜, 최성애, 김소형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제28회 정기연주회
종교개혁

일 시 | 10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010-3376-2246



부산과 경남지역의 교향악단과 대학에 출강하는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로 창단된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동서대학교 대학원 교수이자 중국 텐진심포니 수석 객원지휘자,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백진원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강한솔, 클라리넷리스트 문진성, 바순리스트 장정호의 협연으로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을 비롯해 멘델스존의 곡들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트럼펫 서곡, 피아노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5,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협주곡 제2번 fkeswh 작품 114, 교향곡 제56번 '종교 개혁'S

소프라노 이진영 독창회

일 시 | 10월 5일 목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이진영 010-2623-1216



이음오페라단 부대표이자 폰테 앙상블 대표, 센텀초 허밍버드 합창단, 남천교회 어린이찬양대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이진영 독창회.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이태리 도니제티 아카데미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진영은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김해 모던심포니 창단연주회 등 다수 무대에 섰으며 오페라 주역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퍼셀의 '음악은 잠시동안'을 시작으로 벨리니 '여섯 개의 작은 아리아', 바버의 '은둔자의 노래',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해...아, 그이었던가'를 들려준다.

- 테너/장지현 • 피아노/최승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0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독주회. 그동안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우예권은 이제 콩쿠르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그가 3년만에 출시한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의 발레 기념무대로, 바흐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10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미래의 부산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꿈나무 육성을 위해 부산에서 수학중인 음악학도들에게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협연 무대를 제공하는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지난 30여 년을 이어오며 올해로 79번째를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은 그동안

수많은 연주자들을 배출하며 차세대 연주자들의 실질적인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디션을 거친 5명의 협연자들이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협연자들의 학구적이면서도 뛰어난 기량과 다양한 악기, 여러 시대에 걸친 대표적인 협주곡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2번 중 제1악장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중 제1악장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3번 중 제1악장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중 제1악장
엘가/첼로 협주곡 중 제4악장

- 지휘/백승현(부지휘자)
- 플루트/김나영(인제대 3학년)
- 피아노/김나영(부산대 2학년), 기태욱(부산예중 3학년)
- 트럼펫/최태강(부산예고 2학년)
- 첼로/민재울(부산예중 2학년)



독우회 제55회 정기연주회 **우정**

일 시 | 10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독우회 010-8515-2525,
010-4800-6224



독일에서 유학한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55번째 정기연주회.

독우회는 지난 1994년 창단 후 매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우정’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

파 작곡가들 중 깊은 우정을 나눴던 라이벌이자 서로를 가장 잘 알았던 작곡가 쇼팽과 리스트의 곡을 전, 후반부로 나뉘어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제1번, 발라드 제4번, 소나타 제3번
리스트/순례의 해 중 ‘타란텔라’ 등

- 연주/선지수, 서영진, 김미희, 박아연, 이요한, 이수정, 김진희, 최혜련

2023년 제61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한마당

일 시 | 10월 8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국악협회 644-5211



부산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61회 부산예술제 ‘전통음악한마당’.

부산국악협회가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음악 예술을 통해 우리 민족의 평안을 염원하고자 마련된 무대로, 각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던 고분도리 걸립의 성주풀이를 시작으로 노동요인 구덕망개소리, 수영농청놀이, 대대포후리소리를 통해 풍년을 기원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놀이인 동래야류로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집(타피는 소리, 성주풀이), 땅(구덕망개소리), 농사(수영농청놀이), 어업(대대포후리소리), 말뚝이놀이(동래야류)

- 총괄기획/김인숙 • 연출/김신영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4회 정기연주회

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봄

일 시 |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여성문화회관 320-8332



부산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수강생들로 구성된 미루샘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미루샘합창단은 지난 1994년 창단 이후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정기공연을 비롯해 부산아시아게임 기념행사공연, 부산-후쿠오카 교류음악회, 여성문화회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 단장/이복희 • 지휘/한정현
- 피아노/신주옥
- 찬조출연/소프라노 이진영, 재즈밴드 아코프 로젝트

김정은 피아노 독주회 **Dear Franz**

일 시 |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가온클래식 070-8811-0513



섬세하고 탄탄한 테크닉과 다채로운 음색, 치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매력적인 음악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김정은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도독, 칼스루에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과정(석사

과정), 독일 로버트 슈만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칼스루에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김정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인 AYAF 앙상블 멤버로 있으며 다양한 장르 협업 프로젝트 콘서트 활동으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왔다. 김정은은 현재 동아대학교 조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Franz’ 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슈베르트와 리스트,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3년 제61회 부산예술제 가곡과아리아의 밤

일 시 |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61회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부산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박성환이 지휘하는 부산음협청년오케스트라와 지역의 성악가들이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주페/오페레타 '아름다운 갈라테아' 서곡
- 조두남/벚노래
- 조르다노/오페라 '아드레아 세니에' 중 '조국의 적이라고'
-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등 수곡
- 소프라노/강수진, 고민진, 변향숙, 정수정
- 테너/조윤환
- 바리톤/김우주, 박하민, 채범석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마리 퀴리

일 시 | 10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 꼽히는 마리 퀴리의 삶을 소재로 한 한국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 지난 2018년 12월 트라이아웃 공연(정식 공연 전 시범 공연)을 거쳐 2020년 2월 초연된 뮤지컬 '마리 퀴리'는 탄탄한 서사와 아름다운 음악,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 프로듀서상, 극본상, 작곡상, 연출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자신의 연구가 초래한 비극적인 진실을 목도한 후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마리 퀴리와 라듐의 유해성을 파고드는 안느 코발스키와의 연대를 통해 목격한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김경일

일 시 |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을 만날 수 있는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김경일은 공중파 TV의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강연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각계 전문가가 모여 인문 지식을 풀어주는 인문학 특강쇼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타인과 나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부산 CBS 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의 연주로 윌리엄 볼콧의 '우아한 유령'을 들려준다.

서혜리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서혜리 010-3596-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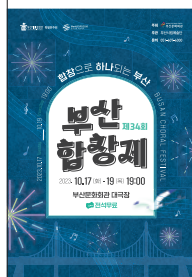
현재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부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리 독주회. 서혜리는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신시네티대학교에서 최고연주자과정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매년 활발한 연주 활동과 더불어 후진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낭만적인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 클라라 슈만/녹턴
- 로버트 슈만/유모레스크,
- 쇼팽/24개의 전주곡
- 해설/김윤선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합창제

일 시 | 10월 17일-19일 화-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 높은 합창문화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한 부산의 대표 합창 축제 '제34회 부산합창제'. '부산합창제'는 그동안 합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소통하는 아마추어 합창단에게 연주장소와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합창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참가 합창단들간의 경쟁이 아닌 서로 교류하고 격려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선발된 38개의 합창단이 출연, 각자만의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치유,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7일(화) 출연팀

금빛합창단, 금정구시니어합창단, 나라여성합창단, 남구시니어합창단, 동래여고옥색합창단, 명호여성합창단, 모래톱합창단, 부산울산원음합창단, 부산진시장여성합창단, 에버그린코러스, 에체르콰이어, 청춘드림합창단

18일(수) 출연팀

BTN불교TV합창단, cbmc부산총연합합창단, 라온콰이어합창단, 마린뮤즈콰이어, 부산라이온스콰이어, 부산브라보남성합창단, 부산은파합창단, 부산의용소방대합창단,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부산하모니합창단, 불다보이스콰이어, 성산콰이어, 선텐합창단

19일(목) 출연팀

강서하모니합창단, 경남여고수정합창단, 경현 Happy Choir, 만다라합창단, 멜로다미, 부산사대 부고동문합창단, 부산여고동문 동백합창단, 부산여성합창단, 부산진구남성합창단, 영도구립여성합창단,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 해운대 We-Road choir, 해운대소리합창단

- 사회/김수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미술평론가이자 아트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현이 해설하고 아나운서 손지현이 진행하는, 오페라와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마지막 무대 '라 트라비아타'.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축배의 노래', '아, 그이인가', '나의 불타오르는 마음', '파리를 떠나서... 영원한 이별이야' 등 유명 아리아를 성악가의 노래로 감상할 수 있으며, 극중 비올레타처럼 당대의 유명한 코티잔(고급 매춘부)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 사랑의 전개과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피아노/이소영
- 소프라노/김승리 • 테너/김성호

부산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 시리즈 IV 현대합창의 밤

일 시 |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내에서는 쉽게 연주되지 않는 현대합창곡을 소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무대 '현대합창의 밤'.

이번 무대는 '깊이있는 음악,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지휘자'로 알려진 이기선 지휘자가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선보여온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 시리즈 네 번째 무대로, 그동안 세 차례의 공연을 통해 합창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예술감독 이기선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차별화된 선곡으로 1부 외국 현대 합창음악(미국, 아프리카)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 현대 합창음악으로 꾸며진다.

- 지휘/이기선

2023 부산음악대축제

일 시 |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2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음악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2023 부산음악대축제.

20일(금)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부산의 신인연주자들을 비롯해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부산지역 6개 대학 피아노 전공 재학생들의 피아노 대항연이 펼쳐진다.

21일(토) 창작과 오케스트라의 밤

지휘자 다니엘S김이 지휘하는 부산청년오케스트라 연주로, 작곡가 권유미의 가야금과 현악 합주를 위한 '바람이 분다'를 비롯해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 가야금/정진 • 바이올린/백재진
- 첼로/이일세 • 피아노/김소형
- 해설/김윤선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던 에프터눈

일 시 |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피아니스트 김소영, 바이올리니스트 박강현, 첼리스트 이호찬으로 구성된 영 Ensemble과 최근 방송 및 공연 무대를 통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오신영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로고스 트리오로 활동하

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영 Ensemble은 앙상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낭만에서부터 바로크, 고전, 근·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사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회에서 흔히 연주되는 서유럽 작곡가들의 작품 대신 20세기에 작곡된 미국, 남미,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들려준다.

차이콥스키 서거 130주년 기념연주회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기리며

일 시 |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3천원, S석 2만2천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올해로 서거 130주년을 맞은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를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기획사인 아트뱅크코리아가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라는 부제로 피아노 트리오, 현악 6중주, 교향곡 제5번, 6개의 로망스 등 차이콥스키의 다양한 작품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중견 피아니스트 박정희, 권준, 첼리스트 양욱진,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중 교수 등이 출연하며 피아니스트이자 음악학자인 박유미가 콘서트 해설을 맡아 그의 작품세계로 안내한다.

아트뱅크코리아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한 작곡가의 음악을 탐구하고 연주하며 부산의 실내악 문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황여진 비올라 독주회

일 시 |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황여진 0502-1935-0500



따뜻한 감성과 진정성 있는 연주로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비올리스트 황여진 독주회.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졸업 후 스위스 제네바 국립음대 석사,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황여진은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IPB, 음악실험실 짜임 멤버로 활동하며,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부산예중·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통영)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 제1번', 슈만 '환상소곡집 작품 73'을 비롯해 '근대 비올라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대표적 작곡가 에드워드 요크 보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작품 18'을 들려준다.

- 피아노/강형은

일파가야금합주단 제26회 정기연주회 가야금과 현죽동음(絃竹同音)

일 시 |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일파가야금합주단 010-5148-3336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일파가야금합주단이 '鉉의視察' 열 세 번째 무대로 마련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향연'. 일파가야금합주단 장혜숙 단장과 국가무형문화재 구례향제출풍류 명예보유자인 장명화, 그리고 이수자 및 전수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계면가락 환입·양청환입'을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정악 전승교육사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인 홍종진 교수의 대금 독주, 그리고 대중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비틀즈의 히트곡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이밖에 전남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객체영 교수 작곡한, 제11회 정기연주회 위촉곡인 25현 3중주곡 'Little Stories'와 올해 새로운 위촉곡인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흐름'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

일 시 |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1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교향곡을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한 무대 '심포니아夜'. 이번 무대에서는 10월 27일 열리는 제60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하이든 '교향곡 제104번'을 음악칼럼니스트 이준형의 상세한 해설로 만날 수 있다.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로 관객과 만나는 이준형은 가톨릭평화방송 FM '이준형의 비온드 클래식' 진행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월간 객석, SPO(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스트라드 등에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Ⅲ

일 시 |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픈 리허설을 통해 제604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지휘자의 육성으로 직접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전공자 및 클래식 매니아 관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604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부산시립무용단 무용단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_천상의 길

일 시 |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제32회 정기공연으로 올려져 호평받았던 '천상의 길'을 새롭게 재안무한 'The Legacy_천상의 길'. 제7대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이자 부산시 무형문화재 동래한량춤 보유자로 있는 김진홍 선생이 안무한 '천상의 길'은 처음 설화에 바탕을 둔 춤 창작극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훈련지도자 서정숙의 재안무로 새롭게 선보인다.

작품

- 제1장 초혼, 제2장 광란의 춤, 제3장 씻김굿
- 예술감독/이정윤(예술감독)
 - 원작안무/김진홍(전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
 - 재구성-안무/서정숙(훈련지도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4회 정기연주회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일 시 |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4회 정기연주회. 지난 3월 23일 제598회 정기연주회에서 브람스가 남긴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제2번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던 손민수는 이번 무대에서 협주곡 제1번으로 브람스만의 우수에 젖은 선율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게 해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올해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작곡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하는 '6 Last Works' 무대로, 하이든의 최후의 교향곡인 '교향곡 제104번'을 연주한다.

2023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선정작 BMPO와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음악

일 시 |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BMPO 070-7727-0188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부산에서 활동중인 원로 음악인들과 함께 선보이는 'BMPO와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음악'. 이번 무대는 2023 원로 예술인 공연지원 선정작으로,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장르로 프로그램을 구성, 존 윌리엄스, 제임스 아너, 한스 짐머, 엔니오 모리코네 등 유명 영화음악 작곡가들의 대표적인 영화 OST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프로그램
 존 윌리엄스/스타워즈, 신들러 리스트
 한스 짐머/글래디에이터
 엔니오 모리코네/미션 등

- 지휘/김영수 • 바이올린/정진경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기 정기연주회
브람스

일 시 |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늦가을의 정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기 정기연주회 '브람스'.

수석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의 음악이 전하는 슬픔과 즐거움, 행복함 등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통하여 음악이 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프로그램

- 브람스/비극적 서곡 작품 81
- 브람스/하이든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56
- 브람스/교향곡 제2번 작품 73
- 지휘/백승현(수석지휘자)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일 시 | 10월 13일(금)-16일(월) 부산시민회관,
가온아트홀, 일터소극장, KT&G 상상마당
부산 등
문 의 |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745-7235,
www.bpam.kr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이 주최하는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연예술상품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여 작품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무용, 음악, 연극, 마술, 코미디, 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작품 100여 편이 참가한다.

올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주요 공연 프로그램은 BPAM 예술감독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이 선정한 '초이스(Choice)'와 참여-연계 공연인 '웨이브(Wave)'로 구성된다.

주요 일정

13일(금) 오후 2:30 소극장

마담패밀리 '해녀' [웨이브]

재즈 댄스를 바탕으로 스트릿 댄스와 현대무용의 테크닉이 어우러진 '실용무용'이라는 장르와 '해녀'라는 주제가 처음으로 만나 대중적이면서도 신선한 시도를 선보인다.

- 안무/오정화 • 고수/이상호

13일(금) 오후 7:00 소극장

알극장과 '마테이 비슈니에츠' 시립극장 '옥시던트 익스프레스' [초이스 전막]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전설적인 오리엔트 급행 열차의 은유를 통해 격동의 시간이 흘렀던 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동서로 갈라졌던 유럽이 힘겹게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연극.

14일(토) 오전 11:00 소극장

박윤우 집시 앙상블 '올 댓 집시로드' [초이스 전막]



한국 재즈를 이끌고 가는 기타리스트 박윤우와 그의 친구들이 재즈, 클래식, 한국대중가요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집시 재즈로 새롭게 들려

준다.

- 기타/박윤우, 최기운 • 비올라/정민경
- 더블베이스/김대호 • 클라리넷/백동훈

14일(토) 오후 4:00 대극장

BPAM 개막식 및 개막 축하공연

극단 벼랑끝 날다, 조윤성 트리오, Shahr X KARTS, 진연우(뮤지컬 아역 배우)가 부산에서 제작된 공연 스넵과 협업하여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

15일(일) 오전 11:00 소극장

조윤성의 재즈타령 [초이스 전막]

한국의 K-pop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 작곡, 편곡, 프로듀서, 페스티벌 음악 감독, Orchestration 편곡자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이 이끄는 조윤성 트리오의 무대.

- 피아노/조윤성 • 더블베이스/황호규
- 드럼/신동진 • 소리꾼/이승희

15일(일) 오후 2:30 대극장

극단 벼랑끝 날다 '더 클라운' [초이스 전막]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클라운들이 펼치는 언버벌 휴먼 음악극.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감성을 담은 광대들의 따뜻한 동

화같은 노래가 펼쳐진다.

15일(일) 오후 4:00 소극장

퀘백 온 스테이지

캐나다 시나르(CINARS) 비엔날레 및 주한퀘백 정부대표부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행사로, 퀘백 지역 12개 예술단체의 소개 및 3개 작품의 쇼케이스를 만나볼 수 있다.

15일(일) 오후 8:00 대극장

바디토크 'Koreality' [초이스 전막]

유럽이 관광객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한국'을 담은 창작무용.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의 한국 좀비 드라마, 스릴러 및 한국식 유머에 집중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현실의 끊임없는 투쟁을 보여준다.

16일(월) 오후 7:00 대극장

전미숙무용단 'BOW' [폐막무대]



인사가 사회에서 가져지는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창작무용으로,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에서 지켜지고 있는 예의 모습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작품을 통해 반문해본다.

- 안무/전미숙
- 작곡/김재덕

소프라노 이수진 독창회

일 시 |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이수진 010-2817-1910



소프라노 이수진과 함께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1부 한국가곡을 시작으로 오페라의 고장인 이탈리아로 떠나 오페라 '라보엠'의 한 장면을 감상한 후 2부에서는 신비롭기까지 한 북유럽 작곡가들, 시벨리우스, 그리그, 알벤 등의 가곡들을 소개하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낭만 시대의 작곡가 리스트의 아름다운 소네트 중 가장 유명한 'Pace non trovo'를 들려준다.

음악을 본연 그대로 사랑하는 소프라노 이수진은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레스피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으로 부산 음악계에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해설/김기환 • 테너/김정원
- 피아노/안주희

2023년 제61회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回**

일 시 | 10월 6일 금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예총 631-1377
 www.artpusan.or.kr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61회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올해로 회갑을 맞은 부산 예술제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

난다.

2023 부산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국악협회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엔젤피스 어린이합창단, 헤이데이댄스, 소프라노 박현진, 베이스 박상진, 가수 조주환의 무대와 더불어 상하이 희극대학교 부속무용학교 등 해외자매(우호)도시의 예술인들이 펼치는 일본, 중국의 전통무용, 그리고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시범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

일 시 |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위대한 유산'.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 모델시엔티, 인젤피스예술단, 창작연희 The늘, 태권도 아리랑멋시험단 등 출연진만 200여 명에 달하는 대형무대로, 신명나는 무대로 개관 50주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우리 음악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흥겨운 무대로 함께 펼쳐진다.

부산시민회관 50주년 개관 기념 특별강연 **공감, 4인 4색**

일 시 | 10월 18일(수)-20일(금) 오전 11:00, 21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민회관이 10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강연 '공감, 4인 4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는 인간 본성과 기술의 진화를 탐구해온 과학철학자이자 진화학자인 장대익과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김현숙,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도슨트 정우철, 그리고 전 롯데디자인츠 야구선수 이대호가 시민들과 만난다.
 18일(수) 오전 11:00 장대익 교수
 19일(목) 오전 11:00 김현숙 배우
 20일(금) 오전 11:00 정우철 도슨트
 21일(토) 오후 2:00 이대호 야구선수

2023 부산미래유산 부산시민회관과 함께 하는 부산 시민 예술가 축제

일 시 |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다소니 010-4101-8928



부산시가 선정한 '2023 부산미래유산'에 지정된 부산시민회관과 함께하는 부산 시민 예술가 축제. 부산의 미래유산 중 하나인 부산시민회관을 부산 시민들이 직접 보존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연 기획 및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해온 사회적기업 ㈜다소니를 중심으로 시민 예술가 팀을 선발, 시민 예술가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에서 시민 예술가 팀은 팀 별로 부산시민회관에서의 추억과 느낌, 감명 깊었던 공연 혹은 부산시민회관의 가치 및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며 노래와 합창,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3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우리 국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연주자들을 만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3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지휘자 김현호가 객원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민경(해금), 강태훈(가야금), 한장혁(대금), 최지아(가야금), 신희태(태평소), 문선일·유지산·김태린·김준우·정세형(타악)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객원지휘자 김원호는 경상북도립국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김천시립국악단, 영남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있다.

프로그램

- 임준희/해금 협주곡 '혼불 V-시금'
- 신주연/거문고 협주곡 '비상'
- 이화동/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 임준희/가야금 협주곡 '혼불 II-나의 넋이 너에게 묻어'
- 황호준/태평소 협주곡 '검은 평화'
- 한승식/무취타
- 지휘/김현호
- 해금/김민경(한양대 석사과정)
- 거문고/강태훈(서울대 석사과정)
- 대금/한장혁(부산대 2학년)
- 가야금/최지아(부산대 석사과정)
- 태평소/신희태(추계예대 4학년)
- 타악/문선일(단국대 2학년), 김준우(단국대 2학년), 김태린(단국대 2학년), 유지산(단국대 3학년), 정세형(단국대 4학년),



10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상설무대 '금정수요음악회' 10월 무대.

4일(제831회) 1920's 풍류, 악



평양 기성 권번에서 전승된 고악보 '가곡보감(1928)'을 중심으로 평양 지역과 기성 권번에서 연주되던 줄풍류 음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공연 콘텐츠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남북 전통문화예술 교류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021년 창단한 평양기성줄 풍류보존회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양금조~상녕산가락~상현'을 시작으로 방아타령, 1920년대 서울과 평양의 풍류, 녀불~군악, 뒷풍류(계면~우도)를 연주한다.

- 해설/심지우

11일(제832회) 그대 향하여, 나 그대와 함께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감동이 있는 무대.

소프라노 박나래, 백선경, 윤비연, 이수진과 테너 김현성, 서치환, 양승엽, 바리톤 김기환, 김민형, 이태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현정과 권선경이

1, 2부로 나누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18일(제833회) 피아노 트리오 원(元) '냉정과 열정 사이'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전후국과 연세대학교 기악과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첼리스트 정준수,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연주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성민주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 원의 무대.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와 아르헨티나 작곡가

피아졸라, 미국 작곡가 쉰필드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을 들려준다.

25일(제834회) 부산현대음악앙상블 '현대음악 속 고전의 발견'



지역 현대음악의 활성화와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작곡가 이규봉을 예술감독으로 부산지역의 젊은 전문연주자들로 창단된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의 무대.

2008년 창단 이후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바탕

으로 폭넓은 현대음악 장르를 탁월하게 해석하며 전문음악인들로부터 호평과 주목을 받아온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은 특히 창작작품의 초연을 통해 음악의 지평을 넓혀며 작곡가와 청중을 연결하는 '소통과 공감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 예술감독/이규봉
- 바이올린/강고은, 고아라
- 비올라/김명복 • 첼로/곽대희
- 플루트/장예지 • 클라리넷/황남용
- 색소폰/우다연
- 피아노/김진희, 강대현, 박지은

베이스바리톤 양재원 귀국 10주년 독창회

일 시 | 10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양재원 010-9356-1834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음악성으로 청중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바리톤 양재원의 귀국 10주년 독창회.

양재원은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수석졸업하고 도독,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오페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데트몰트 국립극장 전속 주역가수로 활동하며 오라토리오 독창자 및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귀국 후 다양한 영역의 작품 연구에 매진하며 활발한 활동으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양재원은 이번 무대에서 감동을 전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김현경 • 해설/양보원

제9회 을숙도오페라축제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부산 오페라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을숙도오페라축제.

7일 개막작으로는 도니체티의 대표 희극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대표 김일택)의 무대로 선보이며, 14일에는 부경필하모

니오케스트라(대표 공영식)의 콘서트오페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카리스마와 섬세함이 돋보이는 김봉미의 지휘로 감상할 수 있다. 21일에는 네 남녀간의 사랑과 배신, 갈등을 우아하고도 코믹하게 그린 세이모어 바벌의 '버섯피자'를 부산의 신생오페라단인 부산예술오페라단(대표 박재화)이 선보이며, 28일 폐막작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으로, 오페라단 나눔(대표 이철성)이 선보인다.

T.I.F Wind Orchestra 제2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T.I.F Wind Orchestra 010-3848-8995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금관연주자들로 구성된 T.I.F Wind Orchestra의 정기연주회.

현재 (사)T.I.F 예술단 예술감독 및 대표이사, 울산 시립교향악단 트럼펫 단원으로 활동하는 손영진

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시벨리우스 '핀란드야'를 비롯하여 디즈니 영화모음곡, '스윙의 왕' 베니 굿맨을 추억하는 '베니 굿맨 메모리즈' 등 다채로운

- 단장/최동휘 • 지휘/손영진
- 피아노/박은정
- 특별출연/해피앙상블
- 악장/김태훈 • 해설/박은승

슈테른 앙상블 낭만 그리고 가을

일 시 | 10월 7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슈테른 앙상블 010-3071-8215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슈테른 앙상블의 무대.

독일어로 '별이란 뜻을 지닌 슈테른 앙상블은 그동안 그들의 반짝이고 다채로운 해석과 신선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해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편성의 2Piano 프로그램으로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프로그램

윌리엄 질로크/삼페인 토카타

베토벤/에그먼트 서곡

생상/죽음의 무도 등

- 연주/서혜정, 김지현, 호연주, 박지혜, 이문영, 민성혜, 최성애, 서선정, 강동우, 김하림, 박지윤, 박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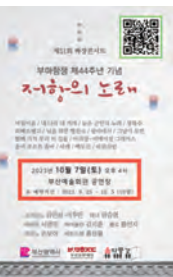
제51회 짜장콘서트 부마항쟁 제44주년 기념콘서트 저항의 노래

일 시 | 10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청소년 및 10명 이상 단체 50% 할인)

문의 | 음악풍경 기획실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이 부마항쟁 제44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무대 '저항의 노래'.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의 붕괴를 촉진시킨 민주화운동으로, 지난 202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양승엽, 소프라노 김민성, 이주민, 바리톤 시영민과 앙상블 프로무지카(바이올린 김지훈, 첼로 황성지, 피아노 손모아, 세트드럼 홍성철)가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널리 불려진 '민중가요'를 중심으로 무대를 꾸민다.

- 진행/이진이(음악풍경 기획실장)

게네랄파우제 10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10월 무대

6일(금) 70's Funk-Earth Wind and Fire



피아니스트 강혜인, 보컬 정세미, 베이스리스트 심규환, 드러머 홍영호로 구성된 강혜인 콰텟의 무대.

활기차고 청량한 재즈를 선보이고 있는 강혜인 콰텟은 이번 무대에서 미국의 펑크 밴드 'Earth Wind and Fire(EWF)'의 대표곡들로 그 시절 핑키펀 추억을 들려준다.

7일(토) 다국적 뮤지션들이 해석하는 재즈 스탠다드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다국적 뮤지션들이 새롭게 해석하여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일본 오사카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 켄지 키요카와와 쿠바 출신의 드러머

알라인 사마다가 해석한 또다른 느낌의 곡들을 들려준다.

- 연주/하지림 밴드(기타 켄지 키요카와, 피아노 하지림, 베이스 박재훈, 드럼 알라인 사마다)

13일(금) '심리야, 음악하고 놀자' 시리즈-HOME



리더이자 감성 드러머인 허여정, 피아니스트 오노린, 베이스 황대웅, 그리고 스토리텔러이자 아코디언 김선영으로 구성된 허쉬밴드의 특별한 무대.

대인관계심경생물학에 근거한 최신이론인 '브레인스포팅'을 주제로 한 이번 무대에서는 아웃사이드 시선, 인사이드 시선, 게이즈스포팅, 바디리소스, 이중조율이라는 브레인스포팅의 원리를 스토리텔링과 이에 어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

14일(토) June Yun 'Traditional Q'

2016년 KBS '먼데이뮤직'에서 유리상자의 박승화와 '순애보'를 발매한 가수 윤여준에서 뉴욕에서 주목받는 재즈 보컬리스트 겸 작곡가로 성장한 June Yun의 무대.

올해 10월 첫 재즈 프로젝트인 'Enlightenment-



Solid Waves'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June Yun은 이번 무대에서 그녀의 독특한 음색, 편곡법, 작곡곡들 뿐만이 아닌 다양한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만나 볼 수 있다.

- 보컬/June Yun

- 비브라폰/Vid Jamnik • 피아노/김대규
- 베이스/곽병린 • 드럼/유승환

20일(금) Just Standards Vol.3



이달현 트리오의 현란한 기타연주와 함께 나진주의 피아노 합류로 더욱 풍성한 연주를 들려줄 특별한 무대.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조금 소프트한 퓨전락을 감상할 수 있다.

- 기타/이달현

- 피아노/나진주 • 베이스/박지현
- 드럼/윤혁성

21일(토) When October g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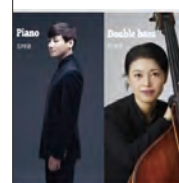


가을 분위기와 따스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최은아 트리오의 재즈 무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편안함과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들려준다.

- 보컬/최은아 • 피아노/장세연
- 베이스/신세영

27일(금) 사랑하는 나의 그녀



베이스리스트 정혜민과 피아니스트 김태운으로 구성된 정혜민 듀오가 마련한 '사랑하는 나의 그녀'.

'사랑하는 나의 그녀'는 정혜민의 악기인 '더블 베이스'를 뜻한다.

- 게스트/박슬기&안정민(피아노)

28일(토) 가을밤, 한국 영화 특선



다채로운 편곡과 감미로운 앙상블로 관객과 만나 온 도담앙상블의 무대.

'한국영화 특선'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의 명장면과 함께 다

양한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 피아노/손안나 • 바이올린/김민화
- 플루트/조다은 • 클라리넷/강철주
- 첼로/정혜주 • 작곡/강유

하지희가야금콘서트 HOME seasonII WEEKEND

일 시 | 10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hjh3966@naver.com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야금주자 하지희의 무대.

하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제25회 전국 고령 우륵가야금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마지막 날, 가까운 이웃을 초청하여 본인의 집에서 열었던 'HOME'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추석 연휴의 끝자락, 한가한 주말에 청량한 가야금 연주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건반/차민영 • 장구/이현철
- 기타/진석곡 • 퍼커션/김은호
- 콘트라베이스/박재훈 • DJ/최강규

제5회 국악그림 도시락 정기연주회 피리부는 소녀

일 시 | 10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국악그림 도시락 010-8986-6056



우리 전통음악이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그림 도시락의 무대.

동화 '피리부는 사나이'를 모티브로, 명작동화에 현대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우리의 전통그림자극인 '만석중 놀이'를 현대식으로 풀어내어 도시락만의 음악과 함께 선보인다.

- 단원/이지현(대표, 타악), 이주현(피리, 태평소), 이희진(작/편곡, 신디사이저), 이수현(대금, 소금), 강민희(해금)
- 사물놀이/타악양상블 Dream Ta
- 신디사이저/최준원 • 드럼/김영훈
- 베이스/박주민

제18회 우리시우리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국창작가협회 323-8576, 010-5541-8576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협회(회장 김성덕)가 들려주는 제18회 우리시우리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제1부 그리운 추억, 제2부 애틋한 사랑, 제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부제로 어린이 독창, 어린이 중창, 소프라노 독창, 베이스 독창, 여성 합창, 남성 합창, 혼성 합창 등 다양한 편성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어린이 독창/김리하, 이유림
- 소프라노/황윤정 베이스/김태형
- 연주/드림문화오페라솔리스트양상블(지휘/장진규), 소리향기중창단(지휘/오가영)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10월 10일(화), 17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5814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2023 을숙도 예술공감.

10일(제35회) 계절을 노래하다;사계 시리즈

이안오케스트라의 사계 시리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Four Seasons 양상블 편성으로 기획, 다채로운 음악과 함께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17일(제36회) 베토벤의 서재

녹턴 스트링 콰르텟의 12번째 정기연주회로, 베토벤이 처음으로 청력장애를 겪었던 해인 1798년(28세)부터 1810년(40세) 사이 문학작품이 그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고 음악으로 어떻게 풀어 썼는지를 짚어본다.

10월 스페이스 음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6일 공연 없음)
스페이스 음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 음의 살롱음악회.

13일(제518회) Scent of Jazz



2023 부산광역시 원먼스 페스티벌에서 라이징스타 우수상을 수상한 어센트(Ascent)의 무대.

어센트(Ascent)는 그동안 비바아첼 어센트, Jazz club Chess154, 울산재즈페스티벌, 광안리 Summer Festival, 송정

Sun set Live Busan 초청공연, 부산국제레퍼페스티벌, 원아시아페스티벌 BOF 공연 등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커피처럼' 음원을 발매한 바 있다.

20일(제519회) 객진규의 '20세기 기타음악 이야기'



기타그룹 피에스타 'Fiesta' 단원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의 연주를 선보여온 기타리스트 객진규의 무대. 객진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블 파리에콜노흐말 음악원과 레이레호즈 음악원, 파리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전문 연주자로서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KBS, MBC 라디오와 TV프로그램 등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크, 토로바, 타레가, 객진규,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 세르지오 아사드 등 현대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27일(제520회) 정열을 노래하다. Vamos Tango

클래식과 재즈 전공자들이 만나 열정적인 탱고 음악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는 메츠클라의 무대.

보컬 김경한은 JTBC 팬텀싱어3에 출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30주년 기념공연 노자와 베토벤

일 시 |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18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동·서양의 음악과 생각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 '노자와 베토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그니처 공연인 '노자와 베토벤'은 예술감독 오충근의 '음악'과 첼학자 최진석의 '철학'이 만나는 무대로, 소리(음악)와 사유(철학)의 만남을 통해 이 시대에 새로운 주제와 풍경을 던지는 '화두적 공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예술감독 오충근이 지휘하고 카이스트 초빙석좌교수로 있는 첼학자 최진석과

함께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리 연주자 김성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김주영의 협연으로 작곡가 슈타우더허 미하엘의 신작과 함께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슈타우더허 미하엘의 '하루 같은 인생'은 서양의 악기와 한국의 전통관악기 피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곡이며, 김한기의 '고향의 봄' 작품 159'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동요 '고향의 봄'을 모티브로 한 창작곡이다.

프로그램
드보르자크/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장조 작품 22 1악장
슈타우더허/하루 같은 인생
김한기/고향의 봄 작품 159
차이콥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1악장

- 예술감독/오충근(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
- 첼학자/최진석(카이스트 초빙석좌교수)
- 협연/김성준(피리, 부산대학교 교수), 김주영(바이올린, BSO 악장)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회 앙상블 크로노토프 정기연주회 시간, 공간, 그리고 음악: 전통을 있는 21세기 프랑스 음악 여행

일 시 |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사전 예매시 40% 할인)

문의 | 앙상블크로노토프, 010-3873-8757



지난해 창단연주회를 가진 앙상블 크로노토프는 '시간(크로노스)'과 '장소(토포스)'가 결합된 시공간이라는 이름처럼, 위대한 작곡가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찬란한 음악적 아름다움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재해석, 청중과 소통하고자 모인 단체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시간, 공간, 그리고 음악: 전통을 있는 21세기 프랑스 음악 여행'이라는 주제로 바로크 시대 및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에 작곡된 작품들을 들려준다.

- 해설/피아노/김정화
- 첼로/정서은, 김윤영
- 바이올린/백사론

유명속 경기민요 부산예술원 제2회 정기발표회

일 시 |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6: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의 | 유명속 경기민요 부산예술원
010-8847-8523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유명속과 유명속 경기민요 부산예술원 회원들이 마련하는 무대. 유명속은 현재 총렬사 교육회관, 연재문화원, 금정구 평생교육원, 부산문화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전임강사로 있으며 경기소리를 비롯한 우리민요 전승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속 경기민요 부산예술원 회원들과 금정구 해맞음 평생교육원 경기민요반 회원들이 출연, 그동안 같고닦은 우리소리를 들려준다.

- 연주/김혜지(피리), 고명진(가야금), 고현아(대금), 안유진(장단)
- 특별출연/소리바다

KBS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일 시 |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S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KBS 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의 지휘로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섬세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플루티스트 김유빈이 협연하는 하차투리안 '플루트 협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 지휘/피에타리 잉키넨
- 플루트/김유빈

국악과 트로트가 만나다 시리즈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

일 시 |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국을 강타한 트로트 열풍과 한국의 정서를 가장 잘 융합한 특별한 무대. 한국 국악대도 김영임과 트로트의 전설 김용임, 그리고 경기민요 남자 소리꾼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명창 고금성, MBN '보이스퀸'에 출연하여 인기를 끈 경기소리꾼 전영랑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들의 대표곡을 비롯하여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트로트 메들리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얼썬', '좋다' 등 국악에서 자주 사용되는 추임새를 관객에게 알려주며 소통하고 일상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한다.

시명진·조가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3: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의 | 시명진 010-7666-3024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후 2015년부터 부산과 창원, 통영, 거제, 김해 등에서 듀오 활동을 활발히 펼치 온 피아니스트 시명진, 조가희의 듀오 리사이틀.

시명진은 이탈리아 가스파레 스포티니 공림음악원에서 수학하고 그동안 오페라 '마직' 전곡 반주 및 다수 오페라, 가곡, 앙상블 반주 활동을 가져왔으며, 수차례 독주회 및 오케스트라 협연, 듀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예술위원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가희는 러시아 성 페테르부르크 콘서바토리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하고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해 다수 듀오 및 앙상블 연주회, 오페라 반주 활동을 펼쳐왔다.

울속도 청년예술공감

일 시 | 10월 23일-24일 월-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5814



지역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는 울속도문화회관 '청년 예술공감'.

23일(제5회) 제이 트리오 창단연주회

지역의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제이 트리오의 창단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제4번',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삼중주 제1번', 브람스 '피아노 삼중주 제3번' 등 다채로운 피아노 삼중주로 클래식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24일(제6회) 독일음악연구회 창립기념음악회

바이올린, 플루트, 피아노, 성악 등 다채로운 악기와 목소리로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클라라 슈만, 짐머만의 곡까지 다양한 명곡들을 소개한다.

나눔행복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합창음악을 통해 '내 삶의 즐거운 변화'와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는 나눔행복합창단 정기연주회.

나눔행복합창단은 지난 2017년 창단 후 지역 소외 계층 및 어르신 나눔 봉사활동,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지원, 꿈꾸는 산골짜기 작은 음악회 나눔 봉사 및 공연을 통해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곡과 가요, 뮤지컬 넘버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프로그램

청산에 살리라, 비목, 나 하나 꽃 피어, The Lion King,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만남, 바람, 흰 수염소리

· 지휘/김성복 · 반주/김경미

자원봉사자 초청 위로음악회 동행Ⅳ

일 시 |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부산자원봉사포럼 010-2026-8280



자원봉사자로 열정을 쏟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마련한 자원봉사자 초청 위로음악회 '동행' 네 번째 무대.

지난 2015년 '자원봉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를 시작으로 2019년 '동행Ⅰ',

2021년 '동행Ⅱ', 2022년 '동행Ⅲ'에 이어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유명한 지휘자 정두환과 그가 이끄는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부산RCYO케스트라 그리고 클래식 기타리스트 광승웅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OST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영상과 함께 추억의 영화음악을 시작으로 영화 속 음악이 가지는 의미를 지휘자 정두환의 해설로 재미나게 풀어낸다.

· 지휘/해설/정두환 · 클래식 기타/광승웅

제22회 굿모닝콘서트 두드려 그려내다

일 시 |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포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5814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울속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10월 무대에서는 타악기 앙상블 BUM이 귀에 익숙한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다양한 리듬과 타악기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들려준다.

전문 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타악기앙상블 BUM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강한 열정과 의지를 담아 타악기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역동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타악기만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 연주/이성은, 김나은, 관선영, 이일순, 김영훈, 노선미

영도에서 떠나는 렉처콘서트 시리즈 콰르텟 엑스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영국

일 시 |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에당아트TV의 클래식 프로그램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으로 유명한 콰르텟 엑스와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콰르텟 엑스와 함께하는 세계여행'은 불멸의 작곡가들을 배출한 나라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음악과 인생이야기, 꼭 가봐야 할 공연장과 명소들에 대한 소개를 멋진 연주와 더불어 유쾌한 강의로 진행되는 렉처콘서트로, 이번 무대에서는 영국 바로크시대 작곡가 헨리 퍼셀에서부터 브리튼, 헨델, 엘가, 그리고 프랑크 브릿지, 본 윌리엄스, 윌리엄 월튼 등 현대 작곡가들까지 영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 바이올린/조윤범, 양승빈 · 비올라/홍성원 · 첼로/임이랑 · 피아노/김가람

정영주, 허혜정 듀오 연주회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II

일 시 |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24세 미만 청소년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부산대학교 음악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허혜정과 정영주가 마련하는 듀오무대. 허혜정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전문자과정과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는 한편, 동의대학교 학점은행제, 부산예고 등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영주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듀오의 대표 곡인 생상스, 슈니트케, 아렌스키의 곡을 두 연주자의 뛰어난 앙상블을 통해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국투어 리사이틀 2023

일 시 |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5만, A석 3만원
 문 의 | WMN 744-4780, 010-9274-4780



“따뜻한 감성과 판타지, 아이디어가 넘쳐 시종일관 청중을 사로잡는 연주라 호평받는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국 투어 리사이틀. 특히 김정원은 CBS방송에서 매일 아침 9시에 진행하는 음악방송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진행하면서 대중들이 항상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39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간 쇼팽의 마지막 3년에 작곡된 그의 아름다운 후기 작품들을 40대 후반 즈음의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섬세한 감정으로 들려준다.

히사이시 조 OST 콘서트

일 시 |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히사이시 조 OST 콘서트. 히사이시 조는 지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담당한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애니메이션 작곡가로,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대표 OST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곡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팝과 대중가요, 민요, 클래식을 고루 소화하고 전 분야에 재능을 보여주는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정다슬,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원 그리고 첼리스트 조윤경이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서정적 아름다움과 간결한 음악적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전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사랑의 온도

일 시 |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10월 무대.

드라마 ‘밀회’에서 남녀 주인공의 연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을 비롯하여 슈만, 브람스의 곡을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과 피아니스트 이선호, 성해린의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연주와 더불어 중앙일보 문화팀 음악담당 기자로 있는 김호정의 해설로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 사이에 얽힌 사랑 이야기도 들어본다.

연극

연극 난중일기에는 없다

일 시 | 9월 13일(수)-2024년 1월 1일(월)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웅 이순신의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과 독특한 발상으로 실존 인물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연극 ‘난중일기에는 없다’. 이 작품에서 역사 속 영웅 이순신은 온데간데없다. 살기위해 버둥거리는 일본 무사 사스케에게 납치되고 고구마 하나에 치졸하게 목숨을 구걸하기까지 한다.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육두문자를 남발하고, 후줄근한 옆집 아저씨 같이 삶의 넋두리도 내뱉는다. 이번 작품은 난중일기에는 없는 3일간 이순신의 행적을 통해 영웅이러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전한다.

효로인디아트홀개관기획공연 한국문학탐구 시리즈 1: 이태준편성북동 248번지

일 시 | 9월 14일(목)-11월 5일(일) 목-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예약 필수)
 문 의 | 극단 새벽 245-5919



올해 4월 개관한 효로인디아트홀 개관기획공연이자 한국문학탐구시리즈 첫 번째 무대 ‘성북동 248번지’.

이번 무대는 질곡의 시대를 살아낸 월북작가 이태준의 고뇌에 다가가는 이정표이자, 한국 분단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좌표로, 그의 단편소설 ‘고향’, ‘농군’, ‘토끼이야기’를 통해 1920~30년대의 무기력한 지식인, 만주 개간지로 이주한 조선농민의 삶, 일본제국주의 아래 조선 민중의 삶이 어떻게 휘말려 들었는지 들여다본다.

- 연출/이성민
- 극구성/이성민, 변현주, 정선옥, 김기백
- 출연/변현주, 이현식, 전상미, 김다애, 김기백

영화

뮤지컬 레미제라블

일 시 | 10월 15일(일)-11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10/15일·10/21일 오후 7:00,
10/25일 오후 2:30, 7:30, 10/29일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8만원,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문의 | 클립서비스(주) 1577-3363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기반으로 작곡가 클로드 미셸 손버그와 작가 알랭 부브리 콤비의 손에서 탄생된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 초연, 2015년 재연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의 누적 관객을 동원하며 폭발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0년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장발장 역에 민우혁과 최재림 등 오직 실력만으로 선정된 최고의 배우들이 관객과 만난다.

2023 순화상영회 BISFF 리턴즈

일 시 |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2:00, 4:40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문의 |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2
742-9600, www.bisff.org



올해 열린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국제·한국경쟁 주요 수상작을 소개하는 순화상영회 'BISFF 리턴즈'

이번 상영회는 부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영화제의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여 새로운 관객층을 발굴하고 단편영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기간동안 부산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영화애호가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도시에서 열린다. 주요 상영작으로 이란의 사디 카람루디 감독의 '파랗게 변하다'(국제경쟁 최우수작품상)를 비롯해 앤서니 잉 감독의 '영화 크레딧 없는 배우, 질'(국제경쟁 우수작품상), 윤동기 감독의 '어나더타운'(한국경쟁 최우수작품상) 등 7편이다.

행사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부산
10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9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월) 그림으로 만나는 부산

• 강의/최석태(미술평론가)

16일(월) 사진으로 만나는 부산

• 강의/문진우(사진가)



19일(목) 낭독과 낭송 그리고 시조창(時調唱), 카프카 단편집(프란츠 카프카, 권혁준 역, 2013년)

23일(월) 건축으로 만나는 부산

• 강의/우신구(부산대 건축과 교수)

30일(월) 음악으로 만나는 부산

• 강의/김형찬(대중음악저술가)

• 연주, 노래/김지세(바이올리니스트), 박기철(경성대 교수)

10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매주 화요일에는 낭만주의 특집을, 금요일에는 모차르트 오페라를, 매주 토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모차르트 특집)/ 피가로의 결혼(6일~7일), 코지판 투테(13일~14일), 벨리니 '노르마'(20일~21일), 마술피리(27일~28일)
콘서트(낭만주의 특집)/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비교감상(3일, 7일), 드보르작 '교향곡 제8, 9번'(10일, 14일), 낭만주의 첼로협주곡(17일, 21일), 생상 '교향곡 제3번', '피아노협주곡 제2번'(24일, 28일),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비교감상(31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감상
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문화홀 1관

입장료 | 2개월 10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연주회 상황을 초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 실황) 전막 감상
클래식음악의 전도사 '앙드레 류 2023 네덜란드 공연' 실황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3번, 베토벤 교향곡 제7번
클래식음악영화 '카핑 베토벤' vs '불멸의 연인' 핀란드 음악기행 '시벨리우스 생가 기행&교향시 핀란드아 외'
엘가 첼로협주곡, 하이든 첼로협주곡,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제18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가을, 편지, 그리움,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0149

• 출연/박성희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 음악가/노스프라노 김유정, 최예솔, 클래식기타 고충진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감상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무지크바움 음악홀

입장료 | 월 4회 5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전문감상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음반 및 영상물 4,000장이 상을 소장하고 있는 전문 음악감상 홀이자 다양한 예

술 인문학 강좌도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인 무지크바움이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매주 수요일 두 차례, 르네상스 및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의 명반을 소개하고, 다양한 콘서트 실황 및 음악 페스티벌, 오페라, 재즈 및 월드뮤직, 예술영화 등을 영상으로 감상한다.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IV 제4기 사람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20년부터 열어온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네 번째 시리즈. 특히 유럽에서 10년간 전문해설가로 활동했던 김성민 강사가 생생한 현지의 감성으로 전하는 해설을 통해 인문학과 예술이 접목된 색다른 강의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제4기 강좌 '사람'에서는 10월 14일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키나'와 시칠리아를 시작으로 오페라 '오텔로'와 이탈리아 북부지역 이야기 (10월 21일), 오페라 '운명의 힘'과 러시아 샹트페테르부르크(10월 28일),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과 세기말 오스트리아(11월 4일), 그리고 록 콘서트(11월 11일)가 펼쳐진다.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일 시 | 6월 3일(토)-11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9:00

영도문화예술회관 4층 강의실

입장료 | 무료(초등 고학년~중학생 선착순 30명 이내)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클래식라디오 010-3881-3753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하는 2023년 문화교육프로그램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다섯 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수별 네차례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기르고 음악의 구조와 요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제5기 '뚝뚝치 타악이야기'가 펼쳐지며, 교육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11월 18일에는 가족의 날 기념으로 참여자 전원과 함께 즐기는 '애니메이션&영화 음악회'가 펼쳐진다.

예필의 인문예술 렉처콘서트 아리랑과 조선화의 어울림

일 시 |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4: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오페라바움 010-4205-1039



음악, 미술, 영화 등 3분야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세계 예술기행.

이번 무대는 한(恨)과 흥(興)이 어우러지는 신명 넘치는 한국예술 기행으로, 고려인 아리랑, 독립군 아리랑, 북한 아리랑, 아카펠라 아리랑, 재즈 아리랑 등 다양한 아리랑과 정선의 벽하담(碧霞潭), 장승업의 매화도(梅花圖) 등 조선화의 어울림 향연이 펼쳐진다.

아카펠라 아리랑, 재즈 아리랑 등 다양한 아리랑과 정선의 벽하담(碧霞潭), 장승업의 매화도(梅花圖) 등 조선화의 어울림 향연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한국 영화/아리랑(1926년, 나운규 감독)

아리랑 음악과 영상/탱고 진도아리랑, 랩 아리랑 등 조선 미술/겸재(謙齋) 정선의 벽하담(碧霞潭) 등 한국의 詩/님의 침묵, 만해(萬海) 한용운, 1925년 내설악 백담사에서

전시

Sacred Land

일 시 | 4월 13일(목)-10월 15일(일)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

문의 |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 747-1939

데이비드 호크니 & 브리티시 팝아트 1960s Swinging London

일 시 | 7월 21일(금)-11월 26일(일)

동구 문화플랫폼

문의 | (취사야컴퍼니 465-4070)

올리히 뷔스트 전 도시산책자:올리히 뷔스트의 사진

일 시 | 7월 22일(토)-11월 5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사진의 기록적 가치에 충실하며 절제된 관찰적 시각으로 독일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독일을 대표하는 사진가 올리히 뷔스트 사진전.

에바 알머슨 특별전:

에바 알머슨, Andando

일 시 | 9월 22일(금)-2024년 3월 24일(일)

피아크

문의 | (취디커뮤니케이션 070-8693-9758)

Dream, 아름다운 사유

이상희 초대 개인전

일 시 | 10월 7일(토)-10월 29일(일) 갤러리 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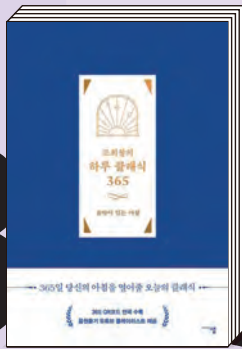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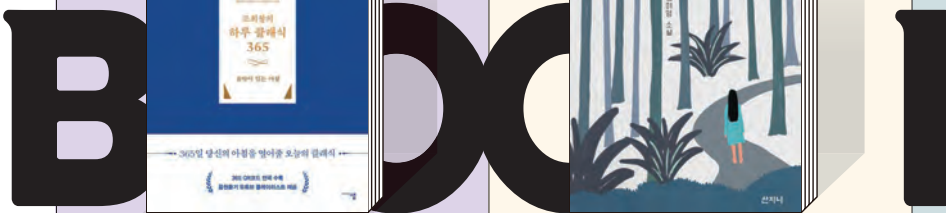
문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대한민국미술대상 전 최우수상 및 전국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고 일찍이 세계 각국의 아트 페어에 초대 받아

온 작가 이상희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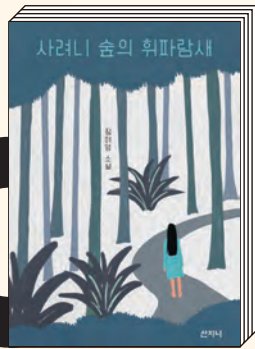
다양한 꽃을 즐겨 그려온 이상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Dream'을 주제로 동명의 작품들을 흡수, 포용하여 여러 변주를 선보이며 아름다운 꿈 세계를 확장한다.



조희창의 하루 클래식 365

조희창 지음 / 미디어 샘 / 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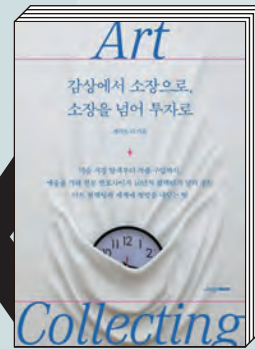
당신은 오늘 어떤 음악을 들었는가. 찾아서 듣지 않았다 해도 하루를 꽉 채운 24시간 동안 어디서든 음악이 들렸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음악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매일 좋은 음악 한 곡을 듣는 것은 어떨까. 이 책은 하루에 1곡, 그날에 벌어진 음악적 사건에 맞는 클래식을 추천하는 책이다. 1952년 8월 29일은 20세기 현대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손꼽히는 존 케이지의 '4분33초'가 초연된 날이며, 1958년의 같은 날에는 마이클 잭슨이 태어났다. 저자인 조희창 음악평론가는 8월 29일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존 케이지의 '4분33초'를 들을 수 있는 음원을 QR코드로 수록했다. '날짜'를 연결고리로 그날마다 벌어졌던 음악적 사건과 추천곡을 소개하고, 페이지마다 연주 영상이 담긴 유튜브 QR코드도 제공해 손쉽게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곡가뿐만 아니라 볼کم 카푸스틴과 같은 현대 음악가, 윤이상 진은숙 등 반가운 한국 음악가까지 클래식 음악사의 핵심이 될 만한 음악가와 음악을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편견 없이 소개한다. '나만의 음악 감상실'을 선물하는 책이다.



사려니 숲의 휘파람새

장미영 소설집 / 산지니 / 1만7000원

2019년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꾸준히 현대인의 모순된 심리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온 장미영 소설가의 첫 소설집. 책에 수록된 작품 7편은 '우리는 이 사회에서 과연 진실·진심의 땅에 가닿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절실한 질문을 던진다. 모든 수록작은 진실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 거기에 닿기 힘들어한다. 주인공도, 읽는 사람 마음도 애가 탄다. 아마 현대사회가 그러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럴 것이다. 표제작 <사려니 숲의 휘파람새>는 장미영 작가의 2019년 국제신문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청년이다. 그는 소리를 듣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다. 심지어 다른 층의 주인이 자기 집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자기 침대에 누워서 듣고 그 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다. 그는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초음파를 발사해 사물을 파악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박쥐처럼, 사람이 모르는 세상을 느낀다. 그의 진실은 세상 사람이 느끼는 보통의 진실과 다를 수가 없다. 긴장감이 높은 문장, 좋은 짜임새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아트 컬렉팅: 감상에서 소장으로, 소장을 넘어 투자로

케이트 리 지음 / 디자인하우스 / 2만원

“유명한 작가의 미술 작품이 고가의 금액으로 경매에서 낙찰되었다”는 기사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다. 유명 아트페어에 몇 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 몇 백 억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유명 연예인이 어떤 미술품을 구매했다 등의 보도를 보면 예술 작품 컬렉팅은 특별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일처럼 보인다. 고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재력, 작품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심미안 등을 떠올리며 먼 세상 이야기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예술 작품 컬렉팅이 큰 돈으로 명화를 구입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현실적인 금액으로 나만의 컬렉션을 꾸리고, 구매한 작품들이 훗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술품 거래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가치 있는 작품으로 자신의 컬렉션을 꾸리고 싶은 사람이 작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전해준다. '작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어떤 작품을 구입할까?' '예술 작품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작품 보는 안목은 어떻게 키울까?' '대체 투자로 주목받는 미술품 투자' '보유 작품 현금화하기' 등 흥미진진한 미술 시장 이야기와 정보를 알차게 소개하는 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센터장 양홍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20일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시민참여형 문화, 예술 콘텐츠 및 부산시립예술단 콘텐츠 제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영상 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연영상 제작 역량강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콘텐츠의 고급화와 다각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민제작단 프로그램에도 참여, 시민참여형 문화 예술 콘텐츠 제작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제작, 방송,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립예술단 '김해공항 이륙데이' 성료



부산시립예술단이 지난 8월 2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열린 '김해공항 이륙데이 (26day)'에 참가,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해공항 이륙데이'는 한국공항공사가 매월 26일로 정한 '문화와 함께하는 날'로, 부산시립예술단은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월 26일 공연을 펼치고 있다. 8월 26일 열린 행사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상진, 이현재, 홍영선, 최지현, 강지승)이 아름다운 현악5중주 공연으로 시민과 만났다.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김해공항 이륙데이'는 매월 26일 진행하며, 10월에는 국내선 2층 대합실(오후 3시)과 국제선 출국장(오후 4시)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참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0월 10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에 참가한다. 서울시과 세종문화회관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60년 국악관현악 역사상 처음 열리는 국악관현악축제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국내 최정상 국립관현악단 8개팀이 참석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0월 14일, 예술감독 이동훈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현악악장 김혜진(가야금),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김선옥(거문고), 국립창극단 부수석 민은경(소리꾼)의 협연으로 무대를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거문고 협주곡 '푸른파랑'(이은경 곡)을 초연으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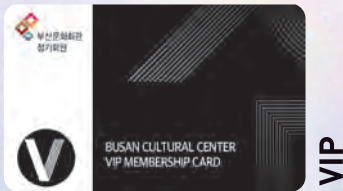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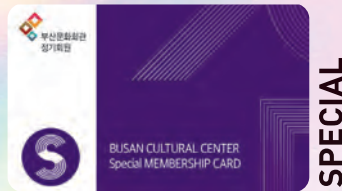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종료**

7월 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10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종료**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 5일 오전 10:20, 12일 오후 2:00(월·화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금·일요일 공연에 한해 회차별 R석 20매)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종료**

7월 7일(금)-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초대권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 오페라 카르멘> **종료**

7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연극 <검정 고무신> **종료**

7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종료

8월 20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종료

8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종료

8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종료**

8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종료**

9월 1일(금)-2일(토)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종료

9월 16일(토)-17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6일자 공연 S석 20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

10월 10일(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40매)

뮤지컬 <마리 퀴리>

10월 14일(토)-15일(일) 오후 2:00, 6: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0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음악을 통한 추억여행 <모던 에프터눈>

10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초대권 20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1월 3일(금)-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11월 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가족을 위한 무용 동화 <여우와 돌고래>

11월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뮤지컬 <렛미플라이>

12월 15일(금)-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S석 20매)

연극 <벚꽃동산>

12월 22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3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회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 2023년 7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 호 게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흥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 회원명 가나다순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 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 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 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합창단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 시리즈 IV

현대합창의 밤

Program

외국 현대 합창음악

Eric Esenvalds The New Moon (한국초연), In Paradisum (한국초연)

Jacob Narverud Sisi Ni Moja (We are One)

Kyle Pederson Heartbeat (한국초연)

Dominick Diorio A Chain Is Broken (한국초연)

Kyle Pederson The World Will See (한국초연)

한국 현대 합창음악

손정훈 Talk Talk, 비 오는 날

박선영 Dear. My Mother (초연)

김예은 이별노래 (초연)

이진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한국초연), 얼씨구 타령 (한국초연)

2023. 10. 20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균일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10.19 Thursday 19:00

2023.10.17 Tuesday

부산 합창제 제34회

BUSAN CHORAL FESTIVAL

2023. 10.17 (화) - 19 (목) 19: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무료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Best Western PLUS
Busan Songdo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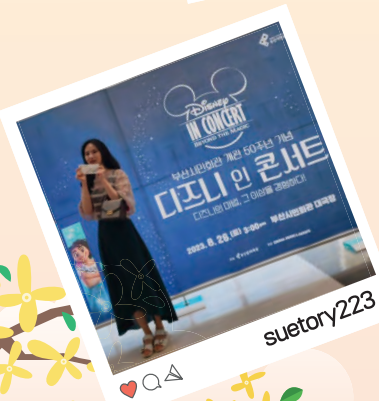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10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11월호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10.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OPERA & ART
LECTURE CONCERT



라 트라비아타 동백꽃 질 무렵

2023. 10. 19. Thu. 19: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미술관장 겸 이주현



해설가 겸 손지현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10

OCTOBER



브람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기회 정기연주회

Johannes Brahms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비극적 서곡, 작품번호 81
Tragic Overture, Op.81

하이든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56
Variations on a Theme by Haydn, Op.56

교향곡 제2번, 작품번호 73
Symphony No.2, Op.73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백승현

2023. 10. 31. | 화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온 맘이 들끓어

MUSICAL

마리 퀴리!

M. Curie

2023.10.14. Sat ~ 10.15. Sun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제19회 부산국제합창제

OCTOBER 17-21, 2023
BUSAN CINEMA CENTER, SOHYANG THEATR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국제합창제는 2030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KCI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협찬 대동대학교 반도건설 SAKATOSA 삼정 삼성기업 선보공업(주) 양산병원 천명리수제술단
티켓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070-4172-0682 busanchoral@gmail.com

Choral Busan
Festival &
Competition


2023 부산국제합창제 초청연주회

2023년 10월 19일~20일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INVITATIONAL CONCERT II 초청연주 II

EASTERN CHAMBER SINGERS

이스턴 챔버 싱어즈 

2006, 2007년 부산국제합창제 대상 UE CHORALE과 지휘자 ANNA


2023년 10월 20일(금) 20:00

티켓: R석 2만원/S석 1만원



INVITATIONAL CONCERT I 초청연주 I

THE REAL GROUP

더리얼 그룹 

'I SING, YOU SING' 현존하는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

2023년 10월 19일(목) 20:00

티켓: R석 5만원/S석 3만원/A석 2만원



부산시립무용단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_천상의 길'

The
Legacy

천상의 길

원작안무

김진홍

재구성안무

서정숙

예술감독

이정윤

2023.
10.27 FRI 19: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무용단

2023 부산공연 콘텐츠 페스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2023.
11. 2(Thu.)
-11. 10(Fri.)

분홍신 그 男子 2030

김옥련발레단
11.2(목)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길을 잃다

허경미무용단-무무
11.5(일) 5: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구루지

Dance Project EGERO(에게로)
11.10(금)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erforming Arts Busan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2023
대학교향악
축제

11. 18.(토) 15:00  경성대학교
11. 19.(일) 15:00  동덕대학교
11. 24.(금) 19:30  인제대학교
11. 25.(토) 15:00  동아대학교
11. 26.(일) 15:00  부산대학교

2023. 11. 18SAT - 11. 26SUN 부산문화회관 대극장